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논문

치어리딩 선수가 지각한 코칭행동,
코치-선수관계 및 운동행동의도의 관계:
관계유지전략의 조절된 매개효과

왕 예

제주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2023年 8月

치어리딩 선수가 지각한 코칭행동,
코치-선수관계 및 운동행동의도의 관계:
관계유지전략의 조절된 매개효과

이 論文을 體育學 博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王 瑞

齊州大學校 大學院

體育學科

指導教授 金 德 珍

王瑞의 體育學 博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2023년 6월

審査委員長 양 명 환

委 員 김 미 예

委 員 김 세 민

委 員 백 혜 경

委 員 김 덕 진



<제목 차례>

ABSTRACT

| | |
|-------------------------|-----------|
| I. 서론 | 1 |
| 1. 연구의 필요성 | 1 |
| 2. 연구의 목적 | 7 |
| 3. 용어의 정의 | 7 |
| II. 이론적 배경 | 10 |
| 1. 치어리딩 | 10 |
| 2. 코칭행동의 개관 | 12 |
| 3. 코치-선수관계 | 16 |
| 4. 운동지속의도 및 포기의도 | 25 |
| 5.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 | 27 |
| 6. 선행연구 고찰 | 34 |
| III. 연구 1 | 40 |
| 1. 문제제기 | 40 |
| 2. 연구방법 | 44 |
| 3. 연구결과 | 52 |
| 4. 논의 | 60 |
| IV. 연구 2 | 67 |
| 1. 문제제기 | 67 |
| 2. 연구방법 | 70 |
| 3. 연구결과 | 78 |
| 4. 논의 | 88 |

| | |
|----------------------------|-----|
| V. 종합논의 | 92 |
| VI. 결론 | 96 |
| 참고문헌 | 97 |
| 부록 1: 연구 1의 질문지<한국판> | 117 |
| 부록 2: 연구 1의 질문지<중국판> | 121 |
| 부록 3: 연구 2의 질문지<한국판> | 125 |
| 부록 4: 연구 2의 질문지<중국판> | 129 |

〈표 차례〉

| | |
|---|----|
| 표 II-1. 코치의 정의 | 13 |
| 표 II-2. 코치-선수관계에서 공동지향성(Co-orientation)의 3차원 | 20 |
| 표 II-3.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 척도(CARM-Q) | 30 |
| 표 III-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44 |
| 표 III-2. 코칭행동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 46 |
| 표 III-3. 운동지속의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 47 |
| 표 III-4. 운동포기의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 48 |
| 표 III-5. 코치-선수관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 49 |
| 표 III-6. 측정변수들의 기술통계량과 분포특성 | 52 |
| 표 III-7. 측정변수들 간에 상관계수 | 52 |
| 표 III-8. 자율적 코칭행동, 코치-선수관계 및 운동행동의도(지속의도, 포기의도) 간의 직접효과 검증결과 | 53 |
| 표 III-9. 자율적 코칭행동과 운동행동의도(지속의도, 포기의도) 간의 관계에서 코치- 선수관계의 매개효과 검증결과(간접효과) | 55 |
| 표 III-10. 통제적 코칭행동, 코치-선수관계 및 운동행동의도(지속의도, 포기의도) 간의 직접효과 검증결과 | 57 |
| 표 III-11. 통제적 코칭행동과 운동행동의도(지속의도, 포기의도) 간의 관계에서 코치- 선수관계의 매개효과 검증결과(간접효과) | 58 |
| 표 IV-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70 |
| 표 IV-2. 통제적 코칭행동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 72 |
| 표 IV-3. 운동포기의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 73 |
| 표 IV-4. 코치-선수관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 74 |
| 표 IV-5. 관계유지전략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 75 |
| 표 IV-6. 측정변수들의 기술통계량과 분포특성 | 78 |
| 표 IV-7.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 79 |
| 표 IV-8. 통제적 코칭행동과 운동포기의도 간의 관계유지전략의 조절효과 검증결과 | 80 |

| | |
|---|----|
| 표 IV-9. 통제적 코칭행동과 운동포기의도에 대한 코치-선수관계(친밀감)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 80 |
| 표 IV-10. 통제적 코칭행동과 운동포기의도에 대한 코치-선수관계(헌신)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 81 |
| 표 IV-11. 통제적 코칭행동과 운동포기의도에 대한 코치-선수관계(상보성)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 82 |
| 표 IV-12. 코치-선수관계(친밀감)를 경유한 통제적 코칭행동과 운동포기의도 간의 매 개효과에 대한 관계유지전략의 조절효과 검증결과 | 83 |
| 표 IV-13. 코치-선수관계(헌신)를 경유한 통제적 코칭행동과 운동포기의도 간의 매 개효과에 대한 관계유지전략의 조절효과 검증결과 | 85 |
| 표 IV-14. 코치-선수관계(상보성)를 경유한 통제적 코칭행동과 운동포기의도 간의 매 개효과에 대한 관계유지전략의 조절효과 검증결과 | 86 |

<그림 차례>

| | |
|--|----|
| 그림 II-1. 코칭의 효율성: 핵심적인 요소로서의 코치-선수관계(Jowett, 2017) | 18 |
| 그림 II-2. 스포츠에서 리더의 영향력 체계(Chelladurai, 1978) | 18 |
| 그림 II-3. 성공적인 코치-선수관계의 구성요소(Jowett, 2007) | 19 |
| 그림 II-4. 코치-선수관계 통합 연구모형(Jowett, & Poczwardowski, 2007) | 21 |
| 그림 II-5. 코치-선수관계 통합 연구골격(Jowett & Poczwardowski, 2012) | 23 |
| 그림 II-6. COMPASS 모형(Rhind & Jowett, 2012) | 30 |
| 그림 II-7. 코칭행동, 정서반응 및 수행간의 구조적 관계(장보경, 김승재, 2019) | 34 |
| 그림 II-8. 코칭행동, 코치-선수 간 상호작용, 팀 분위기, 운동선수 탈진의 관계 (정구인, 임동기, 최헌혁, 2019) | 35 |
| 그림 II-9. 코칭행동에 따른 자기-조절동기과정과 스포츠 수행의 모형(김순영, 박 상혁, 2015) | 35 |
| 그림 II-10. 코칭 스타일과 팀 효능감 및 중도탈락의도의 구조적 관계(한연숙, 허진 영, 2018) | 36 |
| 그림 II-11. 코칭행동과 운동선수의 탈진의 관계: 소통과 코치-선수관계의 매개효 과(Choi, Jeong, & Kim, 2020) | 37 |
| 그림 II-12. 코치가 청소년 선수의 체육활동 지속의도에 대한 코치의 영향: 코치- 선수관계의 매개효과(Wekesser, Harris, Langdon, & Wilson, 2021) | 37 |
| 그림 II-13. 코칭행동과 운동선수 탈진의 관계에서 코치-선수관계의 매개역할(홍성택, 조선령, 2020) | 38 |
| 그림 II-14. 코칭행동과 팀 효능감의 관계에서 코치-선수관계 유지의 역할 검증 (허진 영, 최헌혁, 2017) | 38 |
| 그림 II-15. 관계유지전략과 운동선수의 탈진의 관계(Fan, Chen, Chen, Li, Guo, Shi, Yang, Yang, Yang, Ding & Shi, 2022) | 39 |
| 그림 III-1. 연구 1의 연구모형 | 42 |
| 그림 III-2. 연구 1의 연구대상 지역분포 | 44 |
| 그림 III-3. 코칭행동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 46 |

| | |
|---|----|
| 그림 III-4. 운동지속의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 47 |
| 그림 III-5. 운동포기의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 48 |
| 그림 III-6. 코치-선수관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 50 |
| 그림 III-7. 자율적 코칭행동, 코치-선수관계 및 운동행동의도의 경로분석 결과 | 54 |
| 그림 III-8. 통제적 코칭행동, 코치-선수관계 및 운동행동의도의 경로분석 결과 | 56 |
| 그림 IV-1. 연구 2의 연구모형 | 69 |
| 그림 IV-2. 연구 2의 연구대상 지역분포 | 70 |
| 그림 IV-3. 통제적 코칭행동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 72 |
| 그림 IV-4. 운동포기의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 73 |
| 그림 IV-5. 코치-선수관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 74 |
| 그림 IV-6. 관계유지전략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 76 |
| 그림 IV-7. 통제적 코칭과 포기의도의 관계에서 친밀감의 매개효과 도해결과 | 80 |
| 그림 IV-8. 통제적 코칭과 포기의도의 관계에서 헌신의 매개효과 도해결과 | 81 |
| 그림 IV-9. 통제적 코칭과 포기의도의 관계에서 상보성의 매개효과 도해결과 | 82 |
| 그림 IV-10. 관계유지전략 수준에 따른 조절효과의 단순기울기 검증 | 84 |
| 그림 IV-11. 통제적 코칭행동, 친밀감과 운동포기의도의 관계에서 관계유지전략의 조절된 매개효과 | 85 |
| 그림 IV-12. 통제적 코칭행동, 헌신과 운동포기의도의 관계에서 관계유지전략의 조 절된 매개효과 | 86 |
| 그림 IV-13. 통제적 코칭행동, 상보성과 운동포기의도의 관계에서 관계유지전략의 조절된 매개효과 | 87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코칭행동과 운동행동의도 간의 관계에 관여하는 기저 메커니즘을 검증하는데 있었다. 구체적으로, 연구 1의 목적은 치어리딩 선수들이 지각한 코칭행동과 운동행동의도 간의 관계에서 코치-선수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연구 2의 목적은 통제적 코칭행동과 운동포기의도의 관계에서 코치-선수관계의 매개효과가 관계유지전략에 의해서 상이하게 조절되는지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1의 대상자는 중국 동부 5곳 지역에 소재한 20개 대학교의 치어리딩 선수 440명이었으며, 연구 2의 대상자는 중국 남부 8곳 지역에 소재한 20개 대학교의 치어리딩 선수 330명이었다. 표적변수에 대한 표준화된 질문지조사를 거쳐 얻은 자료들은 SPSS 26.0, AMOS 24.0, PROCESS Macro(V4.2) 프로그램을 통해 통계처리를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치어리딩 선수들이 지각한 자율적 코칭행동은 매개변인(친밀감, 헌신, 상보성)을 경유하여 운동지속의도에 유의한 정(+)의 간접영향을 미쳤으며, 자율적 코칭행동은 친밀감, 헌신을 경유하여 운동포기의도에도 유의한 부(-)의 간접영향을 미쳤다.

둘째, 치어리딩 선수들이 지각한 통제적 코칭행동은 매개변인(친밀감, 헌신, 상보성)을 경유하여 운동지속의도에 유의한 정(+)의 간접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친밀감, 헌신 및 상보성을 경유하여 운동포기의도에도 유의한 정(+)의 간접영향을 미쳤다.

셋째, 치어리딩 선수들이 지각한 통제적 코칭행동 → 친밀감 → 운동포기의도 간의 매개효과는 관계유지전략 수준에 따라서 상이한 조절효과가 있었다. 즉, 통제적 코칭행동이 친밀감을 경유하여 운동포기의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관계유지전략의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통제적 코칭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운동포기의도를 경감시키거나 조절할 수 있는 관계유지전략의 효과를 입증하였다. 즉, 관계유지전략은 긍정적인 코치-선수관계를 촉진시키고 부정적인 코치-선수관계를 완화시키는 조절변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코칭행동, 코치-선수관계, 운동행동의도, 관계유지전략, 조절된 매개효과

ABSTRACT

Effects of Coaching Behavior Perceived by Cheerleading Players on Coach-Athlete Relationship and Sports Behavioral Intention: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Relationship Maintenance Strategy

Wang Rui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Korea*

Directed by Prof, Duk-Jin, Kim, Ph, 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underlying mechanism involv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aching behavior and sports behavioral inten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1 was to test the mediating effect of the coach-athlete relationship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aching behavior and sport behavior intention perceived by cheerleaders, The purpose of study 2 was to investigate whether the mediating effect of the coach-athlete relationship was differently regulated by the relationship maintenance strateg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rolling coaching behavior and intention to dropout sports.

The participants of study 1 were 440 cheerleaders from 20 universities located in 5 regions in eastern China, and the participants of study 2 were 330 cheerleaders from 20 universities located in 8 regions in southern China. Data obtained through a standardized questionnaire survey on target variables were statistically processed

through SPSS 26.0, AMOS 24.0, and PROCESS Macro(V4.2) program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autonomous coaching behaviors perceived by the cheerleaders had a significant positive indirect effect on the intention to continue sporting via the mediating factors(closeness, commitment, and complementarity), and the autonomous coaching behaviors had a significant negative indirect effect on the intention to dropout sport via closeness and commitment.

Second, the controlling coaching behavior perceived by the cheerleaders had a significant negative indirect effect on the intention to continue exercising via the mediating factors(closeness, commitment, and complementarity). In addition, controlling coaching had a significant positive indirect effect on intention to dropout sport via closeness, commitment, and complementarity.

Third, the mediating effect between controlling coaching behavior → closeness → intention to dropout sport perceived by cheerleaders had different moderating effects depending on the level of relationship maintenance strategy. In other words, the indirect effect of controlling coaching behavior on the intention to dropout sport via closeness was different depending on the conditions of the relationship maintenance strategy.

In conclusion, the effectiveness of the relationship maintenance strategy that can alleviate or control the intention to dropout sport that can occur due to controlling coaching behavior was demonstrated. It was confirmed that the relationship maintenance strategy can be a moderating variable that promotes a positive coach-athlete relationship and alleviates a negative coach-athlete relationship.

Key Words: coaching behavior, coach-athlete relationship, sport behavior intention, relationship maintenance strategies, moderated mediating effect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21년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는 올림픽의 새로운 정식종목으로 치어리딩(cheerleading)을 채택함에 따라 치어리딩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치어리딩은 국가 교육계와 체육계의 높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2 중국치어리딩위원회 통계조사’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매년 100회 이상의 전국 규모의 치어리딩 경기 대회가 열리고 있고 치어리딩협회에 등록된 심판과 코치의 수는 7만 명에 이르며, 치어리딩 클럽은 이미 5천 개소를 증가하고 있다. 또한 약 3만 개 이상의 학교에서 치어리딩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치어리딩은 선수들의 기량이 지역간 편차가 심하고 우수선수들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李鴻, 2006) 국제대회 참가도 소수의 인원으로만 제한적으로 출전하고 있다(田晶晶, 2019). 아울러 치어리딩 코치들의 안무 능력과 훈련 시스템에 대한 지식도 부족한 실정이다(王學鋒, 2016). 이렇듯 중국의 치어리딩 수준은 중주국인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과 비교해 볼 때 실력 차이가 많아 체계적이고 실제적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중국 대학교 치어리딩 선수들은 중국 치어리딩의 예비 자원으로서 미래의 희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 치어리딩 선수들은 운동과 학업, 그리고 사회적 요구로 인해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시기라 할 수 있다(Pritchard & Wilson, 2005). 이러한 문제들은 우수 선수들의 운동포기의도를 증가시켜 조기 탈퇴로 내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 스포츠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하나의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章芳芳, 2013). 따라서 중국 치어리딩 선수의 운동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심리적 요인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스포츠 심리학 및 사회학 분야에서는 엘리트 선수의 운동에 대한 지속의도와 포기의도와 같은 운동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선수들의 중도탈락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Wankel(1985)은 선수들의 운동지속을 위해서는 즐거움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 주어야 함을 제안하였고 운동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운동선수가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운동태도, 동기, 기대감, 가치관, 계획성 등이 크게 작용하는데, 이 가운데에서 또래, 친구, 교사 및 코치의 권유가 선수들의 운동지속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권태원, 최영철, 2010). 뿐만 아니라, Sarrazin, Boiché, & Pelletier(2007)의 연구에서는 운동선수 주변의 주요타자(코치, 부모, 동료 등)의 행동들이 선수들의 운동지속과 포기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스포츠 상황에서 선수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핵심 인물로서 코치들(강신녀, 류태호, 2013; 배준수, 박수경, 김수연, 2022)은 훈련과 경기 조직과 같은 코칭 프로세스(coaching process)의 다양한 측면에 관여하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에게 스포츠 기술뿐만 아니라 지도자나 심리학자로서 심리기술을 가르치고 힘든 시기(예, 부상, 경력 전환 등)에는 정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운동 환경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Lyle, 1999). 이와 관련하여 코치의 행동이나 코칭의 방법 그리고 코칭유형이 선수의 운동만족, 경기력 및 코치-선수관계와 같은 변수를 예측하는 핵심요인으로 간주하였다(김선욱, 오영택, 부남철, 양명환, 2016; Jowett & Poczwardowski, 2007; Jowett, 2017; Poczwardowski, Barott, & Jowett,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어리딩 선수가 겪는 여러 가지 불안정한 환경을 완화시키기 위해 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인 지도자의 코칭행동에 주목하고자 한다.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을 기반으로 하는 최근의 연구들에서 개인의 심리욕구(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와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변수로 코치의 자율적 행동(autonomous coaching behavior)과 통제적 행동(controlling coaching behavior)을 주목하고 있다(Deci & Ryan, 2000). 자율적 코칭행동은 선수 자신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선수의 선택과 판단을 코치가 지지해 주는 코칭행동 방식을 뜻하며(Black & Deci, 2000), 통제적 코칭행동은 코치가 설정한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따라 선수들이 행동하도록 만들기 위해 강요하고 압박하며 권위적인 방식으로 지도하는 것을 의미한다(박중길, 김기형, 2013; 양명환, 2015).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 두 가지 유형의 코칭행동은 운동선수의 훈련 동기, 성격 형성, 심리적 변화, 행동 표현, 선수만족, 수행성취, 그리고 팀 분위기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Jowett, 2017; Roxas & Ridinger, 2016). 자율적 코칭행동은 선수들에게 긍정적인 분위기를 촉진하고 수행능력의 향상을 도우며(Reeve & Jang, 2006), 잠재적 동기자원을 이끌어내고 발달시키는 긍정적인 힘으로 보고되고 있다(Høigaard, Jones, & Peters, 2008; Reeve, Deci, & Ryan, 2004; Yoo & Cheon, 2017). 반대로 통제적 코칭행동은 운동선수들에게 부정적인 생각(Zourbanos, Hatzigeorgiadis, Tsiakaras, Chroni, & Theodorakis, 2010), 불안감(Ledochowski, Unterrainer, Ruedl, Schnitzer, & Kopp, 2012), 탈진(Mellano, Horn, & Mann, 2022)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스포츠에서 코칭행동의 유형(자율적 코칭/통제적 코칭)에 따라 선수의 운동행동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李爛煌(2002)의 연구에 따르면, 선수들이 지각한 코치의 코칭행동(예: 배려한 행동, 통제적 코칭, 자율적 코칭)은 코치-선수관계에 대한 선수들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 다른 연구들에서도 자율적 코칭행동은 코치-선수관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Lafrenière, Jowett, Vallerand, & Carbonneau, 2011), 코치와 선수 사이에 긍정적인 감정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었다(Reeve et al., 2004). 반면, 통제적 코칭행동은 코치-선수관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artholomew, Ntoumanis, & Thøgersen-Ntoumani, 2010). 이와 같이 승리를 최종 목표로 하는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운동지속을 위한 코치-선수관계는 중요한 변수임에 틀림없다(마해영, 2014; 박병훈, 2011; 박중길, 2009; Poczwardowski et al., 2006). 따라서 치어리딩 상황에서 코치가 보여주는 리더십 행동은 코치-선수관계에서 이들의 상호작용과 운동지속의도 및 포기의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코치와 학생 선수의 관계성을 좀 더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코치-선수관계(coach-athlete relationship)란 코치와 선수가 정서(친밀감), 인지(헌신감) 그리고 행동(상보성)에 있어 서로 상호 의존하고 상호작용하는 상황으로 정의되었다(Jowett & Ntoumanis, 2004; Jowett et al., 2007). 이는 경쟁적 스포츠 환경에서 운동선수들이 경험하는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관계 중 하나이며(Gervis & Dunn, 2004), 이와 더불어 운동선수들에게 최고의 기능을 발휘시키기 위한 핵심 전제조건이다. 때로는 코치의 힘이 선수의 훈련 외에도 식단, 수면 패턴, 심지어 대인관계를 포함한 삶의 다른 영역까지 확장된다(Tominson & Yorganci, 1997). 과거의 스포츠 사회에

서는 지도자와 선수 간의 체계가 권력형 구조로써 수직적·획일적·일방적인 관계로 작용하였으나 최근에는 구성원들 간에 팀의 효율성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써 코치와 선수 간의 원활한 관계적 측면을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다(Jowett & Cockerill, 2003). Lyle(1999)은 코치와 선수 간에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Jowett(2005)는 코치와 선수 간의 운동 파트너십을 코치의 기본이자 핵심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실제로 코치-선수관계는 코치와 선수의 요구가 표현되고 충족되는 역동적이고 복잡한 코칭 프로세스가 포함된다. Côté와 Sedgwick(2003)은 코치와 선수 사이의 상호작용이 코치와 선수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코치와 관련된 연구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주장은 지난 20여 년 동안 훈련에서 나타난 주목할 만한 문제들을 반영하고 있다. 즉, 코치의 초점이 선수들의 신체적, 기술적, 전략적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Miller & Kerr, 2002)에서 점차 선수의 신체적, 심리 사회적 기술과 선수와의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 개발을 촉진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코치-선수관계는 선수들의 긍정적인 행동이나 부정적인 행동과 관련이 있다(박병훈, 2011; Poczwardowski et al., 2006). 많은 선행연구들이 코치-선수관계가 수행결과(Gould, Collins, Lauer, & Chung, 2007; Jowett, 2007), 심리적 발달(Jowett et al., 2003; Miller & Kerr, 2002)과 심리적 결과(Kenow & Williams, 1999; Lafrenière, Jowett, Vallerand, Donahue, & Lorimer, 2008) 및 대인관계 결과(Jowett & Chaundy, 2004)에 미치는 영향을 광범위하게 연구하였다. Jowett & Shanmugam(2016)는 코치와 선수의 존중과 믿음, 신뢰, 의사소통 등을 통한 상호작용이 경기수행의 성공과 만족을 유도해 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고, 서희진(2005)은 운동참가 시 지도자 및 동료와의 관계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수록 운동지속 의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선수가 코치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선수들은 다양한 심리·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일상생활은 물론, 훈련 과정과 경기력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마해영, 2014; 박중길, 2009; Jowett et al., 2003; Wylleman, 2000). 김덕진(2015)의 연구에서도 코치-선수관계는 탈진의 하위요인들과 부적인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게다가 다양한 팀 스포츠의 종목 중에서 치어리딩은 코치와 선수 또는 선수와 선수 간에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필요로 하는 운동으로 평가된다. 다른 스포츠 선수들에 비해 팀 구성원들 서로 간에 신뢰와 배려, 그리고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김주

회, 2019). 따라서 코치-선수관계가 치어리딩 선수들이 지각한 코칭행동과 선수의 운동행동의도에서 잠재적인 매개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코치-선수관계는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적 전략을 구축하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코치-선수 서로 간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관계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려는 행동이 필요한데, 이를 코치-선수 관계 유지전략(coach-athlete relationship maintenance strategies)이라고 한다(엄창량, 2021). Canary & Stafford(1994)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만족스러운 관계를 원한다.”고 주장하였다. 게다가, 사람들이 효과적인 유지전략을 사용하지 않는 한 코치와 선수의 관계는 악화되고 궁극적으로 관계는 끝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개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투자되어야 한다(Miell & Duck, 1986). 스포츠 맥락에서 코치와 선수들은 경기력 향상, 성공 수행, 체력 유지 또는 단순히 참여를 즐기는 것과 같은 광범위한 목표에 의해 동기유발되어 그들의 운동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는 다양한 상황(예: 다양한 경쟁수준과 스포츠 유형)에서 발생하며 조직의 제약(예: 조직 문화, 목표, 자금 압박 등)을 받는다. 따라서, 코치-선수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은 녹록치 않으며 종종 코치와 선수의 의식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Jowett, 2009). Dindia & Canary(1993)는 관계유지를 특정 상태 또는 조건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전략으로 설명하였다. 관계 유지를 사용하는 몇 가지 예로는 의견 불일치 영역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공동 타협(즉, 갈등관리) 또는 저녁 시간에 함께 외출하는 것(사교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Wiegel & Ballard-Reisch(1999)는 유지전략이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의 관계의 질을 유지하는 주요 방법이라고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관계유지전략은 성공적으로 맺어진 대인관계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게 하고 보다 만족스럽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며(권현진, 2006), 관계유지전략의 부재는 관계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Canary, Stafford, & Semic, 2002).

코치-선수관계와 운동행동의 관계에서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은 긍정적인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으며(Davis, Jowett, & Tafvelin, 2019). 특히, Dindia & Canary(1993)의 연구에서는 유지전략이 대인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사건이나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이로 인한 갈등을 회복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관

계유지전략이 코치-선수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계유지전략은 코치-선수관계와 선수의 운동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인 조절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요약해 보면, 이러한 증거들에 입각하여 치어리딩 현장에서 코치-선수관계는 코칭행동과 지속의도 및 포기의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며,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은 이들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대부분의 중국 선수들은 자신의 일상생활 및 훈련생활이 코치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 반면, 서구의 선수들은 코치에 의해 더 많은 자유와 지지를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엄창량, 2021). 즉, 아직까지 중국 스포츠에서의 코치와 선수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보다는 수직적인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측면이 선진 외국 스포츠와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중국 치어리딩 현장에서의 코치-선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적의 심리적·행동적 전략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심은 선수들의 운동지속과 운동만족, 그리고 안정적인 팀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데 효과적인 방법을 유도할 것이다(Rhind & Jowett, 2010,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치와 선수들이 어떻게 그들의 운동관계의 질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중국에서 코치-선수관계와 관련된 연구들은 기존의 CART-Q 모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연구의 범위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으며(엄창량, 2021), 특히 코치-선수관계의 역동적 변화를 반영하는 관계유지전략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치어리딩 분야에서는 코치-선수관계를 직접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아직까지 문헌에 보고된 바가 없다. 더욱이 코칭행동과 운동행동 간의 관계에서 코치-선수관계의 매개효과와 이 간접효과에 대한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의 조건부 효과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결국 코치-선수 관계를 결정하는 선행변인과 결과변인들에 대한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련의 2편의 연구를 통하여 치어리딩 선수들이 지각한 코칭행동과 운동행동의도 간의 관계에서 코치-선수관계의 매개효과와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의 조건부 간접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코칭행동과 운동행동의도 사이에 관여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밝혀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운동지속의도를 향상시키고 포기의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중국 스포츠 현장에서 활동하는 대학생 치어리딩 선수들이 지각하는 코칭 행동과 선수의 지속의도 및 포기의도의 관계에서 코치-선수관계의 매개효과를 구명해 보고 이들 관계의 매개효과가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에 의하여 유의하게 조절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연구 1에서는 코칭행동과 치어리딩 운동선수의 지속의도 및 포기의도의 관계에서 코치-선수관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자율적 코칭행동과 관련된 긍정적 결과, 통제적 코칭행동과 관련된 부정적 결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구명하고자 한다.

연구 2에서는 통제적 코칭행동이 코치-선수관계를 매개로 하여 치어리딩 운동선수의 포기의도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이러한 매개효과가 관계유지전략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코치의 코칭행동이 선수의 행동에 미치는 잠재적 메커니즘을 밝히고, 치어리딩 코치들의 지도 수준과 치어리딩 선수들의 운동수행을 향상시켜 선수들의 포기의도를 예방하는 한편, 치어리딩 운동의 발전을 촉진하게 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의 중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이루어졌다.

1) 코칭행동

코칭행동(coaching behavior)은 코치가 행해야 할 의무로써 선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선수관리를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코치가 지녀야 할 능력을 의미한다(박정근, 2001). Vallerand & Losier(1999)의 연구에 따르면 코칭행동은 자율적 코칭행동과 통제적 코칭행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율적 코칭행동(autonomous coaching behavior)은 선수 자신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선수의 선택과 판단을 코치가 지지해 주는 코칭행동 방식을 뜻하며(Black et al., 2000), 본 연구에서는 楊勇(2008)이 개발한 자율적 코칭

행동 5문항에 응답한 값을 의미한다.

통제적 코칭행동(controlling coaching behavior)은 지도자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방식들을 선수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압적인 방식으로 선수들에게 지도하는 것을 의미한다(양명환, 2015). 본 연구에서는 楊勇(2008)이 개발한 통제적 코칭행동 5문항에 응답한 값을 의미한다.

2) 코치-선수관계

코치-선수관계(coach-athlete relationship)는 코치와 선수 간의 인지, 정서, 행동에 있어서 상호의존하고 신뢰, 존중, 감사, 좋아함, 헌신, 편안함 등의 친밀감과 관계성을 지속시키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상황으로 정의된다(Jowett et al., 2007). 본 연구에서 코치-선수관계는 Jowett et al.(2004)의 코치-선수관계 척도의 하위요인인 친밀감, 헌신, 상보성에 응답한 값으로 조작적인 정의를 하였다.

3) 운동행동의도

운동행동의도(sports behavioral intention)는 운동을 하려는 의지를 가지거나 운동을 포기하려는 의향을 가지고 있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운동행동의도를 운동지속의도와 운동포기의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조작적인 정의를 하였다.

운동지속의도(intention to continue sports)는 신체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운동에 직접 참가하고 그 활동을 규칙적으로 행하는 것이며, 운동에 대한 집착, 지속, 애착을 의미한다(Weinberg & Gould, 1995).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치어리딩 선수들이 치어리딩 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의도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운동포기의도(intention to dropout sports)는 운동선수가 운동수행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운동을 중단하거나 선수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치어리딩을 하면서 누적되는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운동을 중단하고 싶은 생각, 선수생활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 등을 운동포기의도의 개념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4) 관계유지전략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coach-athlete relationship maintenance strategies)은 코치 또

는 선수가 성공적인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심리적, 행동적 전략을 의미한다(엄창량, 2021). 본 연구에서는 엄창량(2021)이 개발한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 척도에 근거하여 대학생 치어리딩 선수들이 코치와 관계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거나 성공적인 관계를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4개의 요인 중 갈등관리전략과 운동열의전략을 합성하여 관계유지전략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총 점수가 높을수록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 수준이 높은 것으로 정의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치어리딩

1) 치어리딩 운동의 개요

치어리딩(Cheerleading)은 응원을 의미하는 Cheer와 이끈다는 의미의 lead가 더해져 만들어진 단어로 합성, 댄스, 구호, 노래 등으로 선수 및 관중을 고무시키는 응원형태를 말한다(박수영, 2018). 이는 초기 부족사회의 의식에서 유래했으며 전쟁이나 사냥에 나선 전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사람들이 환호하고 춤추는 퍼포먼스를 통해 전사를 격려하는 의식을 거행한다. 현대 치어리딩은 미국 축구의 응원활동에서 발전한 것이며, 미국의 NBA, 럭비, 야구, 수영, 육상, 레슬링 등의 경기 현장에 널리 퍼져 있는데 지금까지 벌써 100년이 역사를 넘었다. 좁은 의미로는 경기의 승리를 위해 경기장 치어리더(Cheerleader)들이 구호, 합성, 댄스, 체조 등 여러 응원방법을 동원해 응원하는 행위를 말한다(박수영, 2018).

치어리딩 운동은 빠르게 성장하는 스포츠라 할 수 있으며(Shields & Smith, 2006), 2013년에 국제 스포츠 종목 연맹(General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ports Federations: GAISF)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으며 체조, 농구, 축구, 육상, 수영과 병렬한 독립종목이 되었으며, 회원 국가는 100여 개에 이른다. 2021년 7월 20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제138차 회의에서 치어리딩, 유도, 킥복싱, 무술이 새로운 올림픽 종목으로 공식 채택되면서 그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단체 스포츠로서 치어리딩이 다른 종목과 구별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최고의 팀 명예심 및 협동심, 기여 정신, 대승적 의식을 추구하는 팀 정신이다(김보라, 2014). 치어리딩은 팀 구성원 간의 완성된 동작을 위한 상호 협력과 높은 일관성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팀 구성원의 다양한 능력 발휘를 중시함으로써 각 팀원이 팀 협력에서 서로 다른 위치에서 서로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팀 윈윈(win-win), 위험 공유 및 이익 공유의 집단 의식을 형성한다(徐學偉, 2014). 치어리딩을 통해서 팀원 간의 협동심, 리더십개발, 유연성, 신체기능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하였다(이소연, 공세진, 2014; 김

종훈, 2015). 본 연구에서의 치어리딩은 스포츠 종목으로써의 의미만 갖는다.

2) 치어리딩의 분류 및 특성

치어리딩이 전세계적인 스포츠가 되면서 현재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치어리딩 단체는 ICU(International Cheer Union)이다. ICU에서 규정하는 치어리딩은 가장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하는데 스텐트 치어리딩과 댄스 치어리딩으로 나누고 있다(박수영, 2018).

가. 스텐트 치어리딩

스텐트 치어리딩(stunt cheerleading)은 체조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포츠이며 공중에서 주로 동작을 수행하는 플라이어(Flyer)와 공연 및 기술을 실행하는 바닥과 직접적인 접촉이 있고 다른 사람의 무게를 지탱하는 사람인 베이스(Base)가 텀블링과 피라미드, 점프, 토스, 아크로바틱 등의 기술을 사용하는 스포츠이다(김태범, 2016, 재인용). 스텐트 치어리딩은 댄스의 요소를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피라미드 기술에서 팀원들의 역할이 분명하게 나뉘져 있다 맨 아래에서 선수들을 받쳐주는 역할을 베이스(base)라 하고 탑을 쌓을 때 올라가는 역할을 플라이어(flyer)라고 한다(연은정, 2019). 또한 스텐트 치어리딩 선수들은 피라미드 기술의 수준에 따라서 레벨이 나뉘게 될 수 있으며, 팀은 성별, 난이도, 인원수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탁슬기, 2013). 다른 치어리딩 유형보다 역할 분담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고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Chen, Kuang, & He, 2023) 안전장치와 숙련된 지도자가 필요하며 팀원들 간의 팀워크와 신뢰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김태범, 2016).

나. 댄스 치어리딩

댄스 치어리딩(dance cheerleading)은 다양한 안무구성과 대형변화, 일치성, 유연성, 창의성, 예술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종목이다. 댄스 치어리딩은 크게 Freestyle, Hiphop, Jazz 3개의 종목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인원수에 따라 단체 종목과 2명이 진행하는 더블 종목이 있다. 힙합과 재즈 치어리딩은 사실상 춤에 더 가까우며 대부분의 댄스 치어리딩은 팜(Pom)이라고 불리는 응원용 수술을 양손에 쥐고 치어리딩 고유의 동작을 넣어 안무를 수행하는 프리스타일 팜이다(박수영, 2018). 스텐트 치어리딩에 비해 댄스 치어리딩은 부상위험이 적고 리듬의 배합과 동작의 예술성을 더 중시하고 운동 강도, 난이도, 동작의 완성, 그리고 선수의 신체 능력도 강조하고 있다.

3) 치어리딩의 선행연구

최근 몇 년 동안 치어리딩 국제화의 급속한 성장을 배경으로 관련 학자들의 치어리딩 연구도 점점 더 심화되고 광범위해지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치어리딩 관련 연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치어리딩 운동의 역사(이예슬, 2017), 치어리딩 운동의 전개 현황과 미래 발전(김중훈, 2017; 李育林, 寇磊, 王曉東, 2015), 운동기술 특징(김주희, 2019; 陳瑞琴, 陳鬆, 2018), 기능적 가치(김은규, 2019), 교수 방법(盧鳳, 周茜, 王路漫, 萬梨, 2022), 기술 훈련 수단(연은정, 류재균, 2012; 姜國凱, 劉小靜, 2022), 운동 손상(Currie, Fields, Patterson, & Comstock, 2016), 신체소질과 생리적 기능(Thomas, Seegmiller, Cook, & Young, 2004), 시장 가치(Brady, 2002)등의 주제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과학적인 연구는 빠르게 발전되고 있지만 다학제적 관점의 교차 연구가 부족하였으며 (Chen, Li, & Zhang, 2017; 陳麗霞, 李祥祥, 2017), 특히 스포츠 심리학의 관점에서 진행된 실증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관점에서 치어리딩 운동선수의 심리적 요인을 탐색하고 대학생 치어리딩 운동선수의 양성을 강화하는 실증적 연구는 더 더욱 드물다. 따라서 대학생 치어리딩 선수를 대상으로 다양한 심리적 변인들을 다각도로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코칭행동의 개관

1) 코칭이란

코칭의 개념은 1880년경 보트 경기의 지도자인 ‘코치’가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행위’에서 유래되었으며 주로 스포츠 체육학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다(탁진국, 조은현, 2011, 재인용). 이 주제는 20세기 1930년대부터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많은 심리학 및 경영학 전문가들이 지도자의 코칭에 대한 심층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가 계속 심화됨에 따라 학자들이 배경이나 지도 분야에 따라 코칭에 대한 정의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Siedentop(1983)은 스포츠 현장에서 지도행동을 학습자(선수)에게 기능, 지식, 이해, 가치 등을 개선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활동의 총체로 정의하였으며, Martens(1987)는 코칭이란 코치가 팀 목표를 계획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훈련과 팀을 이끄는 총체적인 행위, 또는 코치 자신이 주체가 되어 선수들을 지도하는 상호작용을 통한

형태라고 보고하였다. 박정근(2001)의 연구에서는 스포츠 현장에서 코칭이란 코치가 행해야 할 의무로써 선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훈련에 임할 때 종목의 전문 지식과 체력, 기술, 전술 및 전략 등의 훈련방법과 선수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코치가 지녀야 할 지도능력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코칭의 개념을 <표 II-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II-1. 코칭의 정의

| 연구자 | 코칭의 정의 |
|--------------------------------------|---|
| Stowell(1986) | 토론과 대화를 근거로 한 리더의 개입으로 조직구성원들의 역량변화를 촉진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의, 코칭을 통해 팀의 성과와 긍정적인 변화 강조 |
| Kinlaw(1989) | 탁월한 성과를 이끌어 내고, 몰입, 긍정적인 관계를 갖도록 하는 관리자와 종업원 간의 상호 대화 |
| Peterson(1996) | 개인이 스스로 성장하고 보다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회 및 수단을 제공하는 과정 |
| Hun&Weintraub (2002) | 코칭을 조직구성원의 성과 향상을 위한 기제로 간주하며,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통해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리더의 충분한 피드백을 통해 구성원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 |
| Stober & Grant (2006) | 코치 와 고객이 상호 협력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해결 방법을 찾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고객의 지속적인 자기주도 적 학습과 성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
| Steve & Kevin (2007) | 제시된 목표에 대해 대화하고 생각을 촉진시키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하는 코치와 아이디어와 의견을 내고 목표 달성을 위해 실행하고 경과를 보고하는 책임을 가진 코치가 함께 협력하는 과정 |
| Cox, Bachkirova & Clutterbuck (2010) | 코칭을 구조화되고 집중적인 상호작용 을 포함하며 적절한 전략, 도구 및 기법을 활용하여 피코치 및 다른 관련된 사람들의 바람직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개발과정 |
| Passmore & Fillery-Travis (2011) | 코칭을 코치와 피코치 또는 참여자 간의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을 기반으로 한 미래 지향적 대화법으로서 , 코치는 가방질문, 요약과 성찰을 활용하여 피코치의 자기인식과 책임감을 촉진하는 데 목표를 둔 과정 |
| Peter (2005) | 사람들이 관심사나 재능, 환경 그리고 잠재력과 관련해 더 효율적으로 스스로를 주도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지원하는 상호적이면서도 집중된 훈련 방식을 코칭 |
| ※출처: 조인화(2016)의 연구에서 발췌 및 재구성 | |

한허정(2007)은 개인 및 조직의 성과 향상을 목적으로 구성원의 자발적 행동을 유발하고 학습을 촉진하는 기술이자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코칭을 의미하는 정의를 요약해 보면, 코칭이란 코치가 선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선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등의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장을 위한 역할을 해주는 총체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김선욱, 2020).

코치들은 일종 심리적인 환경을 조성해주며(Duda & Balaguer, 2007), 이러한 환경은 운동선수의 인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스포츠 분야에서 코칭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많은 연구자들이 코치의 코칭을 통해 선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코칭행동은 선수들의 사회적·심리적 발달과정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팀의 경기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간주되었다(Smoll & Smith, 2006).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 의하면, 코치의 코칭행동은 자율적 코칭행동과 통제적 코칭행동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제안한다(양명환, 2015; Deci et al., 2000).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 두 가지 코칭행동과 선수들이 지각하는 코치의 유형에 따라서 선수들의 심리적·신체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주로 자율적 코칭행동과 통제적 코칭행동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자율적 코칭행동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 근거한 자율적 코칭행동은 코치와 선수의 상호관계에서 권위적인 위치의 코치가 선수에게 통제나 요구를 최소화하면서, 선수 개인의 감정과 의사를 이해하고 개인의 선택을 위한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여(Black et al, 2000; 김선욱, 2020) 선수들이 경험하는 심리적인 압박과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Deci & Ryan, 1985). 이는 코치와 선수 간의 화합관계를 강조한다. 즉 코치가 선수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임무의 관련성을 강조하며, 규칙과 규제의 원인을 설명하고, 운동 선수에게 능동적인 기회를 제공하며, 비통제 능력 피드백을 제공하고 통제적 동기부여 전략의 사용을 피하고, 운동선수의 이기적인 행동을 방지한다(Mageau & Vallerand, 2003). 따라서 자율적 코칭행동을 요약하면 코치가 선수들의 의지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스스로 도전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포츠 현장에서 자율성 지지는 개인의 행동과 수행에 가장 일관되게 영향을 주는

요소로 개인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보이는 주요타자에게 자율성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게 되는 개인의 설명이다(김기형, 박종길, 2009). 국내외의 선행연구는 코치의 자율적 코칭행동은 운동선수의 내부 동기 유지나 심리욕구만족, 투지, 심리적 건강 및 적극적 정서와 대응 행동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김현주, 김덕진, 2020; 樊榮, 王斌, 葉綠, 王倫, & 馬鈺璇, 2020; Mageau et al., 2003; Pelletier, Fortier, Vallerand, & Briere, 2001; González-García & Martinent, 2020). 王勵勤 & 張斌(2017)은 탁구와 배드민턴 전문 선수에 대한 연구에서 민주적 코치가 선수들의 경기 불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성취동기가 이 두 가지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저자들은 국제 유명한 스포츠 스타이며, 자율적 코칭행동에 대한 관심과 코칭행동에 대한 연구는 코치의 코칭행동이 운동선수들에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3) 통제적 코칭행동

통제적 코칭행동은 코치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선수의 의지에 관계 없이 권위적으로 강제적인 방식을 통해 선수들에게 지도하는 것을 의미하였으며(박종길 등, 2013; 양명환, 2015), 이는 코치와 선수 간의 일종의 구속 관계를 강조하였다. 일반적으로 통제적 코칭행동은 선수의 내재적 동기 유지, 호의적인 코치-선수관계의 형성 및 코치-선수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Amorose & Anderson- Butcher, 2015; Horn, 2000; Conroy & Coatsworth, 2007).

전술한 코치의 자율적 행동과 통제적 행동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결과와 관련 정의를 결합해 보면, 두 가지 코칭행동은 정반대의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연구들에 따르면 양자의 관계는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예를 들면 양명환(2015)의 연구에는 운동기술 개발과 진보를 위하여 간섭하고 통제, 강요하면서 선수들을 양육하는 통제적인 코칭이 코치들의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훈련기법 중 하나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선수의 입장에서 보면, 성적과 기량보다는 주체적인 인간성 회복이 선수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Pelletier et al.(2001)은 수영선수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수영선수가 지각한 코치의 자율적 행동과 통제적 행동의 잠재적 요인들 간의 관계를 밝혀냈는데 양자 사이에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통제적 행동과 자율적 행

동이 정반대가 아님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코치는 다양한 정도에서 통제적 코칭과 자율적 코칭을 동시에 처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예를 들어, 코치는 조건부 존중을 규율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요구하는 행동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는 자율적 행동의 부족(즉, 기존 자율적 행동에서 낮은 점수)이 통제적 행동의 존재와 자동적으로 동일시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자율적 행동의 부족이 아마도 직접적인 통제보다는 중립적인 스타일을 표명한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성질의 코칭행동이 선수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데 기초해야 하여 두 가지 코치의 코칭행동 간의 관계를 심도있게 연구해야 할 것이다.

3. 코치-선수관계

1) 코치-선수관계의 이해

세계적인 최고의 운동선수들(올림픽 메달리스트)은 자신의 코치가 자신의 성취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하곤 한다. 반면 금메달을 따고 새로운 기록을 세운 선수가 코치를 공격하고 비판하는 소리는 내는 경우도 거의 없다. 이것은 확률적인 것도 아니고 우연의 일치도 아니다. 코치와 선수 간에 형성된 이런 독특한 파트너십(partnership)을 우리는 코치-선수관계라고 부른다(Jowett & Shanmugam, 2016).

초기에는 코치-선수관계(Coach-Athlete Relationship: CAR)를 '사제 관계'로 표현하는데 사용했는데, 이를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한 개인(스승)과 경험이 부족한 젊은 개인(제자) 간의 인간 교환 관계로 정의했으며, 교환에서 스승은 제자에게 직업 발전에 대한 지원, 방향 및 피드백을 제공한다(Russell & Adams, 1997). 후기에는 Jowett & Ntoumanis(2004)는 인간관계에서의 상호의존이론에 의거하여 코치-선수관계는 코치와 선수가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차원에서 서로 의존하는 상황으로 정의했다. 이 정의는 코치와 선수의 친밀성, 헌신, 상보성에 대한 상호의존성을 반영하였으며 인지적, 감정적 및 행동적인 세 가지 측면을 포괄하고 있으며 널리 응용되고 있다. 이 정의는 코치-선수관계를 역동적인 상황이나 상태로 간주하고 상호 의존과 상호영향을 강조하며 관계의 쌍방향성이 뚜렷하다. 다시 말해서, 코치의 감정, 인지 및 행동은 운동선수로부터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운동선수의 인지, 감정 및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 정의는 관계의 질이 다차원이라는 관점을 뒷받침하였으며 코치-선수관계의 연구에서는

정서, 인지, 행동의 3개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

스포츠 현장에서 코치는 사회화주관자(socializing agents)인데 코치-선수관계가 팀 경기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다(Smol & Smith, 2006). Jowett & Cramer(2010)는 어떤 유형의 관계(예: 코치-선수 또는 부모-선수)가 신체 능력에 대한 젊은 선수들의 생각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코치-선수 관계가 신체 능력에 대한 젊은 선수들의 생각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월드컵 당시 히딩크 감독이 보여준 리더십이 관심을 받으면서 국내 여러 종목에서 코치들의 리더십, 의사소통, 기술 함양을 위한 교육과 세미나를 통해 코치들의 사고와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김병문, 2010), 이를 반영하듯 스포츠 심리학에서 코치-선수관계 관한 연구가 주목받게 되었다(김기형, 박중길, 2008).

선수들에게 있어 코치는 매우 중요한 존재이지만, 현실적으로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코치들이 행하는 선수들과의 상호작용 행동은 선수의 경기력은 물론 그들의 삶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Jowett, 2005; LaVoi, 2007). 효율적인 코칭행동은 팀의 목표성향을 달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김기형 등, 2008). 대학교에서 코치는 선수들로부터 질 좋은 수행결과를 거두기 위해 선수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전략을 모색함과 동시에 유기적 관계를 조성하기 위한 관계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최현혁, 허진영, 2014), 선수들은 코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토대로 최적의 수행 및 성공을 얻기 위해 코치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박중길, 2009). 결과적으로 코치와 선수는 공통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긍정적 상호관계를 유지하는데 힘쓰며, 이러한 노력은 그들이 원하는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율 또는 효과적 방법인 것이다(남광우, 2016). 선행연구에 의하면, 코치-선수 관계는 코치의 변혁적 리더십이나 자율성 지지 등의 코칭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신영균, 2011; 황정동, 주재형, 임승현, 2016). 코치와 선수 상호간의 존경과 신뢰, 믿음,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은 운동수행의 만족과 성공을 이끌어 내는데 매우 중요한 관계요소이다(Jowett, Paull, & Pensfaard, 2005).

이와 같은 코치와 선수와의 관계에 관한 효용성에 주목하여 스포츠 현장에서 코치-선수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코치의 전반적인 지도행동과 선수와의 관계는 <그림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팀의 전반적인 수행능력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Jowett,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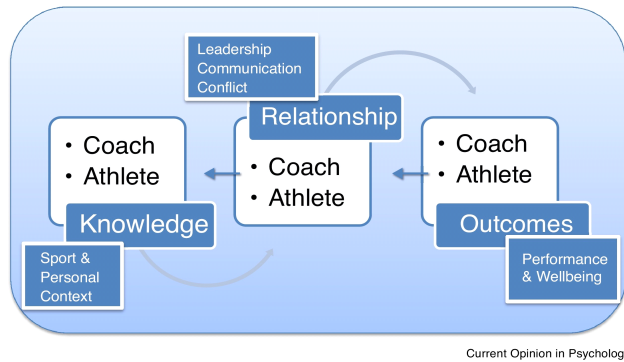


그림 II-1. 코칭의 효율성: 핵심적인 요소로서의 코치-선수관계 (Jowett, 2017)

동시에 그 관계의 질에 따라 선수들에게 긍정 또는 부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유정인, 문익수, 성장훈, 2009). 또한 <그림 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코칭행동은 단순히 코치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상황. 그리고 지도자의 지휘를 받는 구성원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복잡한 관계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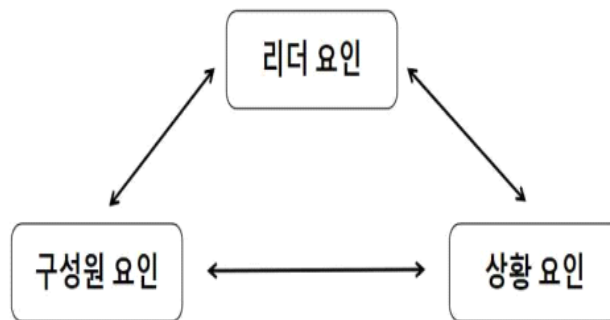


그림 II-2. 스포츠에서 리더의 영향력 체계(Chelladurai, 1984)

2) 코치-선수관계의 이론적 모형

코치-선수관계에 대한 연구는 학자들이 주로 코칭 행동과 코치의 역할에서 출발하여 다차원적 리더십 모델(Multi-Dimensional Model of Leadership)과 리더십 매개모델(Mediation Model of Leadership)을 제안하였다. 또한 여러 연구자들이 코치-선수관계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Mageau et al.(2003)가 제안한 동기모형(Motivational Model), Poczwardowski, Barott, & Henschen(2002)이 제시한 질적-해석적 골조(Qualitative-Interpretive Framework), 그리고 3차원 인간행동 모델(Wylleman, 2000), 코칭 행동 효능모형(Côté & Gilbert, 2009), 관계중심이론(LaVoi,

2007), 역 이론(Shepherd, Lee, & Kerr, 2006) 등이 있다. 종합해보면, 이러한 이론적 모델은 코치와 선수의 대인관계를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코치-선수관계의 연구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Jowett(2007)가 제안한 3+1Cs 이론이다.

Jowett & Meek(2000)은 질적 사례연구를 기반으로 코치-선수관계의 구성개념을 정립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Jowett et al.(2004)는 친밀성(closeness), 헌신(commitment), 상보성(complementarity)이라는 3요인 11문항의 코치-선수관계척도(Coach-Athlete Relationship Questionnaire: CART-Q)를 개발하였다. 그 후에 Jowett(2005, 2007)는 코치(선수)의 감정, 생각과 행동들이 선수(코치)에 의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양자적 관점에서 코치와 선수 관계의 질은 4개 심리 요인(친밀감, 헌신, 상보성, 공동지향성)에 의해서 구성된다고 주장하면서 3+1Cs의 구성개념을 제시하였다(그림 II-3 참고).



그림 II-3. 성공적인 코치-선수관계의 구성요소(Jowett, 2007)

친밀성은 코치-선수관계의 정서적 측면을 말하며, 그들 상호간의 호감, 신뢰, 존경의 느낌을 가리킨다. 질적 사례 연구는 배려받고, 좋아함, 존중받는 느낌과 서로를 신뢰하는 능력이 코치와 선수의 내재적(예: 창의력, 결심) 및 대인 관계(예: 관계 유지)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냈다(Jowett et al., 2000). 헌신은 코치와 선수 양측이 업무동반자 관계(working partnership)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두 사람이 함께 협력하는 인지적 경향을 의미한다. 헌신은 주로 문제나 갈등이 있을 때 코치나 선수 중 한쪽이 상대방에게 양보해 서로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데서 유지된다. 서로 타협하지 못하면 동반자 관계는 무너지고 헌신은 유지될 수 없다. 상보성은 쌍방의 행동 내용을 가리키며 특히 훈련 과정에서 코치와 선수 간의 보완 및 협

력을 의미한다. 상보성은 쌍방 간에 상호 호혜와 일치이며 상호보완 관계가 나타날 때 코치-선수관계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 예를 들어, 코치가 지시하면 선수는 지시에 따라 상응하는 행동을 하며 코치-선수관계의 행동 특성을 가리킨다. 끝으로 공동지향성은 코치와 선수의 상호간 의식과 그들의 상호관계에서 확립된 공통 기반의 수준을 나타낸다.

하지만 코치-선수관계의 친밀성, 헌신, 상보성은 직접적인 시각(Direct perspective), 메타 시각(Meta perspective) 두 가지 시각으로 평가할 수 있다(표 II-2 참고). 직접적인 시각은 평가 관계 구성원 자신이 다른 구성원의 친밀감, 헌신, 상보성의 인식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나는 나의 코치를 신뢰하다'. 메타 시각은 평가 관계 구성원들이 자신에 대해 다른 구성원의 생각을 추측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나의 코치는 나를 신뢰하다'. 직접 시각과 메타 시각 모두 코치-선수 관계에 대한 예측력을 가지고 있다(Jowett, 2007). 코치와 선수의 직접적인 관점 또는 메타 관점의 일치성 비교를 통해 3+1Cs, 즉 공동지향성(Co-orientation)을 도출하게 된다. 다른 정서적, 인지적 및 행동적 요소에 관통하기 때문에 '+1' 요소로 표시된다. 공동지향성에는 가설적 유사성, 실제 유사성 및 공감적 이해를 포함한다. 가설적 유사성은 관계 일방이 자신의 감정, 생각 및 행동을 다른 일방이 공유하게 된다고 가정하는 정도를 반영한다. 실제적 유사성은 관계 쌍방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 생각 및 행동의 유사성 정도를 반영한다. 공감적 이해는 관계의 한 쪽이 다른 쪽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정도를 반영한다.

표 II-2. 코치-선수관계에서 공동지향성(Co-orientation)의 3차원

| 비교 점 (직접시각과 메타시각) | 공동지향성의 차원 |
|---|------------------------------------|
| 선수/코치의 직접시각 VS 메타시각 | 가설된 유사성 (Assumed Similarity) |
| 선수: 나는 내 코치를 존중함; 선수: 나의 코치는 나를 존중함 | 선수의 가정된 유사성 |
| 코치: 나는 내 선수들을 존중함; 코치: 내 선수들은 나를 존중함 | 코치의 가정된 유사성 |
| 코치의 직접시각 VS 운동선수의 직접시각 | 실제 유사성 (Actual Similarity) |
| 코치: 나는 내 선수를 좋아함; 선수: 나는 나의 코치를 좋아함 | 코치 혹은 선수의 실제 유사성 |
| 코치의 직접시각/메타시각 VS 선수의 메타시각/직접시각 | 공감적 이해 (Empathic Understanding) |
| 코치: 나는 내 선수들을 믿음; 선수: 나의 코치는 나를 신뢰함 | 선수의 공감 이해 |
| 코치: 내 선수들은 나를 믿음; 선수: 나는 나의 코치를 신뢰함 | 코치의 공감 이해 |

또한 Jowett(Jowett et al., 2007; Jowett, Yang, & Lorimer, 2012)등은 세 가지 주요 측면을 포함하는 코치-선수관계의 통합모델을 제안하였다. <그림 II-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측면은 독립변수로서 개인차(예: 인격 및 개인 경험), 사회 문화적 배경(예: 사회적 역할 및 문화적 가치), 관계의 특정 특성(예: 관계 시간 및 관계 유형)이 포함된다. 두 번째 측면은 관계의 질로서 관계 구성원의 감정, 인지 및 행동을 포함한다. 세 번째 측면은 종속변수인데 개인 내의 결과(예: 개인적 만족도와 운동수행), 대인 간의 결과(예: 관계 만족도와 대인간의 갈등) 및 집단의 효능(팀 응집력, 집단적 효능 및 대중적 선호) 등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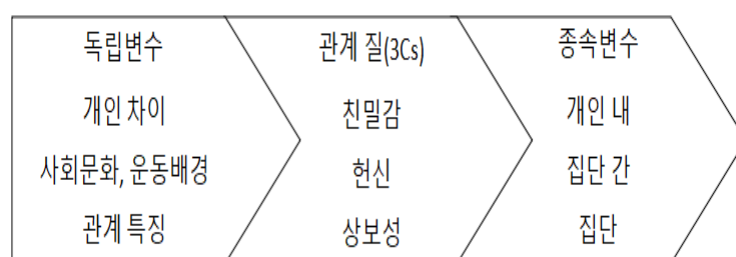


그림 II-4. 코치-선수관계 통합 연구 모형(Jowett & Poczwardowski, 2007)

요약해 보면 3+1Cs 이론은 코치와 운동선수의 대인 교제가 실제로 인지, 감정 및 행동의 세 가지 측면에서 두 사람의 상호 작용이라는 것을 표명하였다. 다른 코치-선수 관계의 관련 이론과 비교하여 이 이론은 관계 주체의 상호 작용의 역동성을 강조하며 코치-선수관계의 호혜적 방식과 평등적인 상호 작용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Jowett가 3+1Cs 이론을 구축했을 때, 코치와 선수를 대응분석 단위로 하였으며 이런 창조적인 연구 방식은 CAR 연구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받게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통합 모델은 코치-선수 상호 관계가 파트너십 프로세스 로 발전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 기반을 제공하였다(최미영, 2015).

3) 코치-선수관계의 선행연구

① 코치-선수관계의 영향 요인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코치-선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통계학적 요인(예: 성별, 인종, 운동 수준, 운동 종목 유형 등), 운동선수의 성격 특질 요인(열정, 내·외향성 등), 코치 개인 요인(코칭리더십, 리더십 스타일, 동기 분위기, 관계유지전략 등)이 포함된다.

인구통계학적 요인: 郭宇剛(2016)의 연구에 따르면 운동선수의 성은 친밀성, 헌신 및 상보성에 대한 운동선수의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Jowett & Nezlek(2012)은 138명의 코치와 선수를 조사한 결과, 운동 수준이 더 높을수록 코치-선수관계의 질과 만족도가 더 높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성과 운동 수준뿐 아니라 종목 유형도 코치-선수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Rhind, Jowett, & Yang(2012)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 종목 선수는 단체 종목 선수보다 코치에게 더 높은 친밀성과 헌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선수 성격 특질 요인: Lafrenière et al.(2008)은 스포츠 열정이 코치-선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조화열정이 높은 수준의 코치-선수관계를 예측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Jowett et al.(2012)의 연구에 따르면 운동선수의 호의적 성격 특성 (agreeableness)은 코치-선수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Yang, Jowett, & Chan(2015)의 연구에 따르면 코치와 선수의 5대 성격특성(big-five personality)도 코치-선수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코치의 개인적 요인: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선수의 성격 특질 요인이 코치-선수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에 비해, 코치의 개인적 요인이 코치-선수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더 풍부하다. 이 중 가장 많이 연구된 것은 코치리더십 혹은 코칭행동이 코치-선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다. 王迪(2006)는 코치와 선수의 인간관계가 주로 코치의 업무 능력, 코치의 업무 태도, 코치의 성격 특성, 코치의 대인 관계 능력의 4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청소년 축구선수를 대상으로 코칭행동 유형과 코치-선수관계, 운동열정 및 운동지속의사의 관계를 살펴본 허진혁(2021)의 연구에서 청소년 축구선수가 지각한 코칭행동(자율성 지지 코칭행동, 통제적 지지 코칭행동)은 코치-선수관계에 매개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프로축구 코칭행동과 팀 효능감 및 코치-선수관계 유지의 역할의 관계를 살펴본 허진영, 최헌혁(2017)의 연구에서 자율성 지지 코칭행동은 코치-선수관계 유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통제적 코칭행동은 코치-선수관계 유지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코치-선수관계 유지는 팀 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 외에도 Jowett & Poczwardowski(2007)는 질적 연구의 심층면담 결과를 기반으로 통합적인 코치-선수관계의 연구 골조를 구축하였으며 연구 골조는 코치-선수관계의 영향 요인과 결과를 보여준다(그림 II-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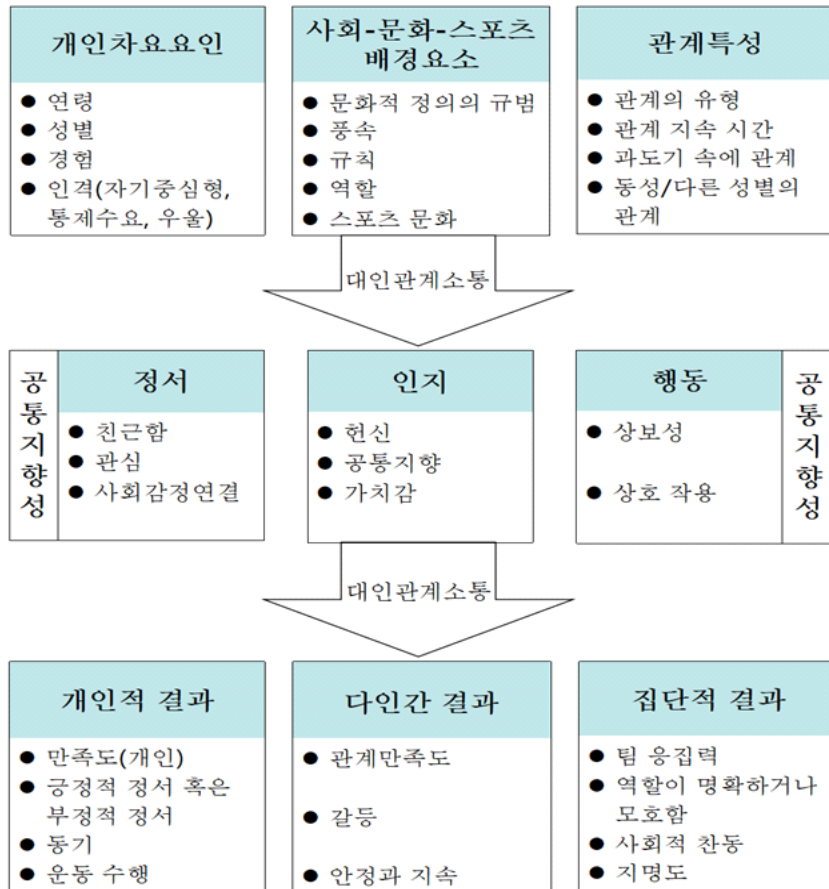


그림 II-5. 코치-선수관계 통합 연구 골조(Jowett & Poczwardowski, 2007)

이와 같은 선행연구와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알 수 있듯이 코칭행동은 코치-선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② 코치-선수관계의 효과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코치-선수관계가 만족도, 동기, 운동수행, 팀 응집력, 대인갈등 및 지원, 식이장애, 스트레스 평가 및 대응방식, 인지, 정서, 운동탈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자들은 이미 조화로운 코치-선수관계가 선수의 운동수행, 운동만족도, 심리적 웰빙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유정인, 최만식, 임용택, 2012; Jowett & Nezlek, 2012; Philipe & Seiler, 2006). Mageau et al.(2003)은 선수들의 동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코치와 선수의 관계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특성이 있는

코칭행동이라 보고하였다. 박중길(2009)의 연구에서는 코치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선수들이 기본육구만족이 높고 긍정적인 신체적 안녕감과 자아수용, 삶의 목적과 개인적 성장의 동기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일부 연구자들은 코치-선수관계와 팀 응집력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Jowett et al.(2004)는 전문대 선수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코칭행동과 코치-선수관계가 팀 응집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결과에 따르면 코치의 통제적 코칭행동 경우에는 코치-선수관계가 팀 응집력, 사회적 응집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hanmugam, Jowett, & Meyer(2013)의 연구는 코치와 선수 간의 갈등은 전형적인 위험요인이며, 운동선수들에게 낮은 자존감, 자기 비판적 완벽주의 및 우울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식이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Nicholls, Levy, Jones, Meir, Radcliffe, & Perry(2016)의 연구에 따르면 코치-선수관계는 선수의 스트레스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선수의 스트레스 대응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Rottensteiner, Kontinen, & Laakso(2015)는 2235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포츠에서 탈퇴한 청소년보다 스포츠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이 더 높은 수준의 코치-선수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최현혁과 허진영(2014)의 연구에서 선수가 지각하는 코치와의 관계 정도는 개인의 운동관련 인지, 동기, 정서 및 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Kenow & Williams(1999)의 연구에 따르면 높은 코치-선수관계 양립성(Coach-Athlete Compatibility)을 지각할 수 있는 운동선수들은 시합에 참여하기 전에 인지적 불안과 신체적 불안 수준이 낮고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는 코치-선수관계가 운동선수의 인지 및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학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코치-선수관계와 탈진의 관계를 살펴본 최현혁, 허진영, 김석규(2013)의 연구에서 코치-선수관계는 운동선수의 기본적 심리육구와 탈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기본적 심리육구를 경유하여서도 탈진에 간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종합적으로 보면 스포츠 현장에서 코치-선수관계의 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코치와 운동선수의 긍정적인 관계는 팀과 선수들의 운동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이는 코치-선수관계의 질이 운동선수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스포츠 분야에서 코치-선수관계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4. 운동지속의도 및 포기의도

운동 참가요인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사회적, 생리적, 그리고 심리적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세 가지 운동 참가 요인은 운동 프로그램에 지속적인 참가를 촉진하거나 유지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운동프로그램을 중도에 탈락시키는데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운동 참가 특성 중 심리적 특성은 인간에게 똑같이 주어진 환경에서 인간의 행동이 모두 똑같은 메커니즘에 의해서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즉, 운동 참여자에게 운동참여를 유발시키거나 지속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동기유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스포츠심리학에서 동기유발이란, 인간의 행동을 발현시키고 활성화 시키며, 행동을 지속시키거나 중단시키는 힘을 의미한다(Massie & Shephard, 1971).

운동지속의도(exercise continuance intention)는 운동선수가 의도적으로 운동에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운동에 참가하고자 하는 의도를 의미한다. 다수의 연구에서도 코치-선수관계와 지속의도 간에는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황수영, 장덕선(2020)은 대한사격연맹에 등록된 사격선수들을 대상으로 대인관계가 코치-선수관계를 매개로 운동지속 및 중단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코치-선수관계를 매개로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유능성이 지속의도에 정(+의) 간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치-선수관계를 매개로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유능성이 운동중단에 부(-의) 간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영(2021)은 유도선수들을 대상으로 코치-선수관계, 스트레스, 운동지속의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도선수들의 코치-선수관계가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쳤으며, 지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도선수들의 스트레스가 운동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Jowett & Meek(2000)은 3Cs 모델을 활용해서 육상 코치와 선수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코치와 선수가 서로 느낀 친밀감이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고 운동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Jowett & Cockerill(2003)이 12명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대상으로 3Cs 이론 모델에 따라 코치-선수관계를 검토한 결과, 선수들이 자신의 성적을 감독의 노력과 관심으로 돌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Jowett & Cramer(2010)는 영국의 173명의 육상 및 체조 선수를 대상으로 관계의 질과 우수선수의 자기묘사를 분석한 결과, 코치-선수관계가 선수들의 기능 및 운동수행을 예측할 수

있으며, 코치들의 지지와 관심이 많을수록 선수들이 자신의 기능, 생리적 상태, 전반적인 표현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연구결과들(친길영, 양종욱, 2016; 박병훈, 2011; 장보경, 김승재, 2019)도 코치-선수관계가 높을수록 선수의 운동수행에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코치-선수관계는 운동지속의도와 밀접한 상관이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반면, 코치와 선수 간의 불편한 관계가 갈등의 형태로 분출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불편한 관계가 운동선수들에게 많은 부정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즉, 운동선수의 운동포기의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금메달 32개를 획득하고 세계신기록을 5번이나 깬 중국 수영선수 대귀홍(戴國宏)은 코치와의 불화로 선수 생활을 포기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러한 현상은 체육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스포츠에서의 운동포기의도는 일정기간 동안 스포츠 활동에 참가하다가 개인적, 사회적, 제도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참가가 중지되는 것을 의미한다(신정욱, 서희진, 2010). 많은 연구에서 코치-선수관계가 운동선수의 지속적인 참여동기와 운동포기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Frey, Czech, Kent & Johnson(2006)은 1996년 미국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부진했던 선수들의 자기 귀인 조사를 통해 코치와 선수 간의 관계가 선수들의 경기력 발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이 되었음을 발견했다. 이 조사는 또한 선수와 코치 사이의 긴장이 선수들의 자신감 부족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선수의 '운동저조' 기간을 연장하고 선수 생활을 조기 종료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Rottensteiner, Laakso, Pihlaja, & Konttinen(2013)은 선수들이 운동을 그만두는 주요 원인을 조사하고 청소년의 스포츠 탈퇴 결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타자의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젊은 선수들의 중도 포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타자는 코치와 동료였다. Ungerleider(1997)는 뛰어난 올림픽 선수 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선수들의 조기 은퇴가 코치-선수관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Tabei, Fletcher, & Goodger(2012)의 연구에 따르면 코치-선수관계는 전형적인 스트레스의 원천이며 코치-선수관계 수준이 좋지 않을 때 선수는 코치의 훈계, 무시 및 공격을 받기 쉽고 좌절감, 고립감 및 위협감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운동선수는 운동 흥미, 동기, 자신감 및 진취성을 잃기 쉽고 고민, 긴장, 불안 및 기타 심리적 반응이 나타나 극심한 심리적 피로를 겪게 된다. 김기동, 강현우, 문원재, 정광채, 양대승(2018)은 대학 태권도 겨루기 선수들이 지각하는 지도자의 통제적 코칭행동

이 중도포기의도에 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김윤만(2020)의 연구에서도 통제적 코칭행동 중 위협요인은 중도포기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요약해 보면, 국내외 운동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대부분 운동수행과 운동포기의도를 선수의 운동행동 지표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코치의 긍정적 행동은 선수들에게 좋은 감정을 유발함으로써 코치-선수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코치와 선수 간에 좋은 관계는 선수의 높은 수준의 운동수행을 확고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수의 운동포기의도를 예방할 수 있다. 즉, 코칭행동과 코치-선수관계, 그리고 코치-선수관계와 운동지속의도와 운동포기의도의 관계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예측은 코치-선수관계가 코칭행동과 선수의 운동지속의도와 운동포기의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적 추론을 가능하게 해준다.

5.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

1) 관계유지전략의 정의

Canary & Stafford(1994)는 “모든 이원적 관계에서 관계 주체는 오랜 기간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지속하려고 갈망하며, 즐거운 인간관계를 얻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대인간의 관계는 단절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지금까지 학자들은 다양한 특성에 근거하여 관계유지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yres(1983)는 교환이론의 관점에서 관계유지의 개념을 만족스러운 관계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계획적인 행동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Shea & Pearson(1986)은 관계유지란 “현재의 관계를 장기간 동안 긍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Dindia et al.(1993)는 관계유지전략이 일반적으로 관계를 특정한 경우 또는 상태로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전략으로 정의하였다. Ledbetter, Stassen, Muhammad, & Kotey(2010)은 관계유지전략은 자원 공유, 정체성 및 관점 표현을 촉진하는 교체행동이라고 생각한다. Dindia & Baxter(1987)는 관계유지를 미래에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사건이나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갈등이 발생할 경우 만족스러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적인 전략이라고 하였다. Duck(1999)의 관점에 따르면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행하는 행위들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Stafford & Canary(1991)는 관계유지전략이 만족스러운 관계의 질(예: 헌신, 사랑, 만족도)을 유지하기 위해 동료 간에 채택된 행동을 의미한다고 본다. Stafford, Dainton, & Hass(2000)는 관계유지전략이 개인의 의식적인 관계 유지 및 향상 행동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Ledbetter(2010)는 관계유지행동을 자원 공유, 신분 정체성 및 관점 표현을 촉진하는 교체행위라고 정의하였다.

종합하면 관계유지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하나 이상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①관계의 존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관계를 특정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관계를 만족스러운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④관계를 회복해야 된다(Dindia et al., 1993). 郭宇剛(2016)의 관점에 기반을 하여 본 연구에서 관계유지전략이란 선수와 코치의 교체에서 선수는 통상적이고 전략적인 갈등관리와 운동열의전략을 통해 코치-선수의 정서적 친밀성, 인지적 헌신, 행동적 상호보완성을 유지하여 관계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능동적인 전략을 의미한다.

2)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의 모형

스포츠 영역에서의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은 Rhind & Jowett(2012)의 COMPASS 모형을 바탕으로 정립된 개념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이란 코치(선수) 또는 선수(코치)가 성공적인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행동으로 정의된다(엄창량, 2021, 재인용).

Rhind & Jowett(2010)는 스포츠 영역에서 최초로 대인관계의 이론을 코치-선수관계에 적용해 연구를 실시하였고, 코치-선수관계 3+1Cs이론 모형을 바탕으로 코치 6명(4남 2녀)과 선수 6명(2남 4녀)을 일대일로 인터뷰를 통해 코치-선수관계유지전략의 구성 개념을 정립하여 COMPASS 모형을 제시하였다. COMPASS 모형은 7개의 요인(Conflict Management: 갈등관리, Openness: 개방성, Motivation: 동기유발, Positivity: 긍정성, Advice: 조언, Support: 지지, Social Network: 사회적 네트워크)으로 이루어져 있다.

갈등 관리(conflict management)는 코치와 선수가 식별, 토론, 해결 및 관찰하는 관계에서 잠재적인 충돌과 갈등을 말한다. 순행전략(proactive strategies)과 역행전략

(reactive strategies)이 포함되어 있으며 충족되지 않은 기대와 협력의 결과를 반영한다.

개방성(openness)은 코치와 선수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며, 비운동적 커뮤니케이션, 일반적인 잡담, 기타 의식 3가지 하위요인을 포함된다. 코치와 선수 간의 관계에서 코치는 비스포츠(non-sport)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 관계의 질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Rhind & Jowett, 2010).

동기유발(motivation)은 상대방과 함께 일하고 싶은 개인적인 동기를 밝히거나 계속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요인에는 노력(effort), 재미(fun), 능력(ability), 그리고 타인에 대한 동기유발(motivate to the other)등의 주제가 포함된다.

긍정성(positivity)은 교체하는 과정에서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적응성(adaptability), 공정성(fairness), 외부압력(external pressures) 3가지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졌다.

조언(advice)은 코치나 선수가 훈련, 성과, 생활고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는 스포츠 커뮤니케이션(sport communication), 보상적 피드백(reward feedback), 건설적 피드백(constructive feedback) 3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진다. 이렇듯 조언은 스포츠에 대한 전반적인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보상적 피드백과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코치-선수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다.

지지(support)는 코치/선수가 운동과 관련된 어려움(예: 나쁜 성적, 운동손상)이나 개인적 문제(가정 위기 등)를 극복하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원활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운동선수든 코치든 모두 상대방과의 관계를 질적으로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s)는 코치와 선수가 경기장, 훈련장 이외의 장소에서 공통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행사로 정의되었으며 교체와 공동 교체의 두 가지 하위요인을 포함한다. 위에서 언급한 7가지 유형의 관계유지전략의 이니셜을 기반으로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의 COMPASS 모형을 제안한다(그림 II-6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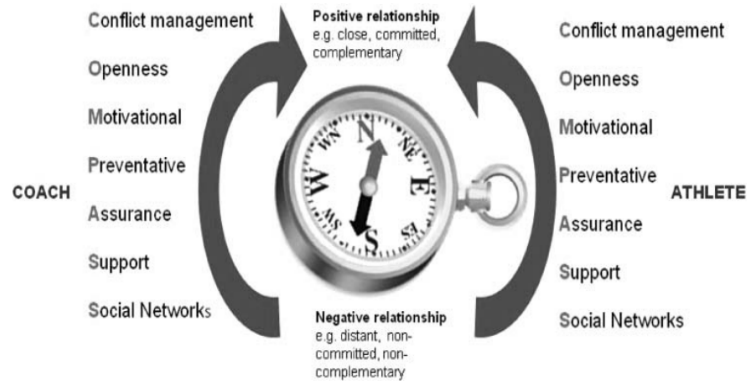


그림 II-6. COMPASS 모형 (Rhind & Jowett, 2010; 엄창량, 2021, 재인용)

그 후에 Rhind & Jowett(2012)는 스포츠 상황에서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 -COMPASS 모형(Rhind & Jowett, 2010)을 실질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COMPASS 모형을 기반으로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 척도(Coach-Athlete Relationship Maintenance Questionnaire CARM-Q)를 개발하였다(표 II-3 참고).

엄창량(2021)은 Rhind & Jowett(2012)에 의해 개발된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 척도(CARM-Q)를 동양권의 문화(한국, 중국)에 있는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비교 문화적 관점에 근거하여 중국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최종척도는 4요인 27문항(갈등관리 8문항, 동기성 8문항, 소통전략 6문항, 거리감 유지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표 II-3.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 척도(CARM-Q)

| 요인 | 문항내용 |
|-------------------------------|--|
| 갈등관리 (Conflict Management) | 1 나는 코치와 의견이 불일치해도 화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2 나는 코치와 의견이 불일치해도 참는다. 3 나는 코치와 의견이 불일치해도 코치를 이해한다. 4 나는 코치와 의견이 불일치해도 코치의 말을 경청한다. 5 나는 코치와 의견이 불일치한 것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를 치와 같이 협력한다. |
| 동기유발 (Motivational) | 6 나는 나의 코치와 함께 열심히 훈련하는 것에 의욕이 있음을 보여준다. 7 나는 선수로서 나의 능력을 보여준다. 8 나는 내가 목표성취에 의욕이 있음을 보여준다. 9 나는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10 나는 훈련과 경기에 대해서 열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

| | |
|-------------------------------|---|
| 예방 (Preventative) | 11 나는 내가 코치에게 기대하는 것을 직접 말한다. 12 나는 코치에게 우리 관계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말한다. 13 나는 나의 코치에게 나의 기대치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말한다. 14 나는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
| 지지 (Support) | 15 나는 나의 코치가 시련(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코치에게 도움을 준다. 16 나는 코치의 사생활에서의 일들을 배려한다. 17 나는 일들이 잘되고 있지 않을 때도 나의 코치를 지지해준다. |
| 사회적 네트워크 (Social Networks) | 18 나는 나의 코치가 서로 아는 지인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19 나는 나의 코치와 잘 어울린다. 20 나는 나의 코치와 훈련 외에도 함께 시간을 보낸다. 21 나는 나와 코치가 서로 아는 지인들과 우리 소속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
| 개방성 (Openness) | 22 나는 우리의 목표 설정을 할 때 내 의견을 말한다. 23 나는 나의 코치에게 개선적인 피드백을 준다. 24 나는 나의 코치에게 적절할 때 고마운 표현을 한다. 25 나는 나의 감정/기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표현을 한다. |
| 확신 (Assurance) | 26 나는 설령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도, 코치가 나를 의지(신뢰)할 수 있도록 보여준다. 27 나는 나의 코치에게 나를 믿을 수 있도록 보여준다. 28 나의 코치가 무엇이든지 나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보여준다. |
| ※출처: 엄창량(2021)의 연구에서 발췌 | |

또한 郭宇剛(2016)은 중국에 있는 715명의 프로선수와 415명의 코치를 대상으로 소통 전략, 동기유발, 지지, 갈등관리, 사교 네트워크, 보증성 등 6차원의 코치-선수관계 유지 전략모델을 개발하였으며 널리 활용되고 있다.

3)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 선행연구

2021년 11월 17일에는 여자 골프 세계 1위 넬리 코다(미국)가 스윙 코치를 바꾼 사실을 털어냈다. 주니어 시절부터 함께 했던 데이비드 웰런에서 제이미 멀리건으로 바꿨다. 그 이유는 기존 코치와 관계유지 측면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사건 중에서 코치-선수관계 유지에 대한 노력의 중요성을 볼 수 있다.

스포츠 분야에서 코치는 자주 효과적인 의사소통, 긍정적인 피드백, 삶에 대한 배려,

목표 설정 등 일련의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선수-코치 관계의 질을 향상시켜 선수의 만족도를 높이고 불안과 우울을 줄이며, 훈련의 열정을 높이고 경기 결과를 향상시킨다. Gould et al.(2007)은 미국 축구 코치 10명을 인터뷰했는데, 이들 10명의 코치는 모두 최고의 개인 능력상을 수상했고, 인터뷰에서는 소통의 중요성(예: 선수와 개방적인 소통 방식, 명확한 기대, 선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들 코치는 선수들에 대한 벌칙과 비판을 피하고 배려와 신뢰, 존경심을 보여줬다. 이러한 행동은 긍정성, 개방성 및 보증성의 세 가지 차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아울러 코치의 코칭행동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서도 지지와 격려를 제공하는 코치가 선수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 자율적 지지 코칭행동은 자신감이 부족한 운동선수에게 특히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보고하였다(Coatsworth & Conroy, 2006). 따라서 스포츠 분야에서 관계유지전략의 활용은 긍정적인 성취결과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Trzaskoma-Bicsérdy, Bognár, Révész, & Gécz(2007)은 12명의 헝가리 코치와 운동선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지지행동이 긍정적인 코치-선수 관계 유지에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Rhind & Jowett(2011)는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과 코치-선수관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개방성 전략과 사회적 네트워크 전략은 코치-선수관계에서의 친밀성과 관련이 있으며, 동기유발 전략과 지지전략은 코치-선수관계에서의 헌신과 관련이 있으며, 예방 전략은 코치-선수관계에서의 상보성과 상관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최헌혁, 정구인(2020)은 중·고등학교 운동선수 380명의 선수를 대상으로 운동선수가 지각한 공감, 코치-선수관계, 그리고 운동선수 탈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선수가 코치와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으면 관계유지전략을 통해 높은 수준의 관계를 구축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고양함으로써 선수 탈진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Bateman & Jones(2019)는 코치-선수관계를 프로축구 분석가(analyst)들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프로축구 분석가 6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연역적 내용분석과 귀납적 분석내용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COMPASS 모델의 7개의 모든 요인이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을 밝혀냈고, 또한 개방적인 관계가 코치-선수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통제적 코칭행동이 코치-선수관계 유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Davis et al.(2019)의 연구에서는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갈등관리, 동기유발, 지지), 코치-선수관계와 운동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관계유지전략이 코치-선수관계와 운동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정(+의 매개효과가 존재한 것을 확인하였고, 의사소통전략이 코치-선수관계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신녀, 정태겸, 전정우(2015)는 고등학교 태권도선수의 지각된 코치-선수관계 유지가 기본적 심리욕구 및 운동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코치-선수관계 유지는 기본적 심리욕구를 정(+적으로 예측하고, 운동스트레스를 부(-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an, Chen, Chen, Li, Guo, Shi, Yang, Yang, Yang, Ding & Shi(2022)는 256명의 청소년 운동선수에 대한 온라인 조사를 통해 관계유지전략과 운동선수의 탈진 사이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선수의 관계유지전략은 탈진(burn-out)을 부적적으로 예측하였고, 3개의 다중매개경로, 즉, 코치-선수관계, 기본적 심리욕구만족, 계열적 경로의 순차적인 매개효과를 지지하였다.

郭宇剛(2016)은 코치-선수들의 관계유지전략과 코치-선수관계의 질 사이의 상관관계를 탐구했다. 그 결과, 첫째 선수들은 동기유발 전략을 사용하여 코치-선수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지지전략과 사교 네트워크 전략을 덜 사용하였다. 둘째, 남녀 운동선수가 사용하는 관계유지전략도 다르게 나타났다. 남성 운동선수는 사교 네트워크 전략, 지지 전략 및 보증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여성 운동선수는 갈등관리 전략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 1급 및 2급 선수와 비교하여 맹장급(健將級: 중화 인민 공화국 국가에서 수여하는 최우수 운동선수의 칭호)의 선수는 코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동기유발 및 지지전략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코치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짧은 선수보다는 코치와 3~5년 정도 지내는 선수가 사교 네트워크 전략을 더 선호하였다. 다섯째, 관계유지전략은 선수가 감지하는 코치-선수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선수 관계유지전략의 갈등관리, 동기유발 및 보증전략은 코치-선수관계의 질을 긍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국제 학술연구 영역에서는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에 대한 연구가 늦게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에 많은 학자들이 코치 관점이나 선수 관점에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관련 연구 성과는

부족한 편이다. 더구나 중국은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매우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상술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중국운동선수 관점에서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6. 선행연구 고찰

1) 코칭행동과 운동행동의도의 관계

장보경, 김승재(2019)는 대학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운동선수의 지각된 코칭행동, 정서반응, 정서지능 및 수행 간의 구조적 관계를 연구한 결과, 코치의 행동이 선수들의 수행을 위한 노력과 지속성에 영향을 주지만, 코치가 선수들의 자율성을 지지할수록 선수들은 긍정적인 정서가 촉진되어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적절히 평가하고 조절함으로써 스포츠 수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그림 II-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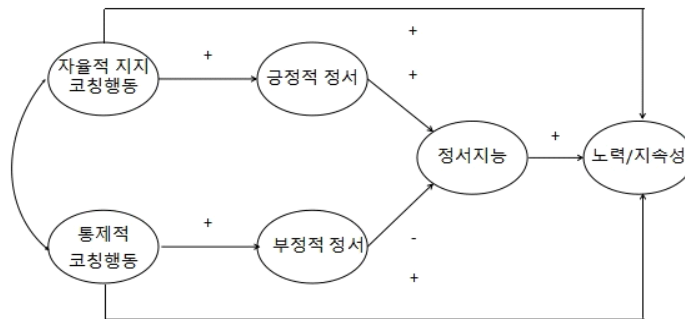


그림 II-7. 코칭행동, 정서반응, 정서지능 및 수행 간의 구조적 관계(장보경, 김승재, 2019)

정구인, 임동기, 최헌혁(2019)은 사회심리이론을 바탕으로 경로분석을 통한 코칭행동, 코치-선수 간 상호작용, 팀 분위기, 운동선수 탈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자율성 지지 코칭행동은 코치-선수 간 상호작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통제적 코칭행동은 코치-선수 간 상호작용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코치-선수 간 상호작용은 팀 분위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팀 분위기는 운동선수 탈진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코치-선수 간 상호작용은 운동선수 탈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코치-선수 간 상호작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긍정적으로 팀 분위기가 유지된다면 여자 프로농구 선수들의 탈진을 낮추거나 예방하는데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그림 II-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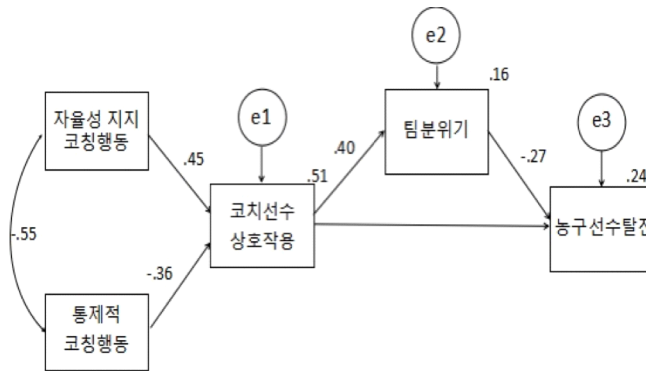


그림 II-8. 코칭행동, 코치-선수 간 상호작용, 팀 분위기, 운동선수 탈진의 관계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정구인, 임동기, 최현혁, 2019)

김순영, 박상혁(2015)은 코칭행동에 따른 자기-조절동기 과정과 스포츠 수행의 인과모형을 검증하는 연구에서 이론적으로 제공되어왔던 수행과 동기의 관계가 코칭행동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코치의 자율적 코칭행동이 선수들의 수행을 극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경험적 증거를 제공하였다(그림 II-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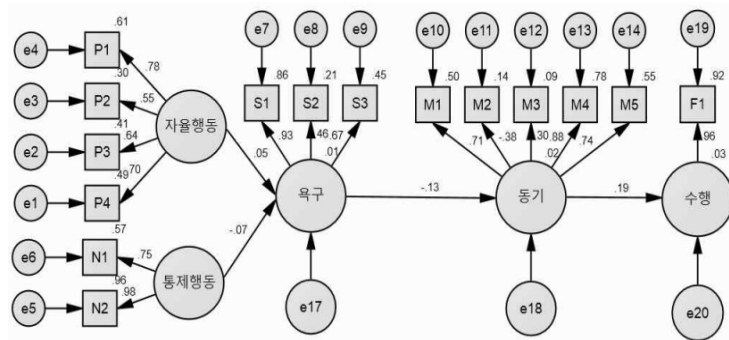


그림 II-9. 코칭행동에 따른 자기-조절동기 과정과 스포츠 수행의 인과모형 (김순영, 박상혁, 2015)

한연숙, 허진영(2018b)의 연구에서는 체육고등학교 학생 365명을 대상으로 유능감에 따른 코칭 스타일과 중도탈락의도와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자율적 지지가 유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제적 코칭이 유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능감은 중도탈락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통제적 코칭이 중도탈락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I-10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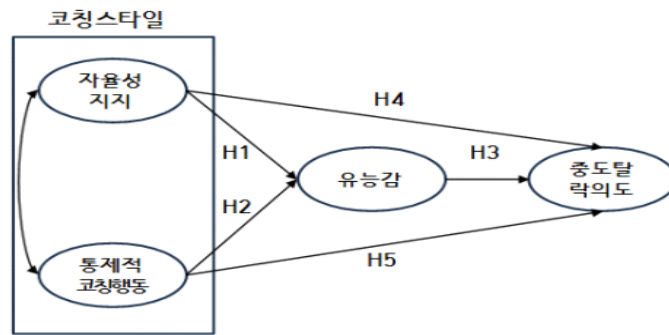


그림 II-10. 코칭 스타일과 유능감 및 중도탈락의도의 구조적 관계(한연숙, 허진영, 2018b)

2) 코칭행동과 코치-선수관계의 관계

남광우(2016)는 대학 축구선수를 대상으로 선수가 지각한 코치의 코칭행동이 집단응집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코치-선수관계의 매개효과를 구명하는 연구에서 코칭행동은 코치-선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 축구선수가 지각한 코치-선수관계는 집단응집력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축구선수가 지각한 코치의 코칭행동이 집단응집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코치-선수관계는 완전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高圓媛 李垚, 曹大偉, 曹連衆(2021)은 운동 훈련 상황에서 코칭행동이 운동선수의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코치-선수관계의 매개효과를 구명하는 연구에서 코치리더십 중의 코칭행동, 민주행동, 사회적 지원행동, 포상행동은 운동선수의 운동 몰입과 코치-선수관계 변수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통제적 행동은 운동선수의 운동 몰입과 코치-선수관계에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코치-선수관계는 훈련지도행동과 사회적 지원행동이 운동선수의 운동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였으며, 민주행동, 통제적 행동, 포상행동이 운동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완전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Choi, Jeong, & Kim(2020)은 코칭행동과 운동선수의 탈진의 인과관계의 관점에서 의사소통과 코치-선수관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자율적 지지 코칭행동은 코치-선수의 관계(긍정적)와 선수의 탈진(부정적)과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 통제적 코칭행동은 선수의 탈진(긍정적)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치-선수관계는 운동선수의 탈진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그림 II-1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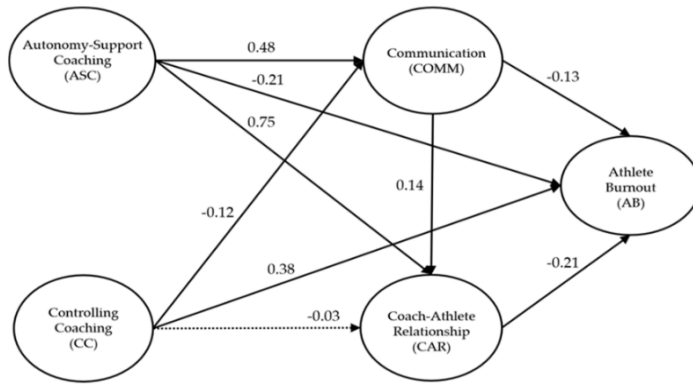


그림 II-11. 코칭행동과 운동선수의 탈진의 관계: 소통과 코치-선수관계의 매개효과 (Choi, Jeong, & Kim(2020))

3) 코치-선수관계와 운동 행동의도의 관계

Wekesser, Harris, Langdon, & Wilson(2021)은 코치의 행동과 젊은 운동선수의 스포츠 참여의도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코치-선수관계의 매개효과를 구명하는 연구에서 자율성 지지 코칭행동과 코치-선수관계의 질 사이에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적 코칭행동과 코치-선수관계의 질 사이에는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자율성 지지 행동은 코치-선수관계의 질에 정적인 영향을 통해서 젊은 선수들의 지속참여의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그림 II-1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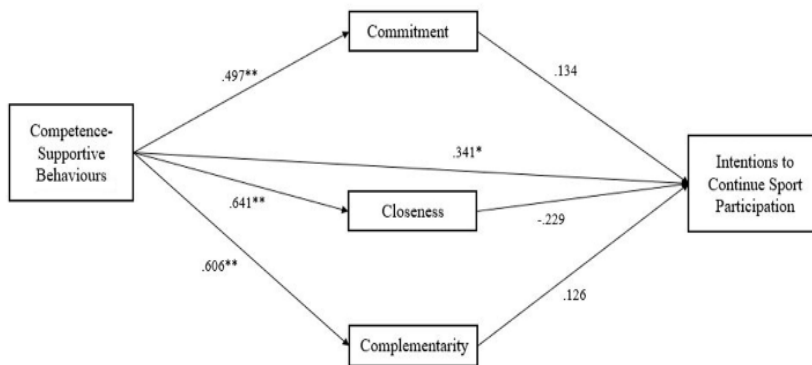


그림 II-12. 코치가 청소년 선수의 체육활동 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코치-선수관계의 매개효과 (Wekesser, Harris, Langdon, & Wilson, 2021)

홍성택, 조선령(2020)은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코칭행동이 코치-선수관계 및 운동선수 탈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자율적 코칭은 코치-선수관계를 정(+)적으로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통제적 코칭행동은 운동선수 탈진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코치-선수관계는 운동선수 탈진을 부(-)적으로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코치-선수관계는 자율적 코칭행동과 운동선수 탈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제적 코칭행동과 운동선수 탈진의 관계에서는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코칭행동은 코치-선수관계를 통해서 운동선수 탈진에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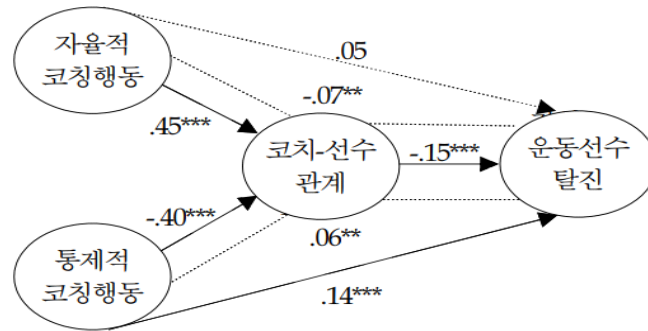


그림 II-13. 코칭행동과 운동선수 탈진의 관계에서 코치-선수관계의 매개역할(홍성택, 조선령, 2020)

4) 코치-선수관계와 관계유지전략의 관계

허진영, 최현혁(2017)은 프로축구 선수 212명과 코치 22명을 대상으로 코칭행동과 팀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의 매개효과를 구명하는 연구에서 자율적 코칭행동은 코치-선수관계 유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통제적 코칭행동은 코치-선수관계 유지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이 두 요인에서 간접적인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II-14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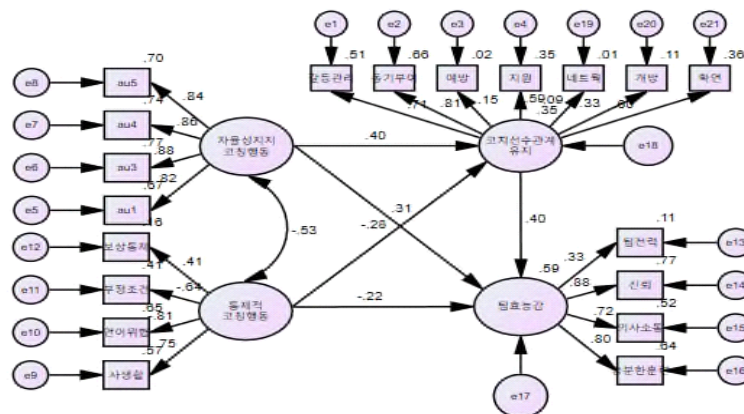


그림 II-14. 코칭행동과 팀 효능감의 관계에서 코치-선수관계 유지의 역할 검증(허진영, 최현혁, 2017)

Rhind & Jowett(2011)는 관계유지전략의 활용과 코치-선수관계의 질 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개방성과 사교 네트워크 전략은 친밀성과 상관이 있고 인센티브 및 지지 전략의 활용은 약속과 관련이 있으며, 보완성은 예방 전략의 사용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갈등관리와 보충은 선수보다는 코치에게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임정숙, 전주상(2021)은 준정부조직 구성원들의 이직의도 감소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갈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갈등관리전략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조직 구성원들의 갈등은 이직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갈등관리전략 중 통합 갈등대응전략이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Fan et al.(2022)은 256명의 청소년 운동선수에 대한 온라인 조사를 통해 관계유지전략과 운동선수의 탈진 사이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운동선수의 관계유지전략은 운동선수의 탈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직접적인 영향 외에도 코치-선수관계와 기본적 심리욕구만족이 다중매개효과를 입증하였다(그림 II-15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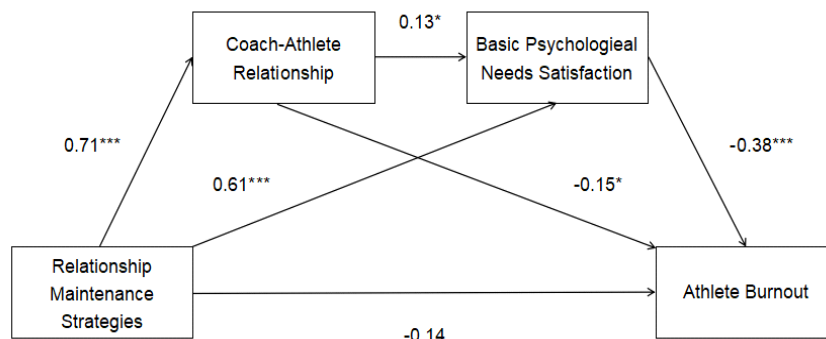


그림 II-15. 관계유지전략과 운동선수의 탈진의 관계
(Fan, et al., 20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치어리딩 선수들이 지각한 코칭 행동, 코치-선수관계, 선수의 운동행동의도 간의 관계 메커니즘을 검증하고 코치-선수 관계 유지전략이 이러한 메커니즘에서 어떠한 조절효과를 유발하는지를 순차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 1

1. 문제제기

1) 연구목적

엘리트스포츠에 참가하는 학생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면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즐겁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소망하는 일은 코치들의 숙명적인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운동선수들은 각종 경기에서 우승을 목표로 반복되는 강도 높은 훈련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선수들은 정신적 긴장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김덕진, 2013). 특히 대학생 운동선수는 학습, 경기, 취업 등과 같은 많은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야 하기 때문에 중도에 운동을 포기하고 싶은 의도를 쉽게 가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대학생 선수들이 장기적인 스트레스 속에서도 운동에 대한 열정을 유지하고 훈련이나 경기 등 외부 환경 요인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면서 선수 생활을 연장할 수 있을지는 코치들과 스포츠심리학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는 중요한 과제이다.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ur: TPB)에 의하면 의도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 요인을 포착하며(Wekesser et al., 2021), 동기는 개인의 활동을 촉진하는 심리적 동인 또는 내부 동력임으로 일반적으로 운동 의도는 선수의 운동 중단 행동의 발생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으로 간주하여왔다(李羣力, 2006). 선행연구에 따르면 코치의 코칭행동은 선수의 심리적 경험과 운동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운동선수가 훈련과 경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주요 환경적 동기 중 하나이며, 운동선수의 행동, 만족도 및 인간관계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소이다(Vella, Oades, & Crowe, 2010). 또한, 자기결정이론도 내재적 동기유발을 통해 개인의 몰입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개인의 활동 참여 행동을 자극할 수 있으며, 동시에 개인도 외부적인 동기의 영향을 받아 외적 조절 또는 '내면화' 과정을 거쳐 개인이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더 나은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즉, 지도자가 어떠한 코칭행동 유형으로 지도를 하느냐는 선수들의 동기, 만족, 경기력, 인

간관계, 그리고 운동지속과 포기의도를 결정할 수 있다(이양주, 2022; Sarrazin et al., 2007; Vella et al., 2010).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칭행동은 선수의 운동행동의도 형성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적인 관계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코치 행동의 구체적인 과정이나 내부적으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코칭행동과 운동지속의도 및 포기의도 간의 관계에서 어떤 변수가 매개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코치-선수관계(coach-athlete relationship)가 코칭행동과 운동행동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상정된다.

Iso-Ahola(1995)는 운동선수의 운동행동이 개인 내적 요인(대응방법 등)과 대인간 요인(interpersonal factor, 예: 코치와 운동선수의 관계 등)의 공동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코치와 선수의 일상적인 훈련의 상호작용 과정 중에서 서로 강한 대인간 상호작용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형성된 이원적 관계는 선수들의 경기력, 훈련 과정, 개인생활 등 다양한 방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자기결정이론에 따르면, 관계성 욕구는 인간의 3대 기본적 심리욕구 중 하나이고 관계욕구만족은 자기결정동기의 생성과 유지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운동선수의 운동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려면 위의 두 가지 요소가 모두 필수적이다. 그러나 과거 스포츠심리학 연구자들은 인격, 동기, 불안, 주의 등 개인의 내적 요인을 연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 대인간 관계요인이 운동선수의 운동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등한시 해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코칭행동이 선수의 운동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운동 종목별로 심도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高圓媛 等, 2021). 그러나 최근 문헌에 보고된 관련연구(남광우, 2016; 허진영 등, 2017; 최현혁, 2019)는 대부분 올림픽 종목의 코치나 선수(축구, 야구, 기타 종합종목 등)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은 다양성이 부족하고 다양한 스포츠 종목 문화의 배경 요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 치어리딩은 팀워크를 위주로 하는 단체 종목으로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최고의 단체 명예감, 팀워크, 봉사정신, 대승적 의식을 추구하는 것이다(김보라, 2014). 이는 팀 구성원 간의 완성된 동작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호 협력과 높은 일관성이 강조되고 팀 구성원의 다양한 능력 발휘가 중시된다. 아울러 각 팀 구성원이 팀 협력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위치,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팀 성공과 위험 공유 그리

고 이익 공유의 집단의식을 형성한다(徐學偉, 2014). 이 때문에 다른 스포츠 종목에 비해 매우 뚜렷한 스포츠 문화와 독특한 종목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선행 문헌을 고찰해 보았을 때 치어리딩 종목의 코치와 선수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치어리딩 선수가 지각하는 코칭행동과 결과 변인 간의 관계에서 코치-선수관계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문헌에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연구 1의 목적은 중국 대학생 치어리딩 선수들을 대상으로 치어리딩 선수가 지각한 코칭행동과 치어리딩 선수의 운동지속의도 및 운동포기의도를 살펴보고 이들의 관계에서 코치-선수관계 요인이 매개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

2)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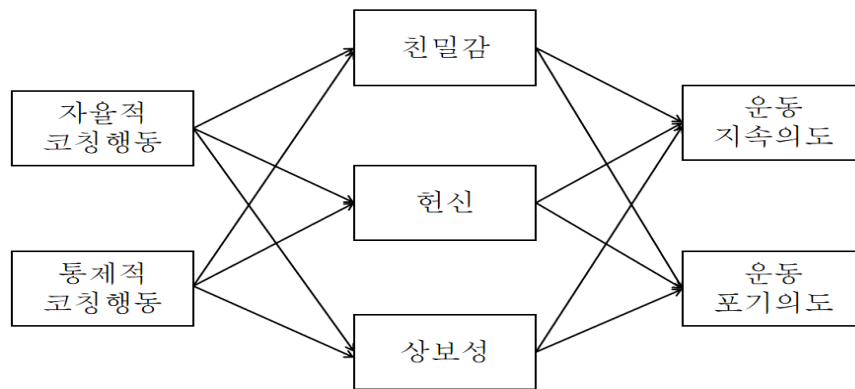


그림 Ⅲ-1. 연구 1의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Ⅲ-1>과 같이 설정하였다. 이 모형에서 독립변수인 코칭행동은 자율적 코칭행동, 통제적 코칭행동의 2개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매개변수인 코치-선수관계는 친밀감, 헌신, 상보성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종속변수는 단일요인으로 구성된 운동지속의도와 운동포기의도로 구분된다.

3) 연구가설

연구의 목적과 설정된 모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자율적 코칭행동과 운동행동의도(지속의도, 포기의도)의 관계에서 코치-선수

관계는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1-1. 자율적 코칭행동과 운동지속의도 간의 관계에서 친밀성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자율적 코칭행동과 운동포기의도 간의 관계에서 친밀성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1-3. 자율적 코칭행동과 운동지속의도 간의 관계에서 헌신성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1-4. 자율적 코칭행동과 운동포기의도 간의 관계에서 헌신성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1-5. 자율적 코칭행동과 운동지속의도 간의 관계에서 상보성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1-6. 자율적 코칭행동과 운동포기의도 간의 관계에서 상보성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통제적 코칭행동과 운동행동의도(지속의도, 포기의도)의 관계에서 코치-선수 관계는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2-1. 통제적 코칭행동과 운동지속의도 간의 관계에서 친밀성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 통제적 코칭행동과 운동포기의도 간의 관계에서 친밀성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2-3. 통제적 코칭행동과 운동지속의도 간의 관계에서 헌신성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2-4. 통제적 코칭행동과 운동포기의도 간의 관계에서 헌신성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2-5. 통제적 코칭행동과 운동지속의도 간의 관계에서 상보성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2-6. 통제적 코칭행동과 운동포기의도 간의 관계에서 상보성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 1의 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대상자는 2023년 현재 중국 국공립 대학교(내몽골 자치구, 지린성, 헤이룽장성, 랴오닝성, 베이징직할시)에 재학 중인 치어리딩 선수 468이었다. <그림 III-2>에서와 같이 연구대상자의 지역분포도를 제시하였다.



그림 III-2. 연구 1의 연구대상 지역분포

이들에 대한 표집방법은 비확률적 표집방식인 유목적 표집법(purposive sampling)을 이용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446부 가운데 응답내용이 반응고정화 현상을 보이는 응답과 불성실한 자료 6부를 제외하여, 최종분석에는 440명의 자료를 최종 유효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다음의 <표 III-1>와 같다.

표 III-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항목 | 구분 | 사례수(%) | 계 |
|------|-------------|-----------|--------------|
| 성별 | 남자 | 139(31.6) | 440 (100) |
| | 여자 | 301(68.4) | |
| 학년 | 1학년 | 76(17.3) | 440 (100) |
| | 2학년 | 153(34.7) | |
| | 3학년 | 109(24.8) | |
| | 4학년 | 102(23.2) | |
| 종목별 | 스텝트 | 178(40.5) | 440 (100) |
| | 댄스 | 262(59.5) | |
| 운동경력 | 1년이하 | 143(32.4) | 440 (100) |
| | 1년이상 ~ 2년미만 | 124(28.2) | |
| | 2년이상 ~ 3년미만 | 72(16.4) | |
| | 3년이상 ~ 4년미만 | 66(15.0) | |
| | 4년이상 | 35(8.0) | |

2) 측정도구

이 연구의 조사도구는 설문지이며,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1의 자료를 측정하기 위해 코칭행동, 코치-선수관계, 운동지속의도, 운동포기의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구조를 추출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χ^2 검증을 기본적으로 평가하지만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표본크기와는 비교적 독립적이고 모형의 간명성을 나타내주는 RMSEA, IFI, TLI, CFI 등의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여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이러한 적합도 지수들은 Q값이 3 이하(Kline, 2005), IFI, TLI, CFI와 같은 상대적 지수들의 값은 .90 이상이 되어야 양호하며, RMSEA값은 .05 이하이면 매우 우수하고, .08 이하이면 양호, .10 이하이면 수용이 가능하다는 준거를 가지고 평가하였다(우종필, 2012; 홍세희, 2000; Hu & Bentler, 1999).

(1) 코칭행동

선수가 지각한 코칭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楊勇(2008)이 개발한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율적 코칭행동 5문항, 통제적 코칭행동 5문항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범례로 “나의 코치는 선수들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 라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평정척도를 이용하여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먼저 측정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구조를 추출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Varimax 직교회전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10문항으로 구성된 2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KMO 측도=.892, Bartlett의 구형성 점검, Approximate $\chi^2=2124.635$, $df=45$, $p<.000$). Cronbach's Alpha 값으로 평가한 신뢰도 계수는 자율적 코칭행동 .874, 통제적 코칭행동 .870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χ^2 값을 제외하고 다른 적합도 지수들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64.981$, $df=34$, $p<.001$, $Q=1.911$, IFI=.985, TLI=.980, CFI=.985, RMSEA=.046).

표 III-2. 코칭행동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 문항 | 요인적재치 | | 공통분 | M | SD | 신뢰도 |
|--|-------------|-------------|------|-------|-------|------|
| | 자율적 | 통제적 | | | | |
| 5. 나의 코치는 중요한 훈련이나 경기 내용에 대해 나와 팀 동료선수들의 의견을 경청한다. | .869 | -.112 | .768 | 3.843 | 1.131 | |
| 3. 나의 코치는 나와 팀 동료선수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 .804 | -.195 | .685 | 3.715 | 1.128 | |
| 1. 나의 코치는 나와 팀 동료선수들에게 구체적인 경기 전략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 .793 | -.183 | .663 | 3.763 | 1.201 | .874 |
| 9. 나의 코치는 중대한 사건을 결정하려고 할 때 나와 팀 동료선수들의 의견을 듣는다. | .774 | -.176 | .630 | 3.786 | 1.121 | |
| 7. 나의 코치는 훈련 방법에 대해 나와 팀 동료선수들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격려한다. | .736 | -.229 | .594 | 3.866 | 1.154 | |
| 4. 나의 코치는 자신이 말할 때는 나와 팀 동료선수들이 의견을 제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 -.144 | .816 | .686 | 2.098 | 1.066 | |
| 2. 나의 코치는 나와 팀 동료선수들에게 냉담하고 소원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 -.181 | .794 | .663 | 1.916 | 1.071 | |
| 10. 나의 코치는 훈련이나 경기지도를 할 때 나와 팀 동료선수들을 자신의 코칭방식을 따르도록 강요한다. | -.167 | .789 | .650 | 2.121 | 1.103 | .870 |
| 8. 나의 코치는 항상 명령조로 훈련과 경기를 지도한다. | -.183 | .779 | .640 | 2.152 | 1.070 | |
| 6. 나의 코치는 나와 팀 동료선수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요구한다. | -.210 | .778 | .649 | 2.161 | 1.100 | |
| 고유치 | 3.331 | 3.298 | | | | |
| 공통분산(%) | 33.309 | 32.976 | | | | |
| 누적분산(%) | 33.309 | 66.285 | | | | |

KMO=.892

Bartlett $\chi^2=2124.635$, $df=45$, $p<.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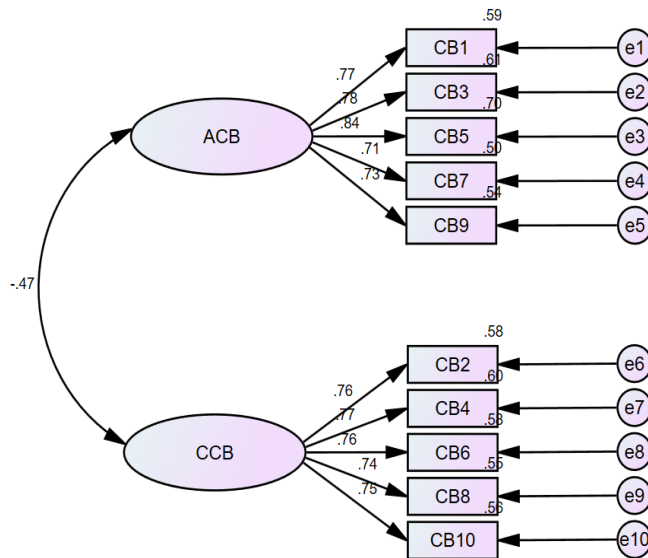


그림 III-3. 코칭행동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ACB: Autonomous Coaching Behavior CCB: Controlled Coaching Behavior

(2) 운동지속의도

치어리딩 선수의 운동지속의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Cobin, Welk, Lindsey, & Cobin(1994)이 개발하고 서효민(2020)의 연구에서 재수정하여 사용된 문항을 치어리딩 선수들의 상황에 맞게 자구 수정을 거쳐 사용하였다. 수정된 척도는 지속의도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나는 치어리딩 활동을 지속해서 하길 원한다.” 라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평정척도를 이용하여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Varimax 직교회전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3개의 문항을 제거하고 5문항으로 구성된 단일 요인을 추출하였다(KMO 측도=.885, Bartlett의 구형성 점검, Approximate $\chi^2=1105.026$, $df=10$, $p<.000$). Cronbach's α 값으로 평가한 신뢰도 계수는 .885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적합도 지수들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4.190$, $df=5$, $p>.522$, Q=.838, IFI=1.001, TLI=1.001, CFI=1.000, RMSEA=.001).

표 III-3. 운동지속의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 문항 | 요인 적재치 | 공통분 | M | SD | 신뢰도 |
|---|--------|------|-------|------|------|
| 2. 나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치어리딩 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한다. | .852 | .721 | 3.818 | .899 | .885 |
| 3. 나는 치어리딩 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싶다. | .832 | .691 | 3.718 | .868 | |
| 5. 나는 치어리딩 활동, 대회 및 모임에 지속해서 참여하길 원한다. | .827 | .683 | 3.947 | .890 | |
| 1. 나는 치어리딩 운동을 계속 하길 원한다. | .825 | .681 | 3.977 | .930 | |
| 4. 나는 치어리딩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804 | .647 | 3.848 | .891 | |
| 고유치 | 3.430 | | | | |
| 공통분산(%) | 68.597 | | | | |
| 누적분산(%) | 68.597 | | | | |

KMO=.885
Bartlett $\chi^2=1105.026$, $df=10$, $p<.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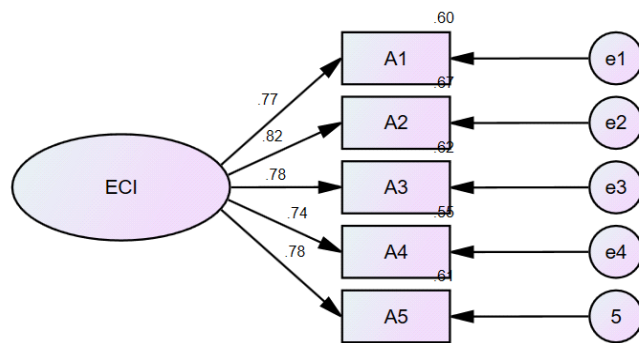


그림 III-4. 운동지속의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ECI: Exercise Continuance Intention

(3) 운동포기의도

치어리딩 선수의 운동포기의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성창훈, 홍성철, 성한기(2001)의 스포츠 탈퇴동기 결과를 토대로 성창훈(2002)이 개발한 척도를 오준석(2016)의 연구에서 재수정하여 사용된 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단일요인 5문항이며, 구체적으로 “나는 운동으로는 장래가 불투명해서 그만두고 싶다.” 라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평정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Varimax 직교회전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1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KMO 측도=.883, Bartlett의 구형성 점검, Approximate $\chi^2=1048.062$, $df=10$, $p<.000$). Cronbach’s α 값으로 평가한 신뢰도 계수는 .879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적합도 지표들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1.539$, $df=5$, $p>.909$, Q=.308, IFI=1.003, TLI=1.007, CFI=1.000, RMSEA=.001).

표 III-4. 운동포기의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 문항 | 요인 적재치 | 공통분 | M | SD | 신뢰도 |
|---------------------------------------|--------|------|-------|-------|------|
| 5. 나는 치어리딩보다 다른 운동에 더 관심이 많다. | .849 | .720 | 2.125 | 1.074 | .879 |
| 2. 나는 치어리딩 운동으로는 장래가 불투명해서 그만두고 싶다. | .833 | .693 | 2.102 | 1.072 | |
| 3. 나는 치어리딩 운동으로 성공을 못할 것 같아서 그만두고 싶다. | .817 | .668 | 2.097 | 1.070 | |
| 4. 나는 치어리딩 운동에 흥미를 잃어서 그만두고 싶다. | .814 | .663 | 1.986 | 1.041 | |
| 1. 나는 치어리딩 운동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 | .792 | .627 | 2.052 | 1.0 | |
| 고유치 | 3.371 | | | | |
| 공통분산(%) | 67.423 | | | | |
| 누적분산(%) | 67.423 | | | | |

KMO=.883, Bartlett $X^2=1048.062$, $df=10$, $p<.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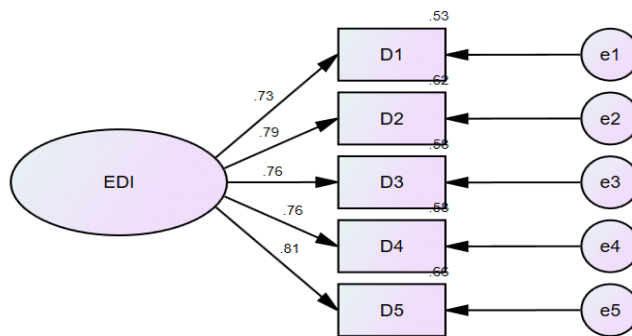


그림 III-5. 운동포기의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EDI: Exercise Discontinuance Intention

(4) 코치-선수관계

치어리딩 선수들이 지각한 코치-선수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Jowett et al.(2004)이 개발한 코치-선수관계 질문지(Coach-Athlete Relationship Questionnaire: CART-Q)를 중국어판으로 번역하고 심리측정학적 특성을 보완한 왕예, 김덕진, 양명환(2023)의 질문지(CCART-Q)를 사용하였다. 번역된 질문지는 Jowett et al.(2004)이 제안한 바와 같이 코치와 선수의 이원일위 관계(dyad relation)를 분석단위로 측정하여야 하지만 코치와 지도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대학생 운동선수를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운동선수의 직접 시각을 연구 도구로 선정하였다. 이 척도는 친밀감 4문항, 헌신 3문항, 상보성 4문항 총 11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나와 코치의 관계는 비교적 친밀하다.” 라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의 7점 Likert 평정척도를 이용하여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Varimax 직교회전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11문항으로 구성된 3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KMO 측도=.843, Bartlett의 구형성 점검, Approximate $\chi^2=2467.641$, $df=55$, $p<.000$). Cronbach’s α 값으로 평가한 신뢰도 계수는 친밀감 .863, 헌신 .879, 상보성 .856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적합도 지수들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92.070$, $df=41$, $p<.000$, Q=2.246, IFI=.979, TLI=.972, CFI=.979, RMSEA=.053).

표 III-5. 코치-선수관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 문항 | 요인적재치 | | | 공통분 | M | SD | 신뢰도 |
|---|-------------|-------------|-------------|------|------|------|------|
| | 상보성 | 친밀감 | 헌신 | | | | |
| 8. 나는 나의 코치에게 지도받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 | .827 | .134 | .122 | .717 | 5.02 | 1.53 | |
| 3. 코치가 나를 지도해 줄 때 나는 적극적으로 응대한다. | .824 | .073 | .137 | .703 | 5.07 | 1.59 | |
| 10. 코치가 나를 지도해 줄 때 나는 최선을 다한다. | .823 | .174 | .031 | .708 | 5.23 | 1.62 | .856 |
| 4. 코치가 나를 지도해 줄 때 나는 매우 겸허하고 우호적인 행동한다. | .809 | .807 | .089 | .670 | 5.21 | 1.58 | |
| 5. 나는 나의 코치를 신뢰한다. | .158 | .868 | .131 | .795 | 5.04 | 1.83 | |
| 11. 나는 나의 코치가 내 경기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노력에 감사드린다. | -.054 | .853 | .105 | .741 | 5.10 | 1.84 | .863 |
| 6. 나는 나의 코치를 존경한다. | .141 | .805 | .148 | .690 | 5.18 | 1.81 | |
| 1. 나는 나의 코치를 좋아한다. | .335 | .747 | .154 | .694 | 4.96 | 1.84 | |
| 7. 나는 코치와 함께 있을 때 나의 운동생활이 희망으로 가득찬 것을 느낀다. | .127 | .133 | .901 | .845 | 5.00 | 1.79 | |
| 2. 나는 나의 코치와 가깝다고 느낀다. | .115 | .161 | .871 | .797 | 4.62 | 1.65 | .879 |
| 9. 나는 나의 코치를 충실하며 코치와 오래도록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 .088 | .150 | .864 | .777 | 5.06 | 1.82 | |
| 고유치 | 2.892 | 2.814 | 2.433 | | | | |
| 공통분산(%) | 26.292 | 25.579 | 22.116 | | | | |
| 누적분산(%) | 26.292 | 51.870 | 73.986 | | | | |
| KMO=.843, Bartlett $\chi^2=2467.641$, $df=55$, $p<.000$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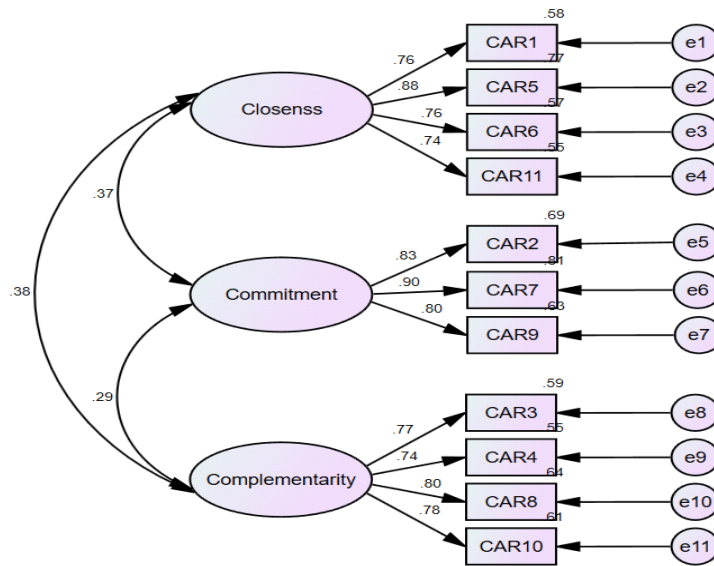


그림 III-6. 코치-선수관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3) 연구절차

연구 1의 자료 수집은 2023년 2월 한 달 동안 중국 내몽골자치구, 지린성, 헤이룽장성, 랴오닝성, 베이징직할시 지역 20곳의 국공립 대학교에 재학 중인 치어리딩 선수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자가 조사를 실시하기 전, 각 대학교의 치어리딩 전공 교수 및 코치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사전 협조를 구해서 질문지를 배포한 후 응답 요령 등의 부차적인 설명과 성실한 응답을 해줄 것을 부탁한 뒤, 솔직한 응답을 얻기 위하여 치어리딩 선수들에게 응답 요령과 비밀보장에 대해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한 후, 최대한 진솔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독려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지역과 범위가 넓게 분포하고, 게다가 코로나 질병까지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설문지를 배부하는 것이 어려워서 본 연구 설문조사는 중국어 Wechat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설문지조사가 이루어졌다. 참여자들은 자기평가기입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고 완성된 설문지는 즉시 컴퓨터에 자동 저장되었다. 배부된 설문지는 468부였으나 회수된 설문지는 446부였고 응답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6부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440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분석

연구 1 최종적으로 선정된 자료들은 SPSS 26.0과 Amos 24.0, SPSS PROCESS Macro

(V.4.2)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치어리딩 선수들의 일반적 특성과 자료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으며, 요인구조와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Pearson's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코칭행동(자율적 코칭행동, 통제적 코칭행동)과 운동행동의도(지속의도, 포기의도)의 관계에서 코치-선수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13)의 SPSS PROCESS Macro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76개의 모형 중 4번째 모형을 적용하였다.

다섯째, 모든 분석에서 유의 수준은 $\alpha=.05$ 로 설정하였다.

3. 연구 결과

1) 전체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상관관계 분석 결과

회귀분석을 검증하기에 앞서 먼저 추출된 전체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량과 분포특성을 살펴보았다. <표 III-6>은 측정변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최소값, 최대값, 중앙값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I-6. 측정변수들의 기술통계량과 분포특성

| 측정변인 | 최소값 | 최대값 | M | SD | 왜도 | 첨도 |
|----------|------|------|------|-------|-------|-------|
| 자율적 코칭행동 | 1.20 | 5.00 | 3.79 | .936 | -.711 | -.374 |
| 통제적 코칭행동 | 1.00 | 4.20 | 2.08 | .878 | .519 | -.839 |
| 친밀감 | 1.50 | 7.00 | 5.07 | 1.544 | -.541 | -.958 |
| 헌신 | 1.00 | 7.00 | 4.89 | 1.577 | -.587 | -.852 |
| 상보성 | 2.00 | 7.00 | 5.13 | 1.319 | -.510 | -.908 |
| 운동지속의도 | 2.00 | 5.00 | 3.86 | .741 | -.363 | -.794 |
| 운동포기의도 | 1.00 | 4.40 | 2.07 | .868 | .534 | -.797 |

각 변인에 대한 최소값과 최대값은 자율적 코칭행동은 1.20~5.00점에서 평균값이 3.79, 표준편차는 .936로 나타났으며, 통제적 코칭행동은 1.00~4.20점에서 평균값이 2.08, 표준편차는 .878로 나타났다. 친밀감은 1.50~7.00점에서 평균값이 5.07, 표준편차는 1.544로 나타났으며, 헌신은 1.00~7.00점에서 평균값이 4.89, 표준편차는 1.577로 나타났으며, 상보성은 2.00~7.00점에서 평균값이 5.13, 표준편차는 1.319로 나타났다. 운동지속의도는 2.00~5.00점에서 평균값이 3.86, 표준편차는 .741로 나타났다. 운동포기의도는 1.00~4.40점에서 평균값이 2.07, 표준편차는 .868로 나타났다. 각 변인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모든 요인에서 왜도와 첨도 값이 절대값 2와 7이상을 넘지 않음으로써 측정변인들의 점수 분포가 정규성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III-7.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 변인 | A | B | C | D | E | F | G |
|-------------|---------|---------|---------|---------|---------|---------|------|
| 자율적 코칭행동(A) | 1.00 | | | | | | |
| 통제적 코칭행동(B) | -.427** | 1.00 | | | | | |
| 친밀감(C) | .512** | -.332** | 1.00 | | | | |
| 헌신 (D) | .400** | -.406** | .336** | 1.00 | | | |
| 상보성(E) | .498** | -.262** | .321** | .254** | 1.00 | | |
| 운동지속의도(F) | .534** | -.443** | .482** | .440** | .426** | 1.00 | |
| 운동포기의도(G) | -.504** | .442** | -.470** | -.469** | -.320** | -.428** | 1.00 |

** $p < .01$

본 연구에서는 Pearson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자율적 코칭행동, 통제적 코칭행동, 코치-선수관계, 운동지속의도, 운동포기의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III-7>에서 보는 바와 같다. 자율적 코칭행동은 친밀감, 헌신, 상보성, 운동지속의도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운동포기의도와는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적 코칭행동은 친밀감, 헌신, 상보성, 운동지속의도와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운동포기의도와는 유의한 정(+)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밀감, 헌신, 상보성은 운동지속의도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동포기의도와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인들이 적절한 수준의 상관이 나타났기 때문에 매개분석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2) 자율적 코칭행동과 운동행동의도의 관계에서 코치-선수관계의 매개효과 검증

대학생 운동선수들이 지각한 자율적 코칭행동과 운동행동의도의 관계에서 코치-선수관계 요인들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한 결과들은 <표 III-8>과 <그림 III-7>과 같다.

표 III-8. 자율적 코칭행동, 코치-선수관계(친밀감, 헌신, 상보성) 및 운동행동의도(지속의도, 포기의도) 간의 직접효과 검증

| 변수 | Coeff | SE | t | P | 95% CI | |
|---|-------|------|--------|------|-----------------|------|
| | | | | | LLCI | ULCI |
| 종속변인: 친밀감 $R^2=.262$, $F(1, 438)=155.416$, $P<.000$ | | | | | | |
| 상수 | 1.866 | .265 | 7.049 | .000 | 1.3459 ~ 2.3866 | |
| 자율적 코칭행동 | .844 | .068 | 12.467 | .000 | .7113 ~ .9776 | |
| 종속변인: 헌신 $R^2=.160$, $F(1, 438)=83.656$, $P<.000$ | | | | | | |
| 상수 | 2.328 | .289 | 8.070 | .000 | 1.7611 ~ 2.8951 | |
| 자율적 코칭행동 | .675 | .074 | .9.146 | .000 | .5300 ~ .8202 | |
| 종속변인: 상보성 $R^2=.248$, $F(1, 438)=144.514$, $P<.000$ | | | | | | |
| 상수 | 2.466 | .228 | 10.797 | .000 | 2.0170 ~ 2.9148 | |
| 자율적 코칭행동 | .703 | .058 | 12.021 | .000 | .5876 ~ .8173 | |
| 종속변인: 운동지속의도 $R^2=.411$, $F(4, 435)=75.979$, $P<.000$ | | | | | | |
| 상수 | 1.562 | .137 | 11.389 | .000 | 1.2922 ~ 1.8312 | |
| 자율적 코칭행동 | .191 | .038 | 4.984 | .000 | .1157 ~ .2665 | |
| 친밀감 | .109 | .021 | 5.216 | .000 | .0681 ~ .1504 | |
| 헌신 | .104 | .019 | 5.441 | .000 | .0667 ~ .1421 | |
| 상보성 | .099 | .024 | 4.148 | .000 | .0523 ~ .1466 | |
| 종속변인: 운동포기의도 $R^2=.381$, $F(4, 435)=67.021$, $P<.000$ | | | | | | |
| 상수 | 4.530 | .164 | 27.560 | .000 | 4.2074 ~ 4.8525 | |
| 자율적 코칭행동 | -.230 | .046 | -4.997 | .000 | -.3201 ~ -.1394 | |
| 친밀감 | -.131 | .025 | -5.220 | .000 | -.1804 ~ -.0817 | |
| 헌신 | -.153 | .023 | -6.655 | .000 | -.1983 ~ -.1079 | |
| 상보성 | -.034 | .029 | -1.173 | .242 | -.0902 ~ .0228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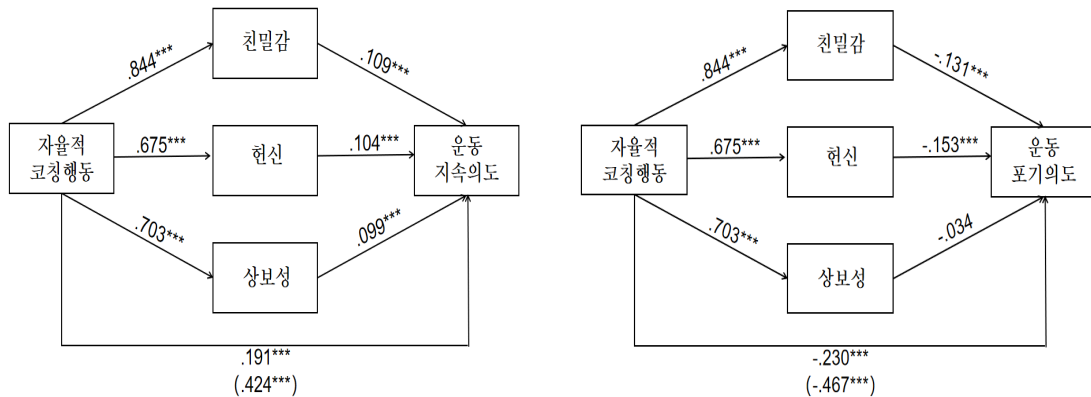


그림 III-7. 자율적 코칭행동, 코치-선수관계 및 운동행동의도의 경로분석 결과

우선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자율적 코칭행동은 친밀감 요인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844$, $SE=.068$, $t=12.467$, $p<.000$), 헌신 요인에도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675$, $SE=.074$, $t=9.146$, $p<.000$), 상보성 요인에도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703$, $SE=.058$, $t=12.021$, $p<.000$). 또한, 다중 선형 회귀의 결과는 회귀 모형이 유효함을 보여준다(친밀감 $R^2=.262$, $F=155.416$, $p<.000$; 헌신 $R^2=.160$, $F=83.656$, $p<.000$; 상보성 $R^2=.248$, $F=144.514$, $p<.000$). 이것은 자율적 코칭행동이 코치-선수관계의 친밀감 26.2%를 설명할 수 있고, 헌신 16.0%를 설명할 수 있으며 상보성 24.8%를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코치-선수관계의 친밀감 요인은 운동지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109$, $SE=.021$, $t=5.216$, $p<.000$), 운동포기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131$, $SE=.025$, $t=-5.220$, $p<.000$). 코치-선수관계의 헌신 요인은 운동지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104$, $SE=.019$, $t=5.441$, $p<.000$), 운동포기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153$, $SE=.023$, $t=-6.655$, $p<.000$). 코치-선수관계의 상보성 요인은 운동지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099$, $SE=.024$, $t=4.148$, $p<.000$), 운동포기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B=-.034$, $SE=.029$, $t=-1.173$, $p>.05$),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세 번째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자율적 코칭행동은 지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191$, $SE=.038$, $t=4.984$,

$p < .000$), 포기 의도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230$, $SE = .046$, $t = -4.997$, $p < .000$).

마지막으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통해 매개효과의 합인 총 효과를 살펴본 결과 자율적 코칭 행동은 운동 지속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 = .424$, $SE = .032$, $t = 13.228$, $p < .000$), 운동 포기 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467$, $SE = .038$, $t = -12.212$, $p < .000$).

다음으로 자율적 코칭 행동과 운동 행동 의도의 관계에서 코치-선수 관계 요인들의 간접 효과 검증을 실시한 결과들은 <표 III-9>과 같다.

표 III-9. 자율적 코칭 행동과 운동 행동 의도(지속 의도, 포기 의도) 간의 관계에서 코치-선수 관계의 매개 효과 검증 결과(간접 효과)

| 예측 변인 | 준거 변인 | 총 효과 Coeff(SE) t | 직접효과 Coeff(SE) t | 총 간접효과 Effect(SE) (LL~UL) | 특정 간접효과 | | |
|-----------|----------|------------------------|------------------------|------------------------------------|------------------------------|-----------------------------|------------------------------|
| | | | | | 친밀감 Effect(SE) (LL~UL) | 헌신 Effect(SE) (LL~UL) | 상보성 Effect(SE) (LL~UL) |
| 자율적 코칭 | 지속 의도 | .42(.03) 13.23*** | .19(.04) 4.98*** | .23(.03) (.18~.29) | .09(.02) (.05~.13) | .07(.02) (.04~.10) | .07(.02) (.03~.11) |
| | 포기 의도 | -.47(.04) -12.21*** | -.23(.05) -4.99*** | -.24(.03) (-.30~- .18) | -.11(.02) (-.16~- .07) | -.10(.02) (-.15~- .07) | -.02(.02) (-.07~- .02) |

†LL~UL: Bias-Corrected 95% Confidence Interval(Low Limit~Upper Limit)편의교정 95% 신뢰구간 하한값과 상한값을 의미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율적 코칭 행동이 코치-선수 관계의 친밀감, 헌신, 상보성을 경유하여 지속 의도에 미치는 총 간접 효과는 .23이며, 95% 편의교정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18~.29)이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매개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밀감의 매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율적 코칭 행동이 친밀감을 경유하여 운동 지속 의도로 가는 경로 계수($B = .09$)는 95% 편의교정 신뢰구간(.05~.13)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간접 효과가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자율적 코칭 행동과 지속 의도의 관계에서 친밀감은 부분 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신의 매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율적 코칭 행동이 헌신을 거쳐 운동 지속 의도로 가는 경로 계수($B = .07$)는 95% 편의교정 신뢰구간(.04~.10)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들 간에 매개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율적 코칭 행동과 지속 의도의 관계에서 헌신은 부분 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보성의 매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율적 코칭 행동이 상보성을 거쳐 운동 지속 의도로 가는 경로 계수($B = .07$)는 95% 편의교정 신뢰구간(.03~.11)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들 간에 매개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율적 코칭 행

동과 지속의도의 관계에서 상보성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에 따르면, 가설 1-1, 1-3, 1-5는 지지되었다.

자율적 코칭행동이 코치-선수관계의 친밀감, 헌신, 상보성을 경유하여 운동포기의도에 미치는 총 간접효과는 $-.24$ 이며, 95% 편의교정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30 \sim -.18$)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밀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율적 코칭행동이 친밀감을 거쳐 운동포기의도로 가는 경로계수($B = -.11$)는 95% 편의교정신뢰구간($-.16 \sim -.07$)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들 간에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율적 코칭행동과 포기의도의 관계에서 친밀감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신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율적 코칭행동이 헌신을 경유하여 운동포기의도로 가는 경로계수($B = -.10$)는 95% 편의교정신뢰구간($-.15 \sim -.07$)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들 간에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율적 코칭행동과 운동포기의도의 관계에서 헌신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보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율적 코칭행동이 상보성을 거쳐 운동포기의도로 가는 경로계수($B = -.02$)는 95% 편의교정신뢰구간($-.07 \sim .02$)에 0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가설 1-2, 1-4를 지지하고 있으며 가설 1-6은 기각되었다.

3) 통제적 코칭행동과 운동행동의도의 관계에서 코치-선수관계의 매개효과 검증

통제적 코칭행동과 운동행동의도의 관계에서 코치-선수관계 요인들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한 결과들은 <그림 III-8>과 <표 III-1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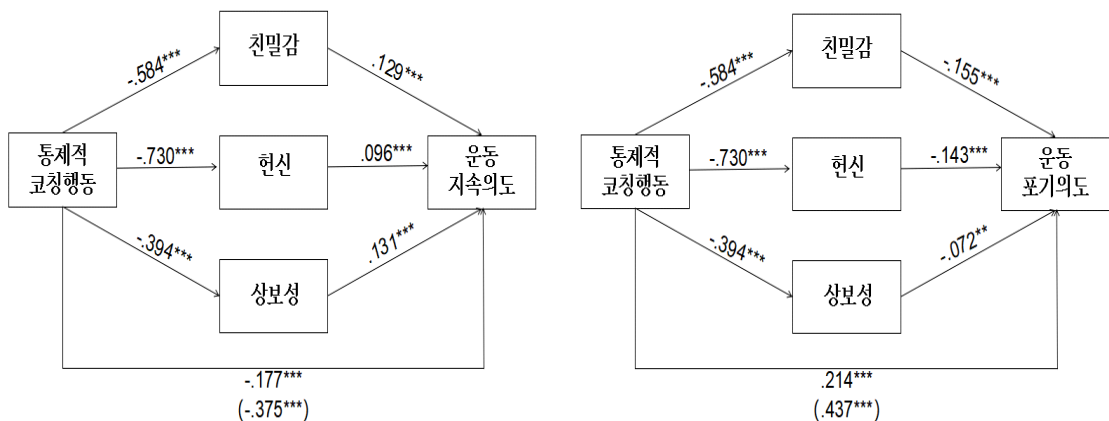


그림 III-8. 통제적 코칭행동, 코치-선수관계 및 운동행동의도의 경로분석결과

표 III-10. 통제적 코칭행동, 코치-선수관계 및 운동행동의도(지속의도, 포기의도) 간의 직접효과 검증결과

| 변수 | Coeff | SE | t | P | 95% CI |
|--|-------|------|--------|------|-----------------|
| | | | | | LLCI-ULCI |
| 종속변인: 친밀감 $R^2=.110$, $F(1,438)=54.337$, $P<.000$ | | | | | |
| 상수 | 6.292 | .179 | 35.024 | .000 | 5.9391 ~ 6.6453 |
| 통제적 코칭행동 | -.584 | .079 | -7.371 | .000 | -.7402 ~ -.4286 |
| 종속변인: 헌신 $R^2=.165$, $F(1,438)=86.636$, $P<.000$ | | | | | |
| 상수 | 6.416 | .178 | 36.087 | .000 | 6.0668 ~ 6.7657 |
| 통제적 코칭행동 | -.730 | .079 | -9.308 | .000 | -.8846 ~ -.5761 |
| 종속변인: 상보성 $R^2=.069$, $F(1,438)=32.257$, $P<.000$ | | | | | |
| 상수 | 5.955 | .157 | 37.301 | .000 | 5.6459 ~ 6.2634 |
| 통제적 코칭행동 | -.394 | .069 | -5.680 | .000 | -.5301 ~ -.2575 |
| 종속변인: 운동지속의도 $R^2=.412$, $F(4,435)=76.195$, $P<.000$ | | | | | |
| 상수 | 2.434 | .191 | 12.773 | .000 | 2.0597 ~ 2.8088 |
| 통제적 코칭행동 | -.177 | .035 | -5.038 | .000 | -.2467 ~ -.1082 |
| 친밀감 | .129 | .020 | 6.522 | .000 | .0902 ~ .1679 |
| 헌신 | .096 | .019 | 4.921 | .000 | .0579 ~ .1349 |
| 상보성 | .131 | .022 | 5.872 | .000 | .0872 ~ .1749 |
| 종속변인: 운동포기의도 $R^2=.382$, $F(4,435)=67.274$, $P<.000$ | | | | | |
| 상수 | 3.480 | .228 | 15.234 | .000 | 3.0309 ~ 3.9288 |
| 통제적 코칭행동 | .214 | .042 | 5.063 | .000 | .1308 ~ .2968 |
| 친밀감 | -.155 | .024 | -6.528 | .000 | -.2014 ~ -.1082 |
| 헌신 | -.143 | .024 | -6.106 | .000 | -.1896 ~ -.0972 |
| 상보성 | -.072 | .027 | -2.677 | .008 | -.1242 ~ -.0190 |

우선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통제적 코칭행동은 친밀감 요인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584$, $SE=.079$, $t=-7.371$, $p<.000$), 헌신 요인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730$, $SE=.079$, $t=-9.308$, $p<.000$), 상보성 요인에도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394$, $SE=.069$, $t=-5.680$, $p<.000$). 또한, 다중 선형 회귀의 결과는 회귀 모형이 유효함을 보여준다(친밀감 $R^2=.110$, $F(1,438)=54.337$, $p<.000$; 헌신 $R^2=.165$, $F(1,438)=86.636$, $p<.000$; 상보성 $R^2=.069$, $F(1,438)=32.257$, $p<.000$). 이것은 통제적 코칭행동이 코치-선수관계의 친밀감 11.0%를 설명할 수 있고, 헌신 16.5%를 설명할 수 있으며 상보성 6.9%를 설명할 수 있

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친밀감은 운동지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129$, $SE=.020$, $t=6.522$, $p<.000$), 운동포기의도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155$, $SE=.024$, $t=-6.528$, $p<.000$). 헌신은 운동지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096$, $SE=.019$, $t=4.921$, $p<.000$), 운동포기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143$, $SE=.024$, $t=-6.106$, $p<.000$). 상보성은 운동지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131$, $SE=.022$, $t=5.872$, $p<.000$), 운동포기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72$, $SE=.027$, $t=-2.677$, $p<.008$).

세 번째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통제적 코칭행동은 지속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177$, $SE=.035$, $t=-5.038$, $p<.000$), 운동포기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214$, $SE=.042$, $t=5.063$, $p<.000$).

다음으로 통제적 코칭행동과 운동행동의도의 관계에서 코치-선수관계 요인들의 간접효과 검증을 실시한 결과들은 <표 III-11>과 같다.

표 III-11. 통제적 코칭행동과 운동행동의도(지속의도, 포기의도) 간의 관계에서 코치-선수관계의 매개효과 검증결과(간접효과)

| 예측 변인 | 준거 변인 | 총 효과 Coeff(SE) t | 직접효과 Coeff(SE) t | 총 간접효과 Effect(SE) (LL~UL) | 특정 간접효과 | | |
|-----------|----------|------------------------|------------------------|------------------------------------|------------------------------|-----------------------------|------------------------------|
| | | | | | 친밀감 Effect(SE) (LL~UL) | 헌신 Effect(SE) (LL~UL) | 상보성 Effect(SE) (LL~UL) |
| 통제적 코칭 | 지속 의도 | -38(.04) -10.35*** | -18(.04) -5.04*** | -20(.02) (-.25~-15) | -08(.02) (-.11~-05) | -07(.01) (-.10~-04) | -05(.01) (-.08~-03) |
| | 포기 의도 | .44(.04) 10.32*** | .21(.04) 5.06*** | .22(.03) (.17~.28) | .09(.02) (.06~.13) | .10(.02) (.06~.15) | .03(.01) (.00~.06) |

†LL~UL: Bias-Corrected 95% Confidence Interval(Low Limit~Upper Limit)편의교정 95%신뢰구간 하한값과 상한값을 의미함.

통제적 코칭행동이 코치-선수관계의 친밀감, 헌신, 상보성을 경유하여 지속의도에 미치는 총 간접효과는 -.20이며, 95% 편의교정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25~-15)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밀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통제적 코칭행동이 친밀감을 경유하여 운동지속의도로 가는 경로계수($B=-.08$)는 95% 편의교정신뢰구간(-.11~-05)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들 간에 매개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신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통제적 코칭행동이 헌신을 거쳐 운동지속의도로 가는 경로계수($B=-.07$)는 95% 편의교정신뢰구간($-.10\sim-.04$)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들 간에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보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통제적 코칭행동이 상보성을 거쳐 운동지속의도로 가는 경로계수($B=-.05$)는 95% 편의교정신뢰구간($-.08\sim-.03$)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들 간에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통제적 코칭행동과 지속의도의 관계에서 친밀감, 헌신, 상보성은 모두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은 연구가설 2-1, 2-3, 2-5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통제적 코칭행동이 코치-선수관계의 친밀감, 헌신, 상보성을 경유하여 포기의도에 미치는 총 간접효과는 .22이며, 95% 편의교정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17\sim.28$)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밀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통제적 코칭행동이 친밀감을 거쳐 운동포기의도로 가는 경로계수($B=.09$)는 95% 편의교정신뢰구간($.06\sim.13$)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들 간에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신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율적 코칭행동이 헌신을 거쳐 운동포기의도로 가는 경로계수($B=.10$)는 95% 편의교정신뢰구간($.06\sim.15$)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들 간에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보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율적 코칭행동이 상보성을 거쳐 운동포기의도로 가는 경로계수($B=.03$)가 95% 편의교정신뢰구간($.00\sim.06$)에 0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간에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적 코칭행동과 운동포기의도의 관계에서 친밀감, 헌신, 상보성 요인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2, 2-4, 2-6은 지지되었다.

4. 논의

코치는 운동선수의 성장, 성적향상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여 스포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Davis et al., 2019; Gilbert, 2016), 운동선수의 생리적, 심리적 상태와 그 기능 수준의 전반적인 측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Adie, Duda, & Ntoumanis, 2008). 이와 관련하여, 대인관계 관점에 기반한 코치-선수관계의 선행연구에서는(Choi & Cho, 2014; Isoard-Gauthier, Trouilloud, Gustafsson, & Guillet-Descas, 2016) 코치와 선수 간의 존중, 신뢰, 소통 등의 원만한 상호작용이 경기의 성공과 만족을 견인하는 중요한 관계 요소라는 것을 제시하였다(Jowett et al., 2005). 아울러 이러한 관계는 운동선수들에게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유발하며, 그들의 훈련 상황, 경기력, 운동행동의도, 행복감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마해영, 2014; 박중길, 2009; 박병훈, 2011; 서희진, 2005; Jowett et al., 2003; Jowett, Adie, Bartholomew, Yang, Gustafsson, & Lopez-Jiménez, 2017; Wylleman, 2000).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스포츠 분야에서 코치-선수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 1에서는 코칭행동과 운동행동의도 간의 관계에서 코치-선수관계가 어떠한 매개효과를 유발하는지를 규명하려고 하였다.

첫째, 치어리딩 선수들이 지각한 코칭행동이 코치-선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허진영 등, 2017; 최현혁 등, 2014; Felton, & Jowett, 2013)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율적 코칭행동은 코치-선수관계의 친밀감, 헌신, 상보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관련 선행연구 결과(楊毅, 2007; Lafrenière et al., 2011)와 일치하고 있다. 관련된 선행연구에 따르면 운동선수가 지각한 자율적 코칭행동이 높을수록 코치와의 친밀성, 헌신, 상보성을 더 많이 느낀다고 보고하였는데, 그 이유는 코치의 자율적 코칭행동이 운동선수로 하여금 코치에게 관심을 받고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촉발함으로써(Reinboth, Duda, & Ntoumanis, 2004) 긍정적인 감정이 유발되기 때문이다(Choi et al., 2020). 최현혁 등(2013)의 연구에서도 코치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선수들의 동기와 정서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코치가 선수의 제안을 충분히 수용하고 이해할 때 선수로부터 인정을 더 쉽게 얻을 수 있으며 선수는 코치에게 긍정적이고 강한 감정적 유대감을 쉽게 형성할 수 있고

(Lafrenière et al, 2011), 보다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Álvarez, Balaguer, Castillo, & Duda, 2009; Gagne, 2003)고 말할 수 있다.

반면, 통제적 코칭행동은 코치-선수관계의 친밀감, 헌신, 상보성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통제적 코칭행동이 코치-선수관계에 부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선행연구(허진영, 최현혁, 2017)와 일치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코치가 선수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도 없이 선수와 냉담하고 소외된 전제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선수의 스포츠 만족도와 긍정적인 감정을 억제한다(Blanchard, Amiot, Perreault, Valerand, & Provencher, 2009). 그 결과 운동선수가 코치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이해하지 못하여 공동의 목표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코치-선수관계의 질은 감소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양호한 코치-선수관계를 얻기 위해서는 대학 치어리딩 코치들이 치어리딩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자율적 코칭행동을 제고하고 목표지향적인 훈련 활동배치가 요망된다. 또한 선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선수의 훈련과 생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선수에 대한 합당한 격려와 칭찬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상황에 따라 통제적 코칭 행동을 적당하게 활용한다면, 코치와 선수가 설정한 관계성 환경에서 욕구만족감을 촉진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본다.

둘째, 대학생 치어리딩 선수가 지각한 코칭행동이 운동선수의 운동행동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치어리딩 선수들이 지각한 코칭행동은 운동선수의 운동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율적 코칭행동은 운동선수의 운동지속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운동포기의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이양주, 2022; Fraser-Thomas, & Côté, 2009)와 일치하고 있다. 반대로, 통제적 코칭행동은 운동지속의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운동포기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박동훈, 양명환, 2020; 장보경 등, 2019)를 지지하고 있다. Pelletier et al.(2001)은 높은 수준의 자율적 지지 코칭행동이 엘리트 수영선수의 내재적 동기를 향상시키는 반면 통제적 코칭행동은 내재적 동기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즉, 선수들이 코치로부터 자율적인 지원을 받을수록 성취동기와 목표가 높아지고 능동적인 운동수행과 지속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Adie et al., 2008). 반면 지나친 통제적 코칭행동은 운동선수의 운동지속의도를 감소시키고 중도포기의도를 증

가시킬 수 있다(김윤만, 2020; 원우영, 김종식, 김현륜, 2019; 이경현, 장세용, 2019).

그러나 실제로 일부 치어리딩 코치들은 훈련과정에서 자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훈련방법과 목표를 설정하고, 선수들에게 자신의 지도방식을 반드시 수용하여야 한다고 강요한다. 또한, 훈련과정에서 선수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훈련계획과 경기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선수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 게다가 훈련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운동선수의 체력, 노력 부족 등의 측면에서 원인을 찾는 경향이 있으며 지도 방법을 조정하거나 비판적인 성찰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대학생 치어리딩 운동선수의 운동포기의도가 쉽게 발생할 개연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본다. 운동포기의도가 증가하는 이유는 본 연구의 대상자인 치어리딩 선수들의 특성에서 찾을 수도 있다. 치어리딩은 패션, 활력, 자유와 소탈함 등의 요소가 전형적인 종목 특징이며, 개성발휘, 개인의 창의력 및 팀 응집력(吳俊艷, 2021)요소를 강조한다. 아울러 다른 스포츠 종목에 비해 치어리딩 종목 선수들의 사고는 낙천적이고 활동적이며 뚜렷한 개성표출을 그 특징으로 한다. 또한 대학생 치어리딩 선수들은 프로선수들과 참여동기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그들이 치어리딩에 최초 참여하게 된 동기는 대부분 최고의 운동성적을 추구하거나 직업선수로의 진출 아니라 개인적인 취미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치어리딩 선수들이 코치로부터 자주 통제적 코칭행동을 받는다고 느낀다면 운동포기의도가 더 쉽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논문의 연구 결과에서 통제적 코칭행동이 운동지속의도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운동포기의도에는 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잘 설명할 수 있다.

전술한 연구결과들은 코치의 자율적 코칭행동이 운동선수의 동기를 촉발하는데 도움을 주고 스포츠 지속행동에 매우 중요하며, 선수들이 코치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운동수행과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 치어리딩 코치는 상황에 맞는 지도 행동을 전개해야 하고 다양한 접근과 심리적 개입을 시도해야 하며, 코치의 자율적 코칭행동의 사용 빈도를 증가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코치-선수관계가 운동지속의도 및 운동포기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학생 치어리딩 선수가 지각한 코치-선수관계의 친밀감, 헌신, 상보성이 운동지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Barnett, Smoll, & Smith(1992) 및 Rottensteiner et al.(201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김덕진(2015)의 연구에서

코치-선수관계는 탈진의 하위요인들과 부적의 상관을 보이며, 코치와 선수 간 갈등관계가 유발된다면 탈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최마리, 박상혁, 성장훈(2012)은 코치-선수 부합과 심리욕구만족 및 운동탈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코치-선수 부합→심리욕구만족, 심리욕구만족 → 운동 탈진, 코치-선수부합 → 운동탈진의 모든 경로가 유의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Raedeke & Smith(2001)는 선수들이 지각하는 낮은 사회적 지지와 부정적 코치-선수관계가 탈진을 유발할 위험성이 더 높다고 하였다. Mageau et al.(2003)의 연구도 선수의 동기유발에 있어서 코치-선수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 선수와 코치가 함께 성공적인 운동 인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능학습 강화 외에 코치와의 조화로운 관계 유지에도 신경을 써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역설적으로 코치들은 지도 기술 강화 외에도 선수들과의 좋은 관계 구축에도 신경을 써야 하며, 코치-선수관계가 정서, 인지, 행동의 3가지 측면에서 고도로 조화로운 상태에 도달할 때 비로소 “줄탁동기(倅啄同時)”의 상태가 나올 수 있고 최고의 효과가 발휘되는 윈윈(win-win)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는 코치-선수관계의 상보성 요인이 운동포기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운동선수의 포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매우 복잡(Coakley & White, 1992)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추측한다. Bandura의 상호작용 결정론(reciprocal determinism)은 개인의 행동이 내적 원인과 외적 원인에 의해 결정되며, 개인의 인지적 요인과 객관적 환경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Bandura, 1978). 따라서 운동선수의 포기의도는 주로 정서(친밀감), 인지(현신), 목표, 환경(코칭행동, 코치-선수관계)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 상보성은 주로 개인의 행동 측면을 나타내며, 이는 코치와 선수가 협력하는 동안 서로 협력하는 긍정적인 행동을 말하며 인지 및 정서의 결과이다. 객관적인 사실에서 동일한 행동은 다른 결과를 유발할 수 있지만 동일한 결과는 다른 이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상보성이 포기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일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의 주 연구문제인 자율적, 통제적 코칭행동과 운동행동의도(운동지속의도, 운동포기의도) 간의 관계에서 코치-선수관계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율적 코칭행동은 선수의 지속의도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고 포기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코치-선수관계를 통해 선수의 운동지속의도에 부(-)의 효과와 운

동포기의도에 정(+)¹의 간접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제적 코칭행동은 운동지속의도에 부(-)²의 영향을 미치고 운동포기의도에 정(+)¹의 영향을 미쳤으며, 코치-선수관계를 통해 선수의 운동지속의도에 부(-)²의 효과와 운동포기의도에 정(+)¹의 간접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코치-선수관계가 서로 다른 코칭행동과 운동지속의도와 포기의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대학생 치어리딩 선수들이 지각한 자율적 코칭행동이 높을수록 코치와 선수의 친밀감, 헌신, 상보성이 높고, 코치-선수관계가 높을수록 운동지속의도가 강화되고 운동포기의도를 경험할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선수들이 감지한 통제적 코칭행동이 높을수록 코치와 선수의 친밀감, 헌신, 상보성이 낮아지고, 코치-선수관계가 낮을수록 운동지속의도는 감소하고 운동포기의도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코칭행동 유형과 운동지속의도나 운동포기의도 간의 관계가 코치-선수관계를 경유하여 간접효과를 보인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고 있다. 王斌, 葉綠, 吳敏, 馮恬, 彭秀(2014)는 중국 엘리트 선수가 가진 감사한 마음(gratitude)과 몰입의 관계에서 코치-선수관계의 유의한 간접효과를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또한 황수영 등(2020)은 코치-선수관계를 매개로 사격 선수들의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유능성이 운동지속에 정(+)¹의 영향을 미치며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코치-선수관계를 매개로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유능성이 운동중단에 부(-)²의 매개효과를 유발한다는 보고는 본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박은선, 도미향(2022)은 운동선수들의 코칭 역량과 심리적 행복감의 관계에서 코치-선수관계가 부분 매개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홍성택, 조선령(2020)은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코치-선수관계는 자율적 코칭행동과 운동선수 탈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통제적 코칭행동과 운동선수 탈진의 관계에서는 부분매개효과를 보고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모형 면에서 본 연구와 유사한 Wekesser et al.(2021)의 연구 결과는 본 연구와 같은 매개효과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연구 결과는 본 연구에서 가정한 결과들을 지지하고 있지만, 코칭행동과 운동선수의 지속의도 간의 관계에서는 코치-선수관계의 매개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연구대상의 특성과 표본의 크기에 의해서 초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Wekesser et al.(2021)의 연구는 11세~16세 사이의 148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본 연구는 440명의 대학생 치어리더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표본의 크기에 따른 차이뿐만 아니라 연구대상자의 연령의 차이에 의한 결과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즉, 연령이 어린 선수들은 대학생 선수들에 비해 인지능력이 약하고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받는 정도가 덜하지만, 대학생 선수들의 인지능력은 상대적으로 성숙해 있고 코치-선수관계에 대한 이해, 인식 및 판단에서 더 유리했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됐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연구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재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유물론적 변증법은 '외부적인 원인은 변화의 조건이고, 내부적인 원인은 변화의 근거이며, 외부적인 원인은 내부적인 원인을 통해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사회심리적 요인인 코치-선수관계가 선수의 운동지속의도와 운동포기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영향은 코치의 코칭행동의 힘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코치와의 좋은 관계는 선수들이 자기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구체적인 작용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치어리딩 선수가 지각하는 코치의 자율적 코칭행동은 높은 수준의 코치와 선수의 친밀감, 헌신 및 상보성을 통해 선수의 주관적인 활력과 긍정적인 감정(Adie, et al., 2008)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통제적 코칭행동은 운동선수의 심리적 욕구를 좌절시키기 쉽고 운동선수에게 식생활 장애, 탈진, 우울, 부정적인 정서, 신체 증상 등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Bartholomew et al., 2011). 자기결정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환경이 자율성을 지지할 때 사람들은 중요한 활동에 대한 동력인 내면화 조절이 잘 되고 더 높은 수준의 자기 결정 동기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동기가 자기결정적일수록 결과는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행동의 지속성을 강화한다(Pelletier et al., 2001).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코치-선수관계가 코칭행동과 운동지속의도 및 운동포기의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연구 1에서의 매개효과 결과를 요약하면, 자율성 코칭이 친밀감, 헌신 그리고 상보성을 경유하여 운동지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운동포기의도에도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자율적 코칭행동과 운동포기의도 간의 관계는 친밀감, 헌신 요인에 의해서 매개효과가 있고 상보성에 의한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못하였다. 반면 통제적 코칭행동과 운동포기의도 간의 관계는 친밀감, 헌신 및 상보성 모든 하위요인에서 매개효과가 정(+)적으로 나타난다는 일관적인 결과를 얻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코치-선수관계 변인의 부분매개효과가 통제적 코칭행동이 운동포기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 매개효과를 조절할 수 있는 의미있는 변인을 채택하여 조절된 조건부 간접효과를 규명함으로써 통제적 코칭행동이 운동포기의도에 미치는 부적인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또한 매개과정은 서로 다른 사람 또는 서로 다른 상황(조절변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대학생 치어리딩 선수에게 있어 통제적 코칭행동이 운동포기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치어리딩 선수의 성장 및 종합적인 발전에 방해요소가 된다. 그러나 통제적 코칭행동이 운동포기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보고한 연구가 희귀할 뿐만 아니라 치어리딩 선수들이 지각한 통제적 코칭행동과 코치-선수관계 및 운동포기의도 간의 관계를 심도있게 검증한 연구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매개효과를 완화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변수를 찾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연구 2에서는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을 조절변수로 선정하여 통제적 코칭행동과 관계유지전략의 상호작용이 선수-코치의 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관계유지전략이 통제적 코칭 → 코치-선수관계 → 운동포기의도 간의 매개효과를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IV. 연구 2

1. 문제제기

1) 연구목적

연구 1의 연구 과정을 통해 우리는 낮은 질의 코치-선수관계가 통제적 코칭행동이 선수의 운동포기의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는 많은 우수한 선수들의 운동포기의도를 증폭시키거나 심지어 조기 은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 스포츠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하나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학생 치어리딩 선수를 대상으로 하여, 치어리딩 코치가 가진 통제적 코칭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코치-선수관계 및 운동포기의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렇다면 어떤 변수가 이러한 부정적인 관계를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개선할 수 있을까? 선행연구(Dindia & Canary, 1993)에 따르면 인간관계는 일정한 상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정한 사건에 따라 변화한다고 하였다. 이는 대인간 관계 유지전략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은 코치 또는 선수가 성공적인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심리적, 행동적 전략을 의미한다(엄창량, 2021).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은 환경, 개인 및 행동이 서로 영향을 미치며 개인은 자기 조절을 통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능동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며 환경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통해 통제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친밀한 관계 분야의 연구에 따르면 효과적인 관계유지전략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이며 만족스러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Canary et al., 1994; Ogolsky & Bowers, 2013), 관계유지전략을 자주 적용하면 인간관계의 친밀성, 헌신 및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Dainton, & Aylor, 2002). 스포츠 분야의 선행연구에서는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은 코치-선수관계와 관련이 있으며 코치-선수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Rhind et al., 2010, 2011; Smith & Smoll, 1990). 코치는 호

과적인 의사소통, 긍정적인 피드백, 삶에 대한 배려, 목표 설정 등 일련의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코치-선수관계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서, 선수의 만족도를 높이고 불안과 우울을 줄이며 훈련의 열정을 높이고 경기 결과를 향상시킨다(郭宇剛, 2016). 또한 운동 선수가 코치와의 관계를 복원하거나 안정화 또는 개선하기 위해 채택한 관계유지전략은 긍정적인 행동이며 이러한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좋은 코치-선수관계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수의 탈진 상태를 예방할 수 있다(Fan et al., 2020).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관계유지전략은 통제적 코칭행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코치-선수관계 및 운동포기의도 관계에서 중요한 조절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한편 통제적 코칭행동은 선수들이 코치에 대해 오해하고 갈등을 일으키기 쉽다(Jowett, 2003). 일반적으로 스포츠 상황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경기력과 관련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선수들에게 탈진이나 중도포기가 유발할 수 있다(한용식, 김미예, 김덕진, 2014). 이러한 결과로부터 관계유지전략에서 갈등 관리전략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실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갈등관리에 대한 이해는 코치-선수관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코치와 선수의 관점을 확대할 수 있고 나아가 긍정적인 감정의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다(Davis & Jowett, 2014). 지금까지의 관계유지전략에 대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관계유지전략에 대한 연구는 관계유지척도개발(Rhind et al., 2012), 연역적, 귀납적 내용분석을 통한 COMPASS 모델 개발(Rhind et al., 2010), 관계유지전략과 코치-선수관계 간의 상관분석(Rhind et al., 2011) 등에 대하여 이루어졌지만, 관계유지전략을 조절 변수로 사용하여 통제적 코칭행동과 운동포기의도를 탐색하는 관련 연구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통제적 코칭행동, 코치-선수관계, 운동포기의도 관계에서 나타난 매개효과가 관계유지전략의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연구 2의 목적은 중국 대학생 치어리딩 선수들이 지각한 통제적 코칭행동이 코치-선수관계를 매개로 운동포기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이러한 관계가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 수준에 의해 어떻게 조절되는지(조건부 간접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해 코치와 선수의 인지 범위를 넓히고, 치어리딩 코치들의 지도 수준과 치어리딩 선수들의 운동수행을 향상시켜 선수들의 포기의도를 예방하는 한편, 치어리딩 운동의 이론연구를 풍부하게 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서 운동선수들과 관련된 심리적 문제들을 파악하여 갈등의 원인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모형

연구 2에서는 연구 1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을 조절변수로 투입하여 통제적 코칭행동이 운동포기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코치-선수관계의 매개효과가 관계유지전략에 의하여 조절되는지를 구명하고자 한다. 코치-선수관계유지전략은 운동열의, 의사소통전략, 갈등관리전략의 3개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갈등관리, 운동열의 전략을 합친 것을 관계유지전략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으며, 연구의 모형은 <그림 IV-1>과 같이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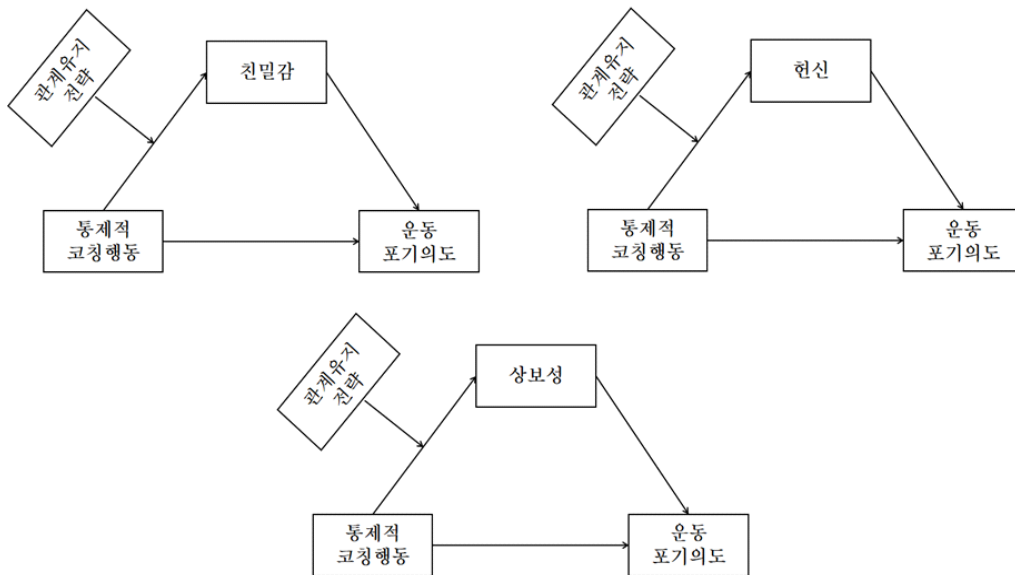


그림 IV-1. 연구 2의 연구모형

3) 연구가설

가설 1. 통제적 코칭행동과 운동포기의도의 관계에서 친밀감의 매개효과는 관계유지 전략 수준에 따라서 조절될 것이다.

가설 2. 통제적 코칭행동과 운동포기의도의 관계에서 헌신의 매개효과는 관계유지 전략 수준에 따라서 조절될 것이다.

가설 3. 통제적 코칭행동과 운동포기의도의 관계에서 상보성의 매개효과는 관계유지 전략 수준에 따라서 조절될 것이다.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 2의 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대상자는 2023년 현재 중국 국공립 대학교(광둥성, 광시성, 지양쑤성, 산시성, 산둥성, 장시성, 쓰촨성, 후난성)에 재학 중인 치어리딩 선수들 366명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지역적 분포는 <그림 IV-2>와 같다.



그림 IV-2. 연구 2의 연구대상 지역분포

이들에 대한 표집방법은 비확률적 표집방식인 유목적 표집법(purposive sampling)을 이용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366부 가운데 응답내용이 반응고정화 현상을 보이는 응답과 불성실한 자료 36부를 제외하여, 최종분석에는 330명의 자료를 최종 유효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다음의 <표 IV-1>과 같다.

표 IV-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항목 | 구분 | 사례수(%) | 계 |
|------|-------------|-----------|--------------|
| 성별 | 남자 | 102(30.9) | 330 (100) |
| | 여자 | 228(69.1) | |
| 학년 | 1학년 | 75(22.7) | 330 (100) |
| | 2학년 | 113(34.2) | |
| | 3학년 | 75(22.7) | |
| | 4학년 | 67(20.4) | |
| 종목별 | 스턴트 | 104(31.5) | 330 (100) |
| | 댄스 | 226(68.5) | |
| 운동경력 | 1년이하 | 81(24.5) | 330 (100) |
| | 1년이상 ~ 2년미만 | 104(31.5) | |
| | 2년이상 ~ 3년미만 | 65(19.7) | |
| | 3년이상 ~ 4년미만 | 45(13.6) | |
| | 4년이상 | 35(10.7) | |

2) 측정도구

연구 2의 조사도구는 표준화된 설문지이며,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 조절변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2의 자료를 측정하기 위해 통제적 코칭행동, 코치-선수관계, 운동포기의도,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 척도를 사용하였다.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구조를 추출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χ^2 검증을 기본적으로 평가하지만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표본크기와는 비교적 독립적이고 모형의 간명성을 나타내는 RMSEA, IFI, TLI, CFI 등의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여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이러한 적합도 지수들은 Q값이 3 이하(Kline, 2005), IFI, TLI, CFI와 같은 상대적 지수들의 값은 .90 이상이 되어야 양호하며, RMSEA값은 .05 이하이면 매우 우수하고, .08 이하이면 양호, .10 이하이면 수용이 가능하다는 준거를 가지고 평가하였다(홍세희, 2000; Hu & Bentler, 1999).

(1) 통제적 코칭행동

선수가 지각한 통제적 코칭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중국학자 楊勇(2008)이 개발한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통제적 코칭행동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나의 코치는 나와 팀 동료 선수들에게 냉담하고 소원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라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평정척도를 이용하여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먼저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구조를 추출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Varimax 직교회전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5문항으로 구성된 단일 요인을 추출하였다(KMO 측도=.835, Bartlett의 구형성 점검, Approximate $\chi^2=507.091$, $df=10$, $p<.000$).

Cronbach's Alpha 값으로 평가한 신뢰도 계수는 통제적 코칭행동 .812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적합도 지수들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8.143$, $df=5$, $p>.149$, $Q=1.629$, IFI=.994, TLI=.987, CFI=.994, RMSEA=.044).

표 IV-2. 통제적 코칭행동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 문항 | 요인 적재치 | 공통분 | M | SD | 신뢰도 |
|--|--------|------|-------|-------|------|
| 2. 나의 코치는 나와 팀 동료선수들에게 냉담하고 소원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 .830 | .689 | 1.833 | .935 | |
| 10. 나의 코치는 훈련이나 경기지도를 할 때 나와 팀 동료선수들을 자신의 코칭방식을 따르도록 강요한다. | .783 | .614 | 2.242 | .927 | |
| 6. 나의 코치는 나와 팀 동료선수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요구한다. | .745 | .555 | 2.321 | .939 | .812 |
| 8. 나의 코치는 항상 명령조로 훈련과 경기를 지도한다. | .723 | .523 | 2.336 | .922 | |
| 4. 나의 코치는 자신이 말할 때는 나와 팀 동료선수들이 의견을 제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 .705 | .497 | 2.255 | 1.047 | |
| 고유치 | 2.877 | | | | |
| 공통분산(%) | 57.543 | | | | |
| 누적분산(%) | 57.543 | | | | |

KMO=.835, Bartlett $X^2=507.091$, $df=10$, $p<.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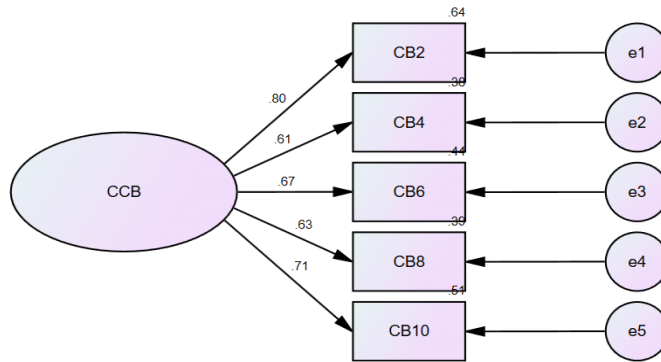


그림 IV-3. 통제적 코칭행동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CCB: Controlling coach behaviors

(2) 운동포기의도

치어리딩 선수의 운동포기의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 1과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단일요인 5문항이며, 구체적으로 “나는 운동으로는 장래가 불투명해서 그만두고 싶다.” 라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평정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Varimax 직교회전을 이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단일 요인을 추출하였다(KMO 척도=.879, Bartlett의 구형성 점검, Approximate $\chi^2=833.750$, $df=10$, $p<.000$). Cronbach’s Alpha 값으로 평가한 신뢰도 계수는 .884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적합도 지수들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7.820$, $df=5$, $p>.166$, Q=1.564, IFI=.997, TLI=.993, CFI=.997, RMSEA=.041).

표 IV-3. 운동포기의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 문항 | 요인 적재치 | 공통분 | M | SD | 신뢰도 |
|---------------------------------------|--------|------|-------|-------|------|
| 2. 나는 치어리딩 운동으로는 장래가 불투명해서 그만두고 싶다. | .857 | .734 | 2.082 | 1.009 | |
| 4. 나는 치어리딩 운동에 흥미를 잃어서 그만두고 싶다. | .828 | .686 | 1.876 | .8610 | |
| 5. 나는 치어리딩보다 다른 운동에 더 관심이 많다. | .827 | .683 | 2.091 | 1.003 | .884 |
| 1. 나는 치어리딩 운동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 | .824 | .679 | 2.021 | .9563 | |
| 3. 나는 치어리딩 운동으로 성공을 못할 것 같아서 그만두고 싶다. | .805 | .649 | 2.003 | 1.018 | |
| 고유치 | 3.431 | | | | |
| 공통분산(%) | 68.629 | | | | |
| 누적분산(%) | 68.629 | | | | |

KMO=.879, Bartlett $X^2=833.750$, $df=10$, $p<.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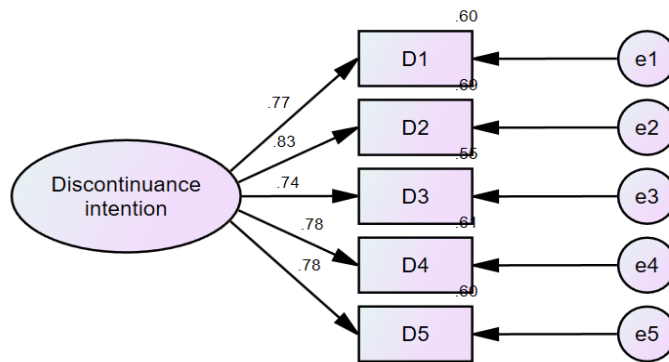


그림 IV-4. 운동포기의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3) 코치-선수관계

치어리딩 선수들이 지각한 코치-선수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 1과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설명해야 할 것은 이 설문지에는 코치 버전과 선수 버전이 있으며 이 두 버전은 메타 인지판과 직접 시각으로 나눈다. 본 연구는 대학생 운동선수를 연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운동선수의 직접 시각을 연구 도구로 선정하였다. 이 척도는 친밀감 4문항, 헌신 3문항, 상보성 4문항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나와 코치의 관계는 비교적 친밀하다.” 라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의 7점 Likert 평정척도를 이용하여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Varimax 직교회전을 이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11문항으로 구성된 3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KMO 측도=.869, Bartlett의 구형성 점검, Approximate $\chi^2=1571.657$, $df=55$, $p<.000$). Cronbach’s Alpha 값으로 평가한 신뢰도 계수는 친밀감 $\alpha=.826$, 헌신 $\alpha=.827$, 상보성 $\alpha=.791$ 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적합도 지수들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93.498$, $df=41$, $p<.000$, $Q=2.280$, $IFI=.966$, $TLI=.954$, $CFI=.966$, $RMSEA=.062$).

표 IV-4. 코치-선수관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 문항 | 요인적재치 | | | 공통분 | M | SD | 신뢰도 |
|---|-------------|-------------|-------------|------|------|------|------|
| | 친밀감 | 상보성 | 헌신 | | | | |
| 1. 나는 나의 코치를 좋아한다. | .819 | .143 | .130 | .708 | 6.13 | 1.08 | |
| 11. 나는 나의 코치가 내 경기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노력에 감사드린다. | .815 | .153 | .185 | .722 | 6.35 | .83 | .826 |
| 6. 나는 나의 코치를 존경한다. | .720 | .202 | .235 | .615 | 6.49 | .75 | |
| 5. 나는 나의 코치를 신뢰한다. | .693 | .338 | .247 | .656 | 6.30 | .84 | |
| 10. 코치가 나를 지도해 줄 때 나는 최선을 다한다. | .225 | .783 | .004 | .663 | 6.42 | .80 | |
| 3. 코치가 나를 지도해 줄 때 나는 적극적으로 응대한다. | .103 | .755 | .164 | .608 | 6.25 | .92 | |
| 8. 나는 나의 코치에게 지도받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 | .175 | .751 | .192 | .632 | 5.92 | 1.09 | .791 |
| 4. 코치가 나를 지도해 줄 때 나는 매우 겸허하고 우호적인 행동한다. | .240 | .707 | .256 | .623 | 6.37 | .81 | |
| 9. 나는 나의 코치를 충실하며 코치와 오래도록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 .183 | .111 | .871 | .805 | 6.22 | .90 | |
| 7. 나는 코치와 함께 있을 때 나의 운동생활이 희망으로 가득찬 것을 느낀다. | .281 | .169 | .840 | .814 | 6.11 | 1.02 | .827 |
| 2. 나는 나의 코치와 가깝다고 느낀다. | .185 | .234 | .756 | .660 | 5.60 | 1.22 | |
| 고유치 | 2.632 | 2.541 | 2.333 | | | | |
| 공통분산(%) | 23.928 | 23.104 | 21.207 | | | | |
| 누적분산(%) | 23.928 | 47.032 | 68.240 | | | | |

KMO=.869

Bartlett $\chi^2=1571.657$, $df=55$, $p<.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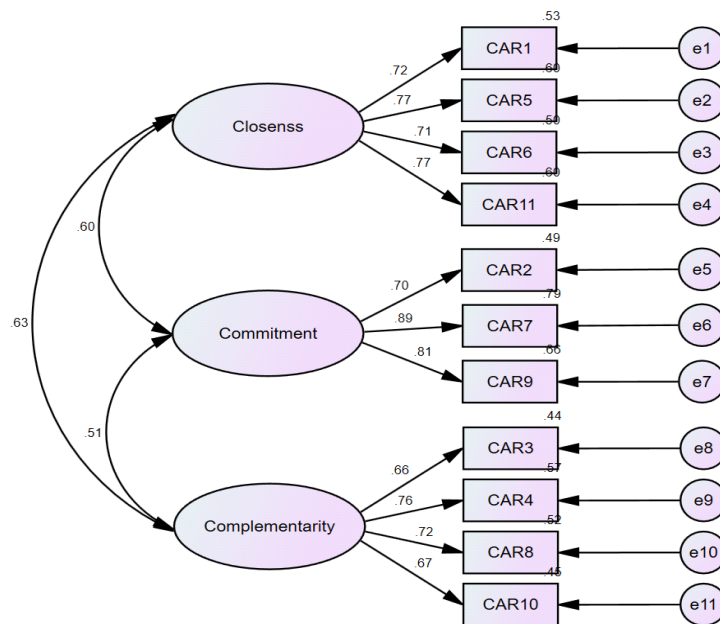


그림 IV-5. 코치-선수관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4) 관계유지전략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을 측정하기 위하여 엄창량(2021)이 개발한 코치-선수관계 유지 전략 질문지(Coach-Athlete Relationship Maintenance: CARM-Q)를 참고하여 12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질문지에는 운동열의, 의사소통 및 갈등관리와 관계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Likert 평정척도를 이용하여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먼저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의 구인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Varimax 직교회전 방식과 오블리민 사각회전 방식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이 3개로 추출되었지만 자신이 속한 요인 말고도 다른 두 요인에 무시하지 못할 적재치를 보여 기능적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항목들인 2, 4, 5, 6, 7, 8번 문항을 삭제해서 재차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6문항 1요인의 해를 구하였다(KMO 측도=.792, Bartlett의 구형성 점검, Approximate $\chi^2=621.307$, $df=15$, $p<.000$). 이 요인은 전체분산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1번과 3번 문항의 커뮤니티 값이 다소 낮지만, 문항손실을 고려하여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6문항으로 구성된 단일요인을 “관계유지전략”으로 명명하였다. Cronbach’s Alpha 값으로 평가한 신뢰도 계수는 .804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표 IV-5. 관계유지전략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 문항 | 요인 적재치 | 공통분 | M | SD | 신뢰도 |
|---|--------|------|-------|-------|------|
| 10. 나는 코치와 의견이 불일치할 때 참는 것을 선택하고 내 의견을 조절하는 쪽으로 협력한다. | .792 | .626 | 5.624 | 1.426 | .804 |
| 12. 나는 코치와 의견이 불일치할 때 코치의 의견을 존중하고 듣는다. | .772 | .596 | 6.060 | 1.075 | |
| 11. 나는 코치와 의견이 다를 때 코치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 .740 | .548 | 6.046 | 1.072 | |
| 9. 나는 코치와 의견이 불일치할 때 냉정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 .732 | .536 | 6.227 | 1.077 | |
| 1. 나는 코치에게 항상 치어리딩 훈련에 대한 열정을 보여준다. | .627 | .393 | 5.955 | 1.175 | |
| 3. 나는 코치에게 성공에 대한 열망을 보여준다. | .608 | .370 | 6.067 | 1.160 | |
| 고유치 | 3.069 | | | | |
| 공통분산(%) | 51.155 | | | | |
| 누적분산(%) | 51.155 | | | | |
| KMO=.792 Bartlett $\chi^2=621.307$, $df=15$, $p<.000$ | | | | | |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합도 지수가 기준치에 미달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를 점검한 결과 변수 1과 변수 3의 수정지수 값이

매우 높게 나타나 이 변수들의 상관을 허용하여 자유모수가 되도록 하고 재차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χ^2 값이 개선되면서 다른 적합도 지수들도 전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22.254$, $df=8$, $p<.004$, $Q=2.782$, $IFI=.977$, $TLI=.956$, $CFI=.977$, $RMSEA=.074$). 변수 1과 3은 운동열의에 해당하는 문항으로서 갈등관리와 관계된 4문항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코치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포함시켰고, 두 변수들의 상관을 허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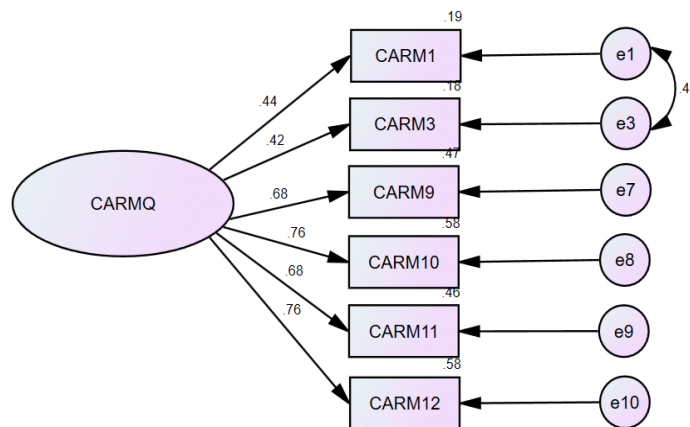


그림 IV-6. 관계유지전략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CARMQ: Coach-Athlete Relationship Maintenance Questionnaire

3) 연구절차

연구 2의 자료 수집은 2023년 2월 동안 중국 광둥성, 광시성, 지양쑤성, 산시성, 산둥성, 장시성, 쓰촨성, 후난성 지역 20곳의 국공립 대학교에 재학 중인 치어리딩 선수들 3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조사를 실시하기 전, 각 대학교의 치어리딩 전공 교수 및 코치에게 연구의 취지에 대한 사전 협조를 구했으며, 솔직한 응답을 얻기 위하여 치어리딩 선수들에게 응답 요령과 비밀보장에 대해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한 후, 최대한 진솔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독려했다. 설문조사는 Wechat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질문지로 이루어졌으며, 참여자들은 자기평가기입법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고 완성된 질문지는 즉시 컴퓨터에 자동 저장되었다. 배부된 질문지는 총 366부였으나 회수된 질문지 가운데 응답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36부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330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분석

연구 2에서 선정된 자료들은 SPSS 26.0과 Amos 24.0, SPSS PROCESS Macro V.4.2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치어리딩 선수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으며, 측정도구에 대한 구성개념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Pearson's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관계유지전략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Hayes(2013)의 SPSS PROCESS Macro를 이용하였다.

다섯째, 조절변인이 어떠한 조건에서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하기 위해 Daniel Soper의 Interactio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절변인의 특정 조건 값(평균±표준편차)을 대입하여 상호작용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76개의 모형 중 7번째 모형을 적용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사용하여 무선표본(10,000개)을 만들어 매개효과가 무선표본에 의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재확인 하였으며(Shrout & Bolger, 2002),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은 95%편의교정신뢰구간(bias-corrected bootstrap confidence interval)을 사용하였다(Hayes, 2013).

3. 연구결과

1) 전체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상관관계 분석 결과

회귀분석을 검증하기에 앞서 전체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량과 분포특성을 살펴보았다. 측정변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최소값, 최대값, 중앙값을 살펴본 결과, <표 IV-6>에서 제시된 것처럼 각 변인에 대한 최소값과 최대값은 통제적 코칭행동은 1.00~4.80점에서 평균값이 2.20, 표준편차는 .721로 나타났다. 친밀감은 3.75~7.00점에서 평균값이 6.32, 표준편차는 .718로 나타났으며, 헌신은 3.33~7.00점에서 평균값이 5.98, 표준편차는 .906로 나타났으며, 상보성은 3.50~7.00점에서 평균값이 6.24, 표준편차는 .717로 나타났다. 운동포기의도는 1.00~4.20점에서 평균값이 2.01, 표준편차는 .803로 나타났다. 관계유지전략은 3.17~7.00점에서 평균값이 5.99, 표준편차는 .832로 나타났다. 각 변인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모든 요인에서 왜도와 첨도 값이 절대값 2와 7이상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정규성에 위배되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 측정변수들의 기술통계량과 분포특성

| 측정변인 | 최소값 | 최대값 | M | SD | 왜도 | 첨도 |
|---------------|------|------|------|------|--------|-------|
| 통제적 코칭행동 | 1.00 | 4.80 | 2.20 | .721 | .864 | .658 |
| 코치-선수관계 (친밀감) | 3.75 | 7.00 | 6.32 | .718 | -1.020 | .570 |
| 코치-선수관계 (헌신) | 3.33 | 7.00 | 5.98 | .906 | -.730 | -.132 |
| 코치-선수관계 (상보성) | 3.50 | 7.00 | 6.24 | .717 | -.982 | .745 |
| 운동포기의도 | 1.00 | 4.20 | 2.01 | .803 | .416 | -.879 |
| 관계유지전략 | 3.17 | 7.00 | 5.99 | .832 | -.797 | .058 |

다음으로 각 요인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통제적 코칭행동, 코치-선수관계, 운동포기의도, 관계유지전략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결과는 <표 IV-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제적 코칭행동은 운동포기의도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밀감, 헌신, 상보성과도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치-선수관계(친밀감, 헌신, 상보성)는 운동포기의도와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계유지전략은 통제적 코칭행동과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측정변인들이 적절한 수준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조절된 매개분석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해석하였다.

표 IV-7.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 변인 | A | B | C | D | E | F |
|-------------|---------|---------|--------|--------|--------|---|
| 통제적 코칭행동(A) | 1 | | | | | |
| 운동포기의도(B) | .322** | 1 | | | | |
| 친밀감(C) | -.428** | -.408** | 1 | | | |
| 헌신(D) | -.161** | -.392** | .451** | 1 | | |
| 상보성(E) | -.195** | -.299** | .488** | .396** | 1 | |
| 관계유지전략(F) | -.049 | -.185** | .271** | .326** | .254** | 1 |

**p<.01

2) 통제적 코칭 행동, 코치-선수관계(친밀감, 헌신, 상보성) 및 운동포기의도의 관계에서 관계유지전략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1) 통제적 코칭과 운동포기의도 간의 관계에서 조절변수의 조절효과 검증

모형검증에 앞서 표본 집단의 정규성, 잔차항의 독립성, 다중공선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각 변수들의 정규성을 확인한 결과 모든 변수의 첨도와 왜도의 절대값이 1을 넘지 않았으며, 회귀표준화 잔차의 PP도표도 거의 직선적으로 나타나, 정규분포의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더빈왓슨 검증(Durbin-Watson test)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더빈왓슨 값이 1.829로 나타나 2에 가까운 값을 보임으로 잔차 독립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독립변수의 허용값(tolerance)과 분산확대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을 확인한 결과 운동포기의도에 대한 통제적 코칭과 코치-선수관계의 허용값은 .550~.812범위에 있고, 분산확대지수는 1.231~1.818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조절된 매개모형 검증에 앞서 Muller, Judd, & Yzerbyt(2005)가 제안한 통합모형 검증 첫 단계인 조절변인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직접경로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 PROCESS Macro의 모형 1을 통해서 조절 회귀모형을 검증하였다. 상호작용항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변수들에 대하여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를 진행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표 IV-8>과 같다.

<표 IV-8>바와 같이 통제적 코칭행동은 운동포기의도에 정(+의 영향을 주고 있다. 관계유지전략은 포기의도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으나, 통제적 코칭행동과 관계유지전략의 상호작용(조절효과)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통제적 코칭행동과 운동포기의도의 관계에서 조절변수인 관계유지전략의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조절된 매개분석의 가정을 충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V-8. 통제적 코칭행동과 운동포기 의도 간의 관계유지전략의 조절효과 검증결과

| 변수 | B | SE | t | P | LLCI | ULCI |
|---|--------|-------|--------|------|--------|--------|
| 종속변인: 운동포기 의도 R ² =.133, F(3,326)=16.603, P<.000 | | | | | | |
| 상수항 | 2.014 | .0414 | 48.615 | .000 | 1.932 | 2.095 |
| 통제적 코칭행동(예언변인) | .3453 | .0580 | 5.950 | .000 | .2311 | .4595 |
| 관계유지전략(조절변인) | -.1655 | .0500 | -3.309 | .000 | -.2639 | -.0671 |
| 통제적 코칭행동×관계유지전략 | -.0281 | .0709 | -.396 | .693 | -.1676 | .1115 |

(2) 통제적 코칭행동과 운동포기 의도의 관계에서 코치-선수관계의 매개효과 검증

첫째, 통제적 코칭행동 → 코치-선수관계(친밀감) → 운동포기 의도 간의 단순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9>과 <그림 IV-7>과 같다. 통제적 코칭행동은 친밀감에 유의한 부(-)의 영향(B=-.426, t=-8.58, p<.000)을 미치고, 운동포기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B=.200, t=3.264,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밀감은 운동포기 의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B=-.371, t=-6.04, p<.000)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밀감은 통제적 코칭행동과 운동포기 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158, Boot LLCI(.0933)~Boot ULCI(.2304)]. 따라서 통제적 코칭행동과 운동포기 의도 간의 관계는 친밀감에 의해서 부분매개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V-9. 통제적 코칭행동과 운동포기 의도에 대한 코치-선수관계(친밀감)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 총효과 | B | SE | t | LLCI | ULCI |
|---------------------------------|-------|---------|-----------|-----------|--------|
| 통제적 코칭행동→운동포기 의도 (직접효과+간접효과) | .358 | .058 | 6.150*** | .2433 | .4722 |
| 직접효과 | B | SE | t | LLCI | ULCI |
| 통제적 코칭행동→운동포기 의도 | .200 | .061 | 3.264*** | .0793 | .3199 |
| 통제적 코칭행동→친밀감 | -.426 | .050 | -8.581*** | -.5234 | -.3282 |
| 친밀감→운동포기 의도 | -.371 | .061 | -6.039*** | -.4924 | -.2504 |
| 간접효과 | B | Boot SE | Boot LLCI | Boot ULCI | |
| 친밀감 | .158 | .035 | .0933 | .2304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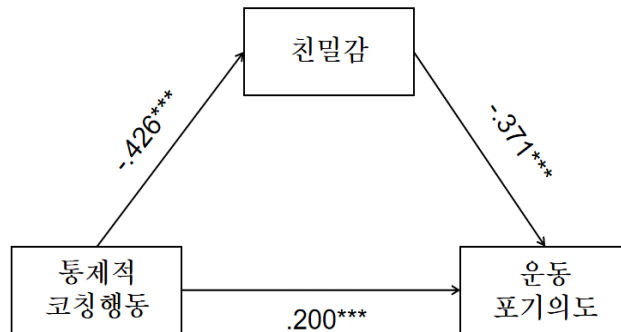


그림 IV-7. 통제적 코칭과 운동포기 의도의 관계에서 친밀감의 매개효과 도해결과

둘째, 통제적 코칭행동 → 코치-선수관계(헌신) → 운동포기의도 간의 단순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10>과 <그림 IV-8>과 같다. 통제적 코칭행동은 헌신에 유의한 부(-)의 영향($B=-.203, t=-2.955, p<.003$)을 미치고, 운동포기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B=.284, t=5.326, p<.000$)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헌신은 운동포기의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B=-.362, t=-8.540, p<.000$)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적 코칭행동과 운동포기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헌신의 간접효과는 편의교정신뢰구간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음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073, \text{Boot LLCI}(.0264) \sim \text{Boot ULCI}(.1254)$]. 따라서 통제적 코칭행동과 운동포기의도 간의 관계는 헌신에 의해서 부분 매개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V-10. 통제적 코칭행동과 운동포기의도에 대한 코치-선수관계(헌신)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 총효과 | B | SE | t | LLCI | ULCI |
|--------------------------------|-------|---------|-----------|-----------|--------|
| 통제적 코칭행동→운동포기의도 (직접효과+간접효과) | .358 | .058 | 6.150*** | .2433 | .4722 |
| 직접효과 | B | SE | t | LLCI | ULCI |
| 통제적 코칭행동→운동포기의도 | .284 | .053 | 5.326*** | .1793 | .3893 |
| 통제적 코칭행동→헌신 | -.203 | .069 | -2.955*** | -.3376 | -.0678 |
| 헌신→운동포기의도 | -.362 | .042 | -8.540*** | -.4457 | -.2788 |
| 간접효과 | B | Boot SE | Boot LLCI | Boot ULCI | |
| 헌신 | .073 | .025 | .0264 | .1254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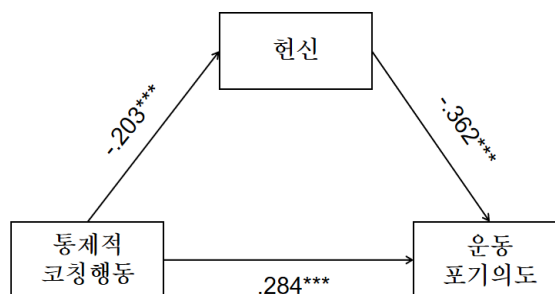


그림 IV-8. 통제적 코칭과 포기의도의 관계에서 헌신의 매개효과 도해결과

마지막으로 통제적 코칭행동 → 코치-선수관계(상보성) → 운동포기의도 간의 단순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11>과 <그림 IV-9>과 같다. 통제적 코칭행동은 상보성에 유의한 부(-)의 영향($B=-.193, t=-3.595, p<.000$)을 미치고, 운동포기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B=.296, t=5.216, p<.000$)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보성은 운동포기의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B=-.319, t=-5.577, p<.000$)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적 코칭행동과 운동포기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상보성의 간접효과는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B=.061, Boot LLCI(.0235)~Boot ULCI(.1054)]. 따라서 통제적 코칭 행동과 운동포기의도 간의 관계에서 상보성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 통제적 코칭행동과 운동포기의도에 대한 코치-선수관계(상보성)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 총효과 | B | SE | t | LLCI | ULCI |
|--------------------------------|-------|---------|-----------|-----------|--------|
| 통제적 코칭행동→운동포기의도 (직접효과+간접효과) | .358 | .058 | 6.150*** | .2433 | .4722 |
| 직접효과 | B | SE | t | LLCI | ULCI |
| 통제적 코칭행동→운동포기의도 | .296 | .057 | 5.216*** | .1844 | .4078 |
| 통제적 코칭행동→상보성 | -.193 | .054 | -3.595*** | -.2992 | -.0876 |
| 상보성→운동포기의도 | -.319 | .057 | -5.577*** | -.4312 | -.2063 |
| 간접효과 | B | Boot SE | Boot LLCI | Boot ULCI | |
| 상보성 | .061 | .021 | .0235 | .1054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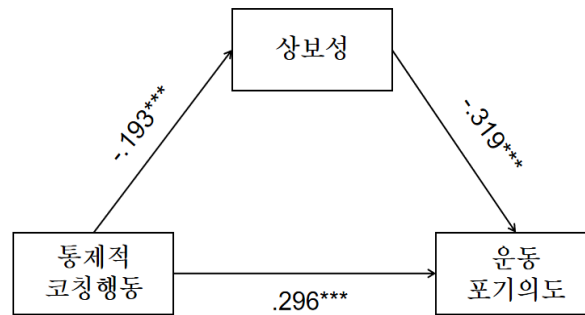


그림 IV-9. 통제적 코칭과 포기의도의 관계에서 상보성의 매개효과 도해결과

이러한 결과들은 연구 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통제적 코칭행동과 포기의도의 관계에서 매개변수인 코치-선수관계(친밀감, 헌신, 상보성)의 매개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통제적 코칭, 코치-선수관계(친밀성, 헌신, 상보성) 및 운동포기의도의 매개효과에 대한 관계유지전략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앞서 실시한 분석들에서 코치-선수관계(친밀감, 헌신, 상보성)는 통제적 코칭행동과 운동포기의도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통제적 코칭행동과 운동포기의도 간의 관계에서 나타난 코치-선수관계(친밀감, 헌신, 상보성)의 매개효과가 관계유지전략의 조건에 따라서 유의하게 조절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첫째, 통제적 코칭행동과 코치-선수관계(친밀감) 관계에서 관계유지전략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매개변인 모형에서 통제적 코칭행동은 친밀감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B=-.3982, p<.000$). 조절변인으로 투입한 관계유지전략은 친밀감에 정(+)
의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B=.2246, p<.000$), 통제적 코칭행동과 관계유지전략의 상호
작용(조절효과)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1348, p<.022$).

표 IV-12. 코치-선수관계(친밀감)를 경유한 통제적 코칭행동과 운동포기의도 간의 매개효과에 대한 관계유지전략의 조절효과 검증결과

| 변수 | B | SE | Boot SE | t(P) | 95% CI | 95% BC CI |
|---|--------|-------|---------|-------------|-----------------|---------------------|
| | | | | | LLCI-ULCI | Boot LLCI-Boot ULCI |
| 매개변인모형(종속변인: 친밀감), $R^2=.2582, F(3, 326)=37.8192, P<.000$ | | | | | | |
| 상수항 | 6.3236 | .0342 | | 184.7237*** | 6.2563 ~ 6.3910 | |
| 통제적 코칭행동(독립변인) | -.3982 | .0480 | | -8.3020*** | -.4925 ~ -.3038 | |
| 관계유지전략(조절변인) | .2246 | .0413 | | 5.4331*** | .1433 ~ .3059 | |
| 통제적 코칭×관계유지전략 | .1348 | .0586 | | 2.2996* | .0195 ~ .2501 | |
| 관계유지전략 수준에 따른 통제적 코칭의 조건부 효과 | | | | | | |
| -1SD(-.8325) | -.5104 | .0635 | | -8.0414*** | -.6353 ~ -.3855 | |
| Mean(.0000) | -.3982 | .0480 | | -8.3020*** | -.4925 ~ -.3038 | |
| +1SD(.8325) | -.2859 | .0730 | | -3.9145*** | -.4296 ~ -.1422 | |
| 종속변인모형(종속변인: 포기의도), $R^2=.1934, F(2,327)=39.1922, P<.000$ | | | | | | |
| 상수항 | 4.3618 | .3907 | | 11.1647*** | 3.5933 ~ 5.1304 | |
| 통제적 코칭행동(예언변인) | .1996 | .0612 | | 3.2640** | .0793 ~ .3199 | |
| 친밀감(매개변인) | -.3714 | .0615 | | -6.0397*** | -.4924 ~ -.2504 | |
| 관계유지전략 수준에서 조건부 간접효과 | | | | | | |
| -1SD(-.8325) | .1896 | .0437 | | | | .1063 ~ .2788 |
| Mean(.0000) | .1479 | .0321 | | | | .0889 ~ .2134 |
| +1SD(.8325) | .1062 | .0300 | | | | .0538 ~ .1705 |
|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 | -.0501 | .0233 | | | | -.0950 ~ -.0026 |

†LLCI(Low Limit of Confidence Interval신뢰구간 하한계), ULCI(Upper Limit of Confidence Interval 신뢰구간 상한계)

상호작용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Daniel Soper의 Interaction 프로그램을 통한 단순 기울기 검증을 실시하였다. 조절변인의 특정 조건값(평균값±1 표준편차)을 대입하여 상호작용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래프로 제시한 결과가<그림 IV-10>이다. <그림 IV-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1SD($B=-.5104, t=-8.0414, p<.000$) 조건과 평균값 조건($B=-.3982, t=-8.3020, p<.000$), +1SD조건($B=-.2859, t=-3.9145, p<.000$)에서의 단순기울기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속변인 모형에서 예언변인인 통제적 코칭은 운동포기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1996, p<.001$), 매개변인인 친밀감은 운동포기의도에 유의
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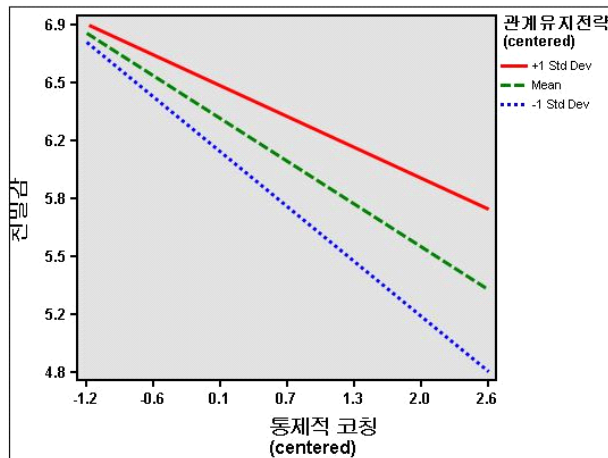


그림 IV-10. 관계유지전략 수준에 따른 조절효과의 단순기울기 검증

한편 조절된 매개효과, 즉 통제적 코칭행동이 친밀감을 경유하여 운동포기의도에 미치는 조건부 간접효과를 관계유지전략의 세 가지 수준에 따라서 검토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여 조건부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는 <표 IV-12>의 하단부에 있다. 관계유지전략이 높아질수록 조건부 간접효과의 크기가 .1896, .1479, .1062로 감소되고 있다. 즉, 통제적 코칭행동이 높은 경우(+1SD)의 간접효과(.1062)와 평균일 경우의 간접효과(.1497), 낮은 경우(-1SD)의 간접효과(.1896)는 모두 편의교정신뢰구간의 상한값과 하한값의 범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조절변인의 수준에 따라서 통제적 코칭행동이 친밀감에 미치는 효과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통제적 코칭행동이 증가할수록 하위집단(-1SD)의 친밀감이 가장 감소하고 그 다음 평균집단, 상위집단(+1SD)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위집단에서의 친밀감 감소가 가장 높고, 상위집단으로 갈수록 친밀감 감소 효과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조절변수인 관계유지전략이 통제적 코칭 → 친밀감 → 운동포기의도의 간접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수량화한 값인 조절된 매개지수(index of moderated mediation)는 -.0501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95%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은 -.0950~-.0026이며,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으로 조건부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IV-11>는 조절된 매개모형에 대한 통계모형을 나타낸다. 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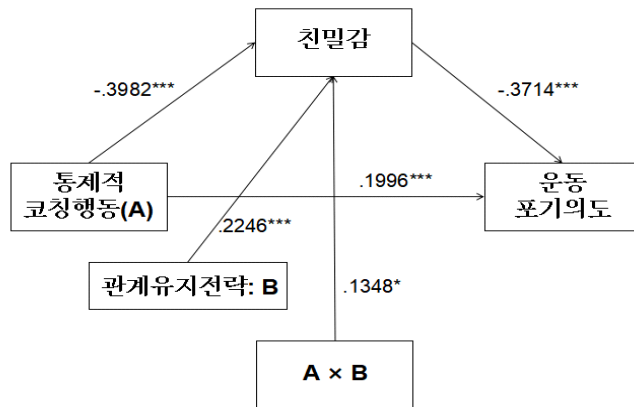


그림 IV-11. 통제적 코칭행동, 친밀감과 운동포기의도의 관계에서 관계유지전략의 조절된 매개효과

둘째, 통제적 코칭행동과 코치-선수관계(헌신) 관계에서 관계유지전략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IV-13>과 <그림 IV-12>바와 같이 통제적 코칭행동은 코치-선수관계(헌신)에 부(-)의 영향을 주고 있고($B=-.1732, p<.009$), 포기의도에 정(+)의 영향을 주고 있다($B=.2843, p<.000$). 관계유지전략은 코치-선수관계(헌신)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으나($B=.3534, p<.000$), 통제적 코칭행동과 관계유지전략의 상호작용효과($B=.0865, p>.282$)와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가(95% BC CI= $-.0923 \sim .0244$)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조절변수인 관계유지전략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연구 가설 2는 기각되었다.

표 IV-13. 코치-선수관계(헌신)를 경유한 통제적 코칭행동과 운동포기의도 간의 매개효과에 대한 관계유지전략의 조절효과 검증결과

| 변수 | B | SE | Boot SE | t(P) | 95% CI | |
|---|--------|-------|---------|-------------|-----------------|----------------------------------|
| | | | | | LLCI-ULCI | 95% BC CI Boot LLCI-Boot ULCI |
| 매개변인모형(중속변인: 헌신), $R^2=.1305, F(3, 326)=16.3146, P<.000$ | | | | | | |
| 상수항 | 5.9833 | .0469 | | 127.5603*** | 5.8911 ~ 6.0756 | |
| 통제적 코칭행동(독립변인) | -.1732 | .0657 | | -2.6352** | -.3025 ~ -.0439 | |
| 관계유지전략(조절변인) | .3534 | .0566 | | 6.2393*** | .2420 ~ .4648 | |
| 통제적 코칭×관계유지전략 | .0865 | .0803 | | 1.0767 | -.0715 ~ .2445 | |
| 중속변인모형(중속변인: 포기의도), $R^2=.2669, F(2,327)=59.5208, P<.000$ | | | | | | |
| 상수항 | 4.1810 | .2565 | | 16.2998*** | 3.6764 ~ 4.6856 | |
| 통제적 코칭행동(예언변인) | .2843 | .0534 | | 5.3264*** | .1793 ~ .3893 | |
| 헌신(매개변인) | -.3622 | .0424 | | -8.5400*** | -.4457 ~ -.2788 | |
| 관계유지전략 수준에서 조건부 간접효과 | | | | | | |
| -1SD(-.8325) | .0888 | | .0346 | | | .0260 ~ .1628 |
| Mean(.0000) | .0627 | | .0232 | | | .0202 ~ .1114 |
| +1SD(.8325) | .0366 | | .0328 | | | -.0267 ~ .1027 |
|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 | -.0313 | | .0294 | | | -.0923 ~ .0244 |

†LLCI(Low Limit of Confidence Interval 신뢰구간 하한계), ULCI(Upper Limit of Confidence Interval 신뢰구간 상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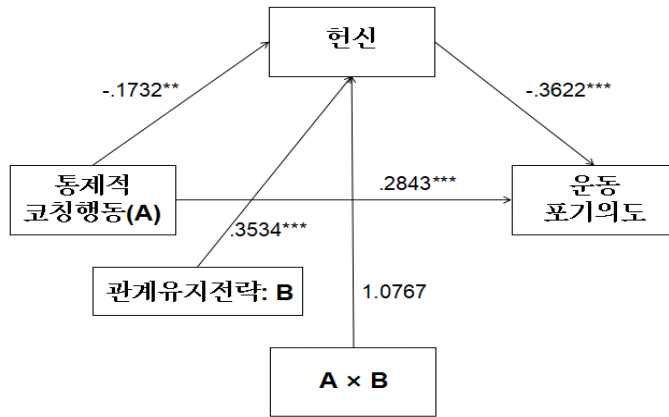


그림 IV-12. 통제적 코칭행동, 헌신과 운동포기의도의 관계에서 관계유지전략의 조절된 매개효과

마지막으로 상보성의 경우를 살펴보면, 통제적 코칭행동과 상보성 관계에서 관계유지 전략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IV-14>과 <그림 IV-13>과 같이 통제적 코칭 행동은 상보성에 부(-)의 영향을 주고 있고($B=-.1842, p<.001$), 포기의도에 정(+)의 영향을 주고 있다($B=.2961, p<.000$). 관계유지전략은 상보성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B=.2096, p<.000$). 그러나 통제적 코칭행동과 관계유지전략의 상호작용효과 ($B=-.0234, p>.718$)와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95%BC CI=-.0311~.0454)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조절변수인 관계유지전략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가설 3은 기각되었다.

표 IV-14. 코치-선수관계(상보성)를 경유한 통제적 코칭행동과 운동포기의도 간의 매개효과에 대한 관계유지전략의 조절효과 검증결과

| 변수 | B | SE | Boot SE | t(P) | 95% CI | |
|--|--------|-------|---------|-------------|-----------------|----------------------------------|
| | | | | | LLCI-ULCI | 95% BC CI Boot LLCI-Boot ULCI |
| 매개변인모형(종속변인: 상보성), $R^2=.0982, F(3, 326)=11.8282, P<.000$ | | | | | | |
| 상수항 | 6.2433 | .0377 | | 165.6064*** | 6.1691 ~ 6.3174 | |
| 통제적 코칭행동(독립변인) | -.1842 | .0528 | | -3.4867*** | -.2881 ~ -.0803 | |
| 관계유지전략(조절변인) | .2096 | .0455 | | 4.6039*** | .1200 ~ .2991 | |
| 통제적 코칭×관계유지전략 | -.0234 | .0646 | | -.3618 | -.1504 ~ .1036 | |
| 종속변인모형(종속변인: 포기의도), $R^2=.1813, F(2, 327)=36.1957, P<.000$ | | | | | | |
| 상수항 | 4.0048 | .3591 | | 11.1522*** | 3.2983 ~ 4.7112 | |
| 통제적 코칭행동(예언변인) | .2961 | .0568 | | 5.2165*** | .1844 ~ .4078 | |
| 상보성(매개변인) | -.3187 | .0572 | | -5.5771*** | -.4312 ~ -.2063 | |
| 관계유지전략 수준에서 조건부 간접효과 | | | | | | |
| -1SD(-.8325) | .0525 | | .0253 | | .0077 ~ .1061 | |
| Mean(.0000) | .0587 | | .0211 | | .0213 ~ .1034 | |
| +1SD(.8325) | .0649 | | .0276 | | .0147 ~ .1240 | |
|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 | .0074 | | .0191 | | -.0311 ~ .0454 | |

†LLCI(Low Limit of Confidence Interval 신뢰구간 하한계), ULCI(Upper Limit of Confidence Interval 신뢰구간 상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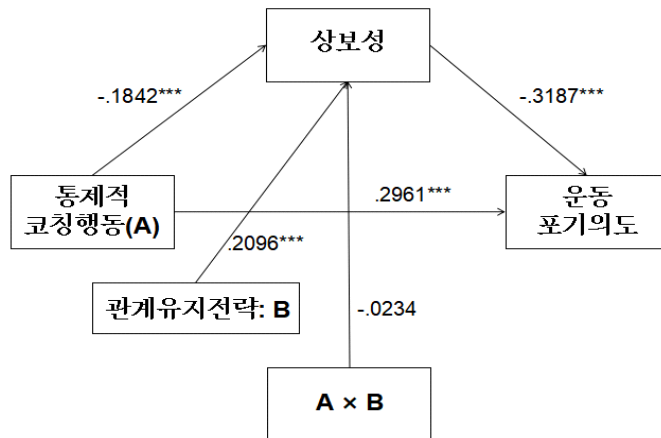


그림 IV-13. 통제적 코칭행동, 상보성과 운동포기의도의 관계에서 관계유지전략의 조절된 매개효과

상술한 결과들을 요약하면 알 수 있듯이 관계유지전략은 중국 대학생 치어리딩 선수들이 지각한 통제적 코칭행동과 코치-선수관계(친밀감), 포기의도의 관계에서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관계유지전략 조절변수의 수준에 따라서 매개효과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관계유지전략의 수준이 높을수록 친밀감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치어리딩 선수의 코치-선수관계(친밀감)를 경유하여 통제적 코칭행동이 운동포기의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관계유지전략의 수준에 따라서 변화된다는 조건부 간접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통제적 코칭행동과 관계유지전략의 상호작용은 운동포기의도를 완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치어리딩 선수가 지각한 통제적 코칭행동이 높더라도 통제적 코칭행동과 관계유지전략의 상호작용을 통해 운동포기의도를 완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4. 논의

스포츠 맥락에서 코치의 행동과 대인관계 방식은 선수의 수행뿐만 아니라 스포츠참여로부터 파생되는 심리적 경험을 조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코칭행동은 선수들의 운동참여지속과 포기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연구 2의 목적은 치어리딩 선수들이 지각한 통제적 코칭행동과 운동포기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코치-선수관계의 간접효과가 관계유지전략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조건부 간접효과가 있는지를 구명하여 치어리딩 선수들의 운동포기의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먼저 통제적 코칭과 운동포기의도 간의 관계에서 코치-선수관계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구 1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통제적 코칭행동과 운동포기의도의 관계에서 코치-선수관계(친밀감, 헌신, 상보성)의 매개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선수들이 지각한 통제적 코칭행동이 높을수록 코치-선수관계(친밀감, 헌신, 상보성)의 수준이 낮고 운동포기의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통제적 코칭행동과 코치-선수관계(친밀감, 헌신, 상보성) 및 운동포기의도 간의 관계에서 나타난 매개효과가 관계유지전략에 의해서 조절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 통제적 코칭행동과 코치-선수관계(헌신, 상보성) 및 운동포기의도 간의 관계에서 관계유지전략은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이 유의하지 않았지만, 관계유지전략은 통제적 코칭행동과 친밀감 및 운동포기의도의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통제적 코칭을 받고 있는 치어리딩 선수들에게 있어서 관계유지전략은 코치-선수관계의 친밀감을 조절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즉, 치어리딩 선수들의 관계유지전략이 높을수록 훈련이나 경기를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지각한 통제적 코칭행동으로 인해 유발된 낮은 친밀감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함으로써 운동포기의도가 더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포츠심리학 분야에서 관계유지전략의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고 관련 선행 문헌의 부족으로 인하여 대론과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지만 통제적 코칭행동과 포기의도, 통제적 코칭과 코치-선수관계, 코치-선수관계와 운동포기의도의 관계, 관계유지전략과 코치-선수관계, 관계유지전략과 탈진 또는 부정적 의도 간의 관계 등에서 보여준 간접적인 증거를 통하여 관계유지전략의 중요성과 인과성을 입증

하였다. 많은 연구들(이경현, 장세용, 2019; 한연숙, 허진영, 2018)은 통제적 코칭행동이 중도포기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김윤만(2020)의 연구에서는 선수들이 지각한 통제적 코칭행동이 실패내성과 중도포기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통제적 코칭행동과 코치-선수관계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를 살펴본 결과 허진영 등(2017)은 프로축구 선수를 대상으로 한 코칭행동과 팀 효능감의 관계에서 통제적 코칭행동은 코치-선수관계 유지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통제적 코칭행동과 팀 효능감의 관계에서 코치-선수관계 유지는 부(-)적인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Wekesser et al.(2021)은 코치의 행동과 젊은 운동선수의 운동참여의도 간의 관계에서 자율성 지지 행동은 코치-선수관계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젊은 선수들의 지속참여의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관계유지전략과 코치-선수관계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관계유지전략과 관계의 질, 정서, 인지 및 행동 요인과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anary & Stafford, 1992; Ogolsky & Bowers, 2013, Rhind et al., 2011). Rhind et al.(2010)의 연구에 따르면 선수와 코치가 채택한 관계유지전략은 코치-선수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개방성과 사교성은 친밀감을 촉진하고, 동기유발과 지원은 헌신을 촉진하며, 개방성은 상보성을 촉진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Fan et al.(2022)의 연구에 따르면 코치와의 관계를 복원하고, 안정화 또는 개선하기 위해서 선수가 채택한 관계유지전략은 긍정적인 상호작용효과를 유발하였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감독과 선수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관계유지전략을 잘 활용하는 선수가 코치와 선수 간의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였고, 기본적 심리욕구 충족 수준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운동선수 탈진 위험이 낮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현혁, 정구인(2020)의 연구에서도 선수가 코치와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으면 관계유지전략을 통해 높은 수준의 관계를 구축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고양함으로써 운동선수 탈진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관계유지전략과 의도 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임정숙, 전주상(2021)은 준정부 조직구성원들의 이직의도 감소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갈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갈등관리전략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조직 구성원들의 갈등은 이직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갈등관리전략 중에서 통합 갈등대응전략이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Rhind et al.(2011)은

갈등관리전략 및 열의전략은 자신과 코치의 기대를 명확히 하고 코치와 계속 협력하려는 선수들의 의도를 반영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코치가 의사소통을 통해 갈등을 관리하는 것도 선수들의 운동지속의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김동문, 조선희, 2022).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본 연구의 관계유지전략의 조절된 매개효과의 인과성은 간접적으로 지지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하게 해석해야 할 점은 통제적 코칭행동과 운동포기의도 관계에서 코치-선수관계의 친밀감의 매개효과가 관계유지전략의 수준에 따라 조절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코치-선수관계의 친밀감이 통제적 코칭행동과 운동포기의도 간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나타난 이유는 연구 1에서 언급하였듯이 코치-선수관계의 친밀감은 주로 정서적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설명되었으며, 좋아함, 신뢰, 존중, 친밀 등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선행연구(焉石, 糾延紅, 楊俊, 2012)에 따르면 코치와 선수 간에는 반드시 상호 신뢰의 바탕 위에서 서로 협력해야 하고 각종 어려움과 갈등을 극복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치어리딩은 공중에서 동작을 하는 등의 위험요소가 많음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다른 스포츠 선수들에 비해 코치와 더 높은 신뢰관계 형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장기간의 훈련 동안 긍정적인 정서는 운동선수가 높은 수준의 동기를 유지하고 포기의도를 줄이는 데 필수적인 심리적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符明秋, 龔高昌, 2006)을 고려한다면, 코치-선수관계 친밀감의 긍정적인 정서는 치어리딩 선수들에게 매우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다. 치어리딩은 댄스, 열정, 연기, 난이도를 조화롭게 발현해야한다는 특징과 특유의 팀워크라는 독특한 문화적 특성이 있고, 다른 종목에 비해 더 열정적이고 감정 감화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심판들은 선수들이 보여준 긍정적인 정신 상태와 정서의 감화력을 보고 예술적 표현력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스포츠현장에 감정 경험이 있는 감정노동자인 치어리더(김인형, 김한범, 박승일, 2020)에게 정서의 안정성과 높은 수준의 긍정적인 정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치어리딩 현장에서 코치-선수관계의 친밀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치어리딩 현장에서 긍정적인 정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관계촉진전략으로 유용한 조절변인인 운동선수의 관계유지전략은 통제적 코칭행동이 코치-선수관계의 친밀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운동선수의 포기의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통제적 코칭행동과 코치-선수관계의 친밀감, 운동포기의도의 매개모형을 검증한 후에, 이 매개효과가 관계유지전략 수준에 따라서 조건부 조절효과가 의미 있는지 여부를 검증한 결과, 통제적 코칭행동과 운동포기의도의 관계를 매개하는 친밀감의 중재효과를 관계유지전략의 수준에 따라서 유의하게 조절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관계유지전략은 스포츠에 참여하는 선수들의 코치-선수관계 수준을 높이고 운동포기의도를 줄이며 운동수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수로 평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V. 종합논의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은 개인의 동기와 동기의 선행변인 그리고 결과변인 간의 관계를 구명하는데 널리 알려진 거대 동기이론인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 기반하였다. 자기결정성 이론은 코치의 행동이 두 개의 대인관계방식, 즉 자율성 지지와 통제적 방식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양명환, 2015; Ryan & Deci, 2002). 자율성 지지방식은 자기 주도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의지력, 선택 및 자기 책임의식을 경험할 수 있는 조건들을 조성해 주는 사회적 환경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자율적 코칭행동이라고 조작적인 정의를 하였다. 스포츠심리학 문헌에서 자기결정성 이론에 입각하여 수행된 연구들은 자율성 지지 코칭행동(논리적 근거 제공과 함께 선수들의 감정이해와 과 공감형성)이 자기 결정성이 높은 동기, 즉 자율적 동기(autonomous motivation)와 상관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양명환, 2011; 김기형, 박중길, 2009, 박중길 등, 2013; Pelletier et al., 2001). 반면, 통제적 코칭행동을 보이는 코치들은 구체적이고 사전에 계획한 훈련방식을 주입하기 위하여 강압적이고 위압적이며 권위적 방식으로 행동하고 선수들도 코치와 동일하게 행동하도록 강요한다(양명환, 2015 재인용). 따라서 코치가 부과하는 외적 압력이 선수들 자신의 행동의 시발점이 되도록 만들며, 더 나아가 통제적 코칭행동은 선수들의 인과성 소재 지각을 내적에서 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통제 손실은 선수들의 심리적 욕구와 자기결정의식을 저해하고 통제적 동기에 의해 행동하도록 유도한다(양명환, 2015; Blanchard et al., 2009).

무엇보다도 스포츠 환경에서 신체적 탁월성에 대한 경쟁의 속성은 승부지향적인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는데, 대학생 운동선수들은 오랜 시간동안 반복적인 전문화 훈련과 학업성취를 동시에 추구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되는 탈진과 중도포기의도를 쉽게 경험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운동지속의도와 포기의도가 증가되는 원인이나 사회적 행동의 예측요인, 운동선수의 포기의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진행되고는 있지만 이러한 행동의 기저에 있는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들이 아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포츠심리학의 관점에서 자기결정 이론과 3C 모델에 기반하여 치어리딩 선수들을 대상으로 일련의 2편의 연구를 통해 치어리딩 선수가 지각하는 코칭 행동이 운동지속의도와 운동포기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 코치-선수관계의 매개효과에서 관계유지전략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1의 결과를 해석하여 보면, 통제적 코칭행동과 운동지속의도나 포기의도의 관계에서 코치-선수관계의 친밀감, 헌신, 상보성이 의미있는 매개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율적 코칭행동과 운동지속의도의 관계에서는 코치-선수관계의 친밀감, 헌신, 상보성이 유의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율적 코칭행동과 운동포기의도의 관계에서 상보성은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율적 코칭행동과 포기의도의 관계는 친밀감이나 헌신의 수준이 낮을 때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늘이 주는 좋은 시기는 지리적 이점만 못하고 지리적 이점은 인간의 화합만 못하다(天時不如地利, 地利不如人和)는 대인간 관계의 중요성을 시사한 맹자의 성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포츠 상황에서 좋은 코치와 선수의 관계는 선수의 자아정체성, 자존감 등 성격 발달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운동 동기(Boiché, & Sarrazin, 2009; Riley & Smith, 2011), 심리적 욕구 만족도(Felton, & Jowett, 2013), 일상적인 훈련 효과 및 현장 경기 수행(Jowett, 2007)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 2에서는 통제적 코칭행동과 운동포기의도의 관계에서 코치-선수관계의 매개효과를 재검증하고, 이 매개효과가 관계유지전략의 수준에 따라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분석한 결과, 통제적 코칭행동과 운동포기의도의 관계에서 친밀감의 유의한 매개효과가 관계유지전략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통제적 코칭행동과 운동포기의도를 연결하는 메커니즘은 조건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관계유지전략은 높은 수준의 코치와 선수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통제적 코칭행동과 코치-선수관계 및 운동포기의도를 조절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다. 이러한 결과는 치어리딩 분야의 이론과 실천에 새로운 기여를 할 수 있는 지평을 확장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코칭행동(자율적 코칭행동, 통제적 코칭행동) → 코치-선수관계 → 운동지속의도 및 운동포기의도의 인과관계를 순차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코치

와 선수 관계의 중요성을 검증하였다. 특히 인간관계의 역동적인 변화의 특징에 근거하여 스포츠 현장에서 나타나는 통제적 코칭행동과 코치-선수관계, 운동포기의도에서 관계유지전략이 미치는 의미있는 영향력을 확인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에 치어리딩 코치들이 운동 훈련 및 관리 과정에서 대학생 선수의 자율성 관점을 고려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본다. 선수들에게 의견 및 의사 결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를 보장해야 하고 선수들의 기본적 심리욕구를 충족시키고 좋은 관계를 촉진하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관계의 가변성에 대한 신념체계를 증진하여, 선수들의 관계유지전략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고, 코치의 코칭행동과 서로의 관계에 대한 선수들의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하고, 선수들의 갈등관리 수준과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본다. 이를 통해 스포츠 현장에서 갈등의 원인이나 치어리딩 선수가 겪게 되는 부적응적인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코치-선수관계를 이상적인 상태로 발전시키고 치어리딩 선수들의 운동포기의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2편의 연구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들이 도출되었지만 몇 가지의 제한점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추후 연구과제에 대한 제언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 측면에서 보면 본 연구의 대상은 치어리딩이라는 특정 종목의 선수들로만 구성되었다. 운동 종목의 특성에 따라 선수가 코치의 코칭행동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에 여러 가지 종목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재현하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스텐트 치어리딩 선수들은 고난도와 위험한 동작으로 인해 자율적 코칭행동보다 코치의 통제적 코칭행동을 더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코치의 통제적 코칭행동은 운동선수들에게 코치가 자신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동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엄격하고 통제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댄스 치어리딩은 창조적이고 개성적인 특성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자율적 코칭행동이 더 필요할 것이다.

둘째, 연구 도구 측면에서 보면, 본 연구는 운동선수의 시각에서 코치-선수관계 변수를 조작하였다. 이는 자료 획득과 분석을 편리하게 하지만 코치-선수의 상호작용을 반영하지 못해 선수와 코치의 교차 영향을 분석할 수 없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선수 시각과 코치 시각을 동시에 측정하도록 함으로써 코치와 선수 간의 관계 영향을 설

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연구 내용 측면에서 보면, 본 연구는 관계유지전략만을 조절변수로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코칭유형과 관계유지전략이라는 막연한 전략보다는 갈등관리전략, 의사소통전략, 운동열의전략 등의 요인들을 추가하여 코칭유형과 운동포기의도의 관계를 매개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코칭유형을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등의 리더십 코칭스타일 및 운동선수의 귀인과 인지방식을 활용하여 코치-선수관계와 운동포기의도의 관계를 구명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이러한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변수를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코칭행동과 운동행동 및 코치-선수의 상호작용에 대한 인과관계를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연구 방법 측면에서 본 연구 1과 2는 모두 횡단적 설계에 의한 양적연구이기 때문에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코치-선수관계의 역동적인 변화를 고려할 때 향후에 종단적 연구기법을 활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여러 시점을 선택하여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의 교차 및 전후 비교 분석을 통해 인과 추론의 정확도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본다. 또한 향후의 연구에서는 양적연구의 실험설계와 질적연구의 심층면담방식을 결합한 통합적인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운동지속의도와 포기의도를 예측하는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구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연구변인들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선회도(social desirability)효과와 방어적인 응답과 같은 반응성향의 고정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관찰, 면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인을 측정하면, 객관적인 지표를 확보할 수 있으며, 공통의 측정방법 사용에 따른 변인 간 관계의 과대평가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VI. 결론

본 연구 1의 목적은 치어리딩 선수들이 지각한 코칭행동과 운동행동의도 간의 관계에서 코치-선수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이 코치-선수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연구 2의 목적은 통제적 코칭행동과 운동포기의도의 관계에서 코치-선수관계의 매개효과가 관계유지전략에 의해서 상이하게 조절되는지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1의 대상자는 중국 동부 5곳 지역에 소재한 20개 대학교의 치어리딩 선수 440명이었으며, 연구 2의 대상자는 중국 남부 8곳 지역에 소재한 20개 대학교의 치어리딩 선수 330명이었다. 표적변수에 대한 표준화된 질문지 조사를 거쳐 얻은 자료들은 SPSS 26.0, AMOS 24.0, PROCESS Macro(V.4.2) 프로그램을 통해 통계처리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치어리딩 선수들이 지각한 자율적 코칭행동은 매개변인(친밀감, 헌신, 상보성)을 경유하여 운동지속의도에 유의한 정(+)의 간접영향을 미쳤으며, 자율적 코칭행동은 친밀감, 헌신을 경유하여 운동포기의도에도 유의한 부(-)의 간접영향을 미쳤다.

둘째, 치어리딩 선수들이 지각한 통제적 코칭행동은 매개변인(친밀감, 헌신, 상보성)을 경유하여 운동지속의도에 유의한 정(+)의 간접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친밀감, 헌신 및 상보성을 경유하여 운동포기의도에도 유의한 정(+)의 간접영향을 미쳤다.

셋째, 치어리딩 선수들이 지각한 통제적 코칭행동 → 친밀감 → 운동포기의도 간의 매개효과는 관계유지전략 수준에 따라서 상이한 조절효과가 있었다. 즉, 통제적 코칭행동이 친밀감을 경유하여 운동포기의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관계유지전략의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통제적 코칭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운동포기의도를 완화시키거나 조절할 수 있는 관계유지전략의 효과를 입증하였다. 즉, 긍정적인 코치-선수관계를 촉진시키고 부정적인 코치-선수관계를 완화시키는 조절변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참고문헌

- 강상길(2017). **중·고등학교 골프선수들의 자기관리행동이 스트레스 대처 및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강신녀, 류태호(2013).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삶과 교육. **한국체육학회지**, 52(4), 201-216.
- 강신녀, 정태겸, 전정우(2015). 고등학교 태권도선수의 지각된 코치-선수관계유지가 기본 심리욕구 및 운동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54(1), 211-226.
- 권태원, 최영철(2010). 대학 교양체육 참가자의 내적동기와 외적동기, 여가만족, 운동지속의사의 구조적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19(3), 203-215.
- 권현진(2006). **중학생의 단짝 친구관계에서의 유지 전략과 만족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기동, 강현우, 문원재, 정광채, 양대승(2018). 대학 태권도 선수가 지각하는 통제적 코칭행동과 중도포기의도의 관계에서 그릿(Grit)의 매개효과. **한국체육과학회지**, 27(6), 217-227.
- 김기형, 박중길(2008). 한국판 코치-운동선수 관계 척도의 구조적 타당화. **한국체육학회지**, 47(6), 219-233.
- 김기형, 박중길(2009). 대학 운동선수의 지각된 자율성 지지와 기본욕구 및 동기적 성향간의 구조모형 검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0(3), 33-48.
- 김덕진(2013). 체육수업에서 지각된 교수행동과 운동열정의 관계에서 성취목표성향의 매개효과. **코칭능력개발지**, 15(1), 3-13.
- 김덕진(2015). 청소년 태권도선수가 지각하는 코치-선수관계와 탈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대한무도학회지**, 17(2), 61-75.
- 김동문, 조선령(2022).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코치-선수관계와 운동선수 탈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역할. **한국체육과학회지**, 31(4), 277-288.
- 김병문(2010). 변혁적 리더십의 스포츠 분야에의 적용: 히딩크 감독의 사례를 중심으로. **스포츠와 법**, 13(1), 11-37.

- 김보라(2014). **학교스포츠클럽 현황분석을 통한 치어리딩의 활성화 방안**.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대학원.
- 김선욱(2020). **운동선수의 성취목표성향과 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동기, 도덕적 이탈, 코칭유형의 다중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검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 김선욱, 오영택, 부남철, 양명환(2016). 코칭 방식이 태권도 선수들의 친사회적,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도덕적 이탈의 다중매개효과 검증. **대한무도학회지**, 18(2), 41-62.
- 김순영, 박상혁(2015). 운동선수들이 경험하는 코치들의 자율 및 통제적 코칭행동 척도 개발. **코칭능력개발지**, 17(4), 63-72.
- 김윤만(2020). 빙상선수들이 지각한 통제적 코칭행동, 실패내성 및 중도포기의도의 관계. **한국발육발달학회지**, 28(2), 155-162.
- 김은규(2019). **중학생의 자유학기제 치어리딩 활동 참여 경험과 의미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인형, 김한범, 박승일(2020). 프로스포츠 현장의 감정노동자: 여성 치어리더의 노동환경과 감정노동 경험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59(1), 57-70.
- 김중훈(2015). **통합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치어리딩 프로그램 개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문화기술대학원.
- 김중훈(2017). 치어리딩의 올림픽 잠정종목 채택과 관련하여 한국 치어리딩 기술의 방향성. **디지털예술공학멀티미디어논문지**, 4(2), 59-78.
- 김주희(2019). **스턴트 치어리딩 선수들 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태범(2016). **치어리딩 종목 간 비교·분석을 통한 공연 콘텐츠로서의 활용방안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문화기술대학원.
- 김현주, 김덕진(2020). 지도자의 코칭행동과 대학무용수의 운동열의 및 운동탈진의 관계: 심리욕구의 매개효과. **코칭능력개발지**, 22(2), 63-73.
- 남광우(2016). 대학축구선수가 지각한 코치의 코칭행동이 집단응집력에 미치는 영향 코치-선수관계의 매개효과. **코칭능력개발지**, 18(2), 107-116.
- 마해영(2014). **프로야구 선수가 지각한 자율성 지지와 운동수행 만족의 관계에서 코**

- 치-선수관계와 집단 효능감의 매개효과.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박동훈, 양명환(2020). 감독선수들이 지각한 코칭유형과 운동지속, 중단의도 간의 관계에서 팀 응집력의 매개효과 검증. **체육과학연구**, 26, 19-28.
- 박병훈(2011). 운동선수들이 지각하는 코치-선수관계와 자기조절동기 및 운동만족의 구조적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50(6), 197-210.
- 박수영(2018). **치어리딩 참여 중·고등학생들의 몰입경험이 운동만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은선, 도미향(2022). 운동선수의 코칭역량이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코치-선수 관계의 매개효과. **코칭연구**, 15(2), 109-129.
- 박정근(2001). 우수 코치들의 리더십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2(1), 79-107.
- 박중길(2009). 지각된 코치-선수관계, 욕구만족, 신체적 및 심리적 안녕감: 개인내 분석. **한국스포츠심리학회**, 20(4), 177-191.
- 박중길, 김기형(2013). 지각된 코칭행동, 자율적-통제적 행동조절 및 정서의 인과구조: 자기결정성 이론 관점. **한국체육학회지**, 52(5), 263-277.
- 배준수, 박수경, 김수연(2022). 고등학교 태권도 선수들이 지각한 자율 코칭행동과 선수 만족 및 스포츠 도덕행동에 관한 구조모형 검증. **세계태권도문화학회지**, 13(3), 171-188.
- 서효민(2020). **스포츠이벤트품질이 참가자의 참여만족과 스포츠몰입, 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서희진(2005). 청소년 운동선수의 운동지속 및 탈퇴에 관한 영향 요인 분석.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8(3), 481-495.
- 성창훈(2002). 청소년 운동선수의 스포츠 탈퇴요인 구조 및 관련 변인 분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3(2), 39-57.
- 성창훈, 홍성철, 성한기(2001). 학원 운동선수들의 스포츠 탈퇴동기 탐색.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8(2), 145-162.
- 신영균(2011). 스포츠지도자의 변혁적 리더십이 선수의 조직시민행동과 지도자-선수 교환관계(CAX)에 미치는 영향. **코칭능력개발지**, 13(2), 3-12.

- 신정옥, 서희진(2010). 중도탈락 대학운동선수의 학교생활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전국 체육대회기념 학술대회 초록집**, 63-64.
- 양명환(2011). 태권도 선수들이 지각하는 주요타자의 자율성 지지와 자기관리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 동기의 매개효과 검증. **해양스포츠연구**, 1(1), 59-72.
- 양명환(2015). 자율적 코칭행동, 자기조절동기, 의도적 연습 및 운동만족의 관계. **코칭 능력개발지**, 17(3), 77-91.
- 엄창량(2021). **비교문화에 따른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 척도개발**.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연은정(2019). **학교스포츠클럽 치어리딩 참여 청소년의 grit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연은정, 류재균(2012). 치어리딩의 푸에테 아라스공드 동작의 운동학적 분석(Fouette A La Second). **한국운동역학회지**, 22(2), 173-181.
- 오준석(2016). 기계체조선수들의 운동스트레스와 자기관리, 중도포기의도의 구조적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55(5), 91-104.
- 왕예, 김덕진, 양명환(2023 발행중). 중국판 코치-선수관계 질문지(CCART-Q)의 타당화. **코칭능력개발지**, 24(4).
- 우종필. (2012).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출판사.
- 원우영, 김종식, 김현륜(2019). 펜싱선수가 지각한 지도자의 통제된 코칭행동과 스포츠 자신감 및 운동지속의사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8(1), 463-472.
- 유정인, 문익수, 성장훈(2009). 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이 지각한 지도자의 변혁적 리더십과 심리적 욕구 및 운동만족의 구조적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8(4), 65-81.
- 유정인, 최만식, 임용택(2012). 중·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의 코치-선수관계가 심리적 욕구 및 운동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7(2), 79-93.
- 이경현, 장세용(2019). 태권도 선수의 통제적 코칭행동과 중도포기의도의 관계: 실패내성의 매개효과 검증. **무예연구**, 13(4), 113-132.
- 이소연, 공세진(2014). 치어리딩 플레이어 선수의 평형성 비교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23(4), 1347-1355.
- 이양주(2022). 청소년 탁구선수들이 지각한 코칭행동 유형이 자아탄력성과 운동지속 및 포기의도에 미치는 영향. **코칭능력개발지**, 24(4), 12-22.

- 이예슬(2017). **치어리딩 발달사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 임정숙, 전주상(2021). 준정부조직의 조직 내 갈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갈등대응 전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2(2), 185-202.
- 장보경, 김승재(2019). 대학 운동선수의 지각된 코칭행동, 정서반응, 정서지능 및 수행능력/지속성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30(2), 1-13.
- 전기영(2021). 유도선수들의 코치-선수관계와 스트레스 및 운동지속의도의 관계. **한국스포츠학회**, 19(1), 889-901.
- 정구인, 임동기, 최헌혁(2019). 경로분석을 통한 코칭행동, 코치-선수 간 상호작용, 팀 분위기, 그리고 운동선수 탈진의 관계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0), 1081-1101.
- 조인화(2016). **코칭리더십이 영업사원의 직무몰입 및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 천길영, 양종욱(2016). 무도선수들이 지각하는 코치-운동선수 관계가 자기조절동기 및 운동수행만족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연구교류처**, 46, 37-52.
- 최마리, 박상혁, 성창훈(2012). 코치-선수 부합과 심리육구만족 및 운동탈진의 구조적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51(2), 203-213.
- 최미영(2015). 사회과학분야: 엘리트 댄스스포츠 지도자와 선수의 상호작용 형성 과정. **한국무용과학회지**, 32(1), 91-106.
- 최헌혁(2019). 청소년 운동선수가 지각한 코치-선수관계, 스포츠 분노, 그리고 공격행동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58(1), 83-96.
- 최헌혁, 허진영(2014). 코치-선수관계에서 청소년 운동선수가 지각한 자율성 지지와 통제적 코칭행동의 역할. **한국체육과학회지**, 23(4), 581-591.
- 최헌혁, 허진영, 김석규(2013). 코치-선수관계와 엘리트 운동선수 탈진의 관계에서 기본 심리 육구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체육학회지**, 52(3), 129-141.
- 최헌혁, 정구인(2020). 운동선수가 지각한 공감, 코치-선수 관계, 그리고 운동선수 탈진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2), 1317-1339.
- 탁슬기(2013). 치어리딩 토터치 동작의 역학적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탁진국, 조은현(2011). 코칭리더십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

- 직, 24(1), 127-155.
- 한연숙, 허진영(2018). 중·고등학교 기계체조 선수들이 지각하는 통제적 코칭행동이 동기분위기 및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7(5), 457-469
- 한연숙, 허진영(2018b). 체육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이 지각하는 코칭스타일과 유능감 및 중도탈락의도의 구조적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7(2), 425-438.
- 한용식, 김미예, 김덕진(2014). 고등학교 태권도선수의 코치-선수관계와 탈진의 관계에서 자기관리의 매개효과. **아시아 운동학 학술지**, 16(4), 13-22.
- 한허정(2007). **조직 중간 관리자의 코칭 역량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허진영, 최헌혁(2017). 프로축구 코칭행동과 팀 효능감의 관계에서 코치 선수관계 유지의 역할 검증. **한국웰니스학회지**, 12(4), 261-273.
- 허진혁(2021). **청소년 축구선수가 지각한 코칭행동 유형이 코치-선수관계, 운동열정 및 운동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대학원.
- 홍성택, 조선령(2020). 청소년 운동선수들이 지각한 코칭행동과 운동선수 탈진의 관계에서 코치-선수 관계의 역할. **한국웰니스학회지**, 15(4), 155-168.
- 홍세희(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 황수영, 장덕선(2020). 사격선수의 대인관계와 운동지속 및 중단 관계 연구-코치-선수 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스포츠사이언스**, 38(2), 91-104.
- 황정동, 주재형, 임승현(2016). 지도자의 자율성 지지가 중·고교 핸드볼선수의 지도자-운동선수 관계 및 열정과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5(1), 87-97.
- 陳瑞琴, 陳鬆(2018). 啦啦操基本手位在花球舞蹈啦啦操成套中的應用研究. **體育研究與教育**, 33(1), 77-80.
- 陳麗霞, 李祥祥(2017). 我國啦啦操研究文獻綜述與分析. **湖北體育科技**, 36(8), 663-666.
- 符明秋, 龔高昌(2006). 積極情緒及情緒有益感知對運動競賽影響的研究. **北京體育大學學報**, 29(11), 1490-1491.
- 樊榮, 王斌, 葉綠, 王倫, 馬鈺璇(2020). 教練員支持行爲對運動員心理堅韌性的影響: 基本心理需要滿足與自尊的鏈式中介作用. **北京體育大學學報**, 43(1), 134-145.
- 郭宇剛(2016). 運動員依戀、關係維持策略與運動-教練員關係質量的研究. 上海體育學院,

博士論文。

- 高圓媛, 李垚, 曹大偉, 曹連衆(2021). 教練員領導行為對運動員運動投入的影響研究——教練員-運動員關係的中介效應. **瀋陽體育學院學報**, 40(5), 98-106.
- 姜國凱, 劉小靜(2022). 技巧啦啦操底座運動員力量訓練手段的研究. **第十二屆全國體育科學大會論文摘要彙編——牆報交流** (運動訓練分會).
- 李鴻(2006). 我國啦啦隊運動的開展現狀與對策研究. **成都體育學院學報**, 32(2), 89-91.
- 李焜煌(2002). 教練領導行為與教練-選手關係滿意度之相關研究. **大專體育學刊**, 4(2), 67-77.
- 李羣力(2006). 湖南省高校高水平運動員運動動機和退出意圖的研究. 碩士論文, 武漢體育學院.
- 李育林, 寇磊, 王曉東(2015). 近5年我國啦啦操發展現狀及未來發展規劃. **中國學校體育: 高等教育**, (8), 1-6.
- 盧鳳, 周茜, 王路漫, 萬梨(2022). Dartfish 運動分析軟件在啦啦操教學中的應用研究. **體育科技文獻通報**.
- 田晶晶(2019). 2018年啦啦操世錦賽集體花球啦啦操前八名與中國隊成套動作特徵對比研究. 碩士論文, 廣西師範大學.
- 王學鋒(2016). 論我國啦啦操的發展現狀及價值取向. **新課程(下)**, 5.
- 王迪(2006). 我國優秀運動隊教練員與運動員人際關係研究. 博士論文, 武漢體育學院.
- 王勳勤, 張斌(2017). 乒羽教練員領導方式與運動員競賽焦慮: 成就動機定向的中介作用. **上海體育學院學報**, 41(3), 75-78.
- 王斌, 葉綠, 吳敏, 馮恬, 彭秀(2014). 感恩對運動員投入的影響: 教練員-運動員關係的中介作用. **北京體育大學學報**, (9), 85-90.
- 吳俊豔(2021). 啦啦操課程對小學生柔韌素質和自信心的影響研究. 碩士論文, 首都體育學院.
- 徐學偉(2014). 我國冠軍隊技巧啦啦操運動員的個性特徵研究. 碩士論文, 山東師範大學.
- 楊勇(2008). 我國優秀青少年籃球隊羣體凝聚力研究. 博士論文, 北京體育大學.
- 楊毅(2007). 湖北省教練員家長式領導行為及其對“教練員-運動員”關係的影響研究. 博士論文, 華中師範大學.
- 焉石, 糾延紅, 楊俊(2012). 教練員領導行為對運動員信任, 團隊效果的影響. **軍事體育進修學院學報**, (1), 40-44.

- 章芳芳(2013). 浙江省高校高水平田徑運動員成就動機 , 運動倦怠及退出意圖關係 研究. 碩士論文, 杭州師範大學.
- Adie, J. W., Duda, J. L., & Ntoumanis, N. (2008). Achievement goals, competition appraisals, and th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welfare of sport participants.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30*(3), 302-322.
- Adie, J. W., Duda, J. L., & Ntoumanis, N. (2008). Autonomy support, basic need satisfaction and the optimal functioning of adult male and female sport participants: A test of basic needs theory. *Motivation and emotion, 32*, 189-199.
- Álvarez, M. S., Balaguer, I., Castillo, I., & Duda, J. L. (2009). Coach autonomy support and quality of sport engagement in young soccer players. *The Spanish journal of psychology, 12*(1), 138-148.
- Amorose, A. J., & Anderson-Butcher, D. (2015). Exploring the independent and interactive effects of autonomy-supportive and controlling coaching behaviors on adolescent athletes' motivation for sport. *Sport, Exercise, and Performance Psychology, 4*(3), 206.
- Ayres, J. (1983). Strategies to maintain relationships: Their identification and perceived usage. *Communication Quarterly, 31*(1), 62-67.
- Bandura, A. (1978). The self system in reciprocal determinism. *American psychologist, 33*(4), 344.
- Barnett, N. P., Smoll, F. L., & Smith, R. E. (1992). Effects of enhancing coach-athlete relationships on youth sport attrition. *The sport psychologist, 6*(2), 111-127.
- Bartholomew, K. J., Ntoumanis, N., & Thøgersen-Ntoumani, C. (2010). The controlling interpersonal style in a coaching context: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a psychometric scale.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32*(2), 193-216.
- Bartholomew, K. J., Ntoumanis, N., Ryan, R. M., Bosch, J. A., & Thøgersen-Ntoumani, C. (2011).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diminished functioning: The role of interpersonal control and psychological need thwart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7(11), 1459-1473.

- Bateman, M., & Jones, G. (2019). Strategies for maintaining the coach - analyst relationship within professional football utilizing the COMPASS model: The performance analyst's perspective. *Frontiers in psychology*, 10, 2064.
- Black, A. E., & Deci, E. L. (2000). The effects of instructors' autonomy support and students' autonomous motivation on learning organic chemistry: A self 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Science education*, 84(6), 740-756.
- Blanchard, C. M., Amiot, C. E., Perreault, S., Vallerand, R. J., & Provencher, P. (2009). Cohesiveness, coach's interpersonal style and psychological needs: Their effects on self-determination and athletes'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10(5), 545-551.
- Boiché, J. C., & Sarrazin, P. G. (2009). Proximal and distal factors associated with dropout versus maintained participation in organized sport. *Journal of sports science & medicine*, 8(1), 9.
- Brady, E. (2002). Cheerleading in the USA: A sport and an industry. *USA Today*, 26, A1.
- Canary, D. J., & Stafford, L. (1992). Relational maintenance strategies and equity in marriage. *Communications Monographs*, 59(3), 243-267.
- Canary, D. J., & Stafford, L. (1994). Maintaining relationships through strategic and routine interaction.
- Canary, D. J., Stafford, L., & Semic, B. A. (2002). A panel study of the associations between maintenance strategies and relation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2), 395-406.
- Chelladurai, P. (1984). Discrepancy between preferences and perceptions of leadership behavior and satisfaction of athletes in varying sports.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6(1), 27-41.
- Chen, B., Kuang, L., & He, W. (2023). Cheerleading athlete's action safety in sports competition based on Kohonen neural network. *Neural Computing and Applications*, 35(6), 4369-4382.

- CHEN, L. X., LI, X. X., & ZHANG, X.(2017). China's Cheerleading Studies and Analysis of Literature Review. *Technical Training*, 75, 12-76.
- Choi, H. H., & Cho, S. K. (2014). The mediating role of the coach-athlete relationship in relationships between perceived passion and burnout in adolescent athletes. *Kor. J. Sport Psychol*, 25, 111-125.
- Choi, H., Jeong, Y., & Kim, S. K.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coaching behavior and athlete burnout: mediating effects of communication and the coach - athlete relationship.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22), 8618.
- Coakley, J., & White, A. (1992). Making decisions: Gender and sport participation among British adolescents. *Sociology of sport journal*, 9(1), 20-35.
- Coatsworth, J. D., & Conroy, D. E. (2006). Enhancing the self-esteem of youth swimmers through coach training: Gender and age effects.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7(2), 173-192.
- Conroy, D. E., & Coatsworth, J. D. (2007). Assessing autonomy-supportive coaching strategies in youth sport.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8(5), 671-684.
- Corbin, C. B., Welk, G. J., Lindsey, R., & Corbin, W. R. (1994). *Concepts of Physical Fitness*. New York: McGraw-Hill Education.
- Côté, J., & Gilbert, W. (2009). An integrative definition of coaching effectiveness and expertise.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s science & coaching*, 4(3), 307-323.
- Côté, J., & Sedgwick, W.A. (2003). Effective behaviors of expert rowing coaches: A qualitative investigation of Canadian athletes and coaches. *International Sports Journal*, 7(1), 62 - 77
- Currie, D. W., Fields, S. K., Patterson, M. J., & Comstock, R. D. (2016). Cheerleading injuries in United States high schools. *Pediatrics*, 137 (1).
- Dainton, M., & Aylor, B. (2002). Routine and strategic maintenance efforts: Behavioral patterns, variations associated with relational length, and the prediction of relational characteristics. *Communication Monographs*, 69(1),

52-66.

- Davis, L., & Jowett, S. (2014). Coach - athlete attachment and the quality of the coach - athlete relationship: implications for athlete's well-being. *Journal of sports sciences, 32*(15), 1454-1464.
- Davis, L., Jowett, S., & Tafvelin, S. (2019). Communication strategies: The fuel for quality coach-athlete relationships and athlete satisfaction. *Frontiers in psychology, 10*, 2156.
- Deci, E. L., & Ryan, R. M. (1985). The general causality orientations scale: Self-determination in personalit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9*(2), 109-134.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227-268.
- Dindia, K., & Baxter, L. A. (1987). Strategies for maintaining and repairing marital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4*(2), 143-158.
- Dindia, K., & Canary, D. J. (1993). Definitions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on maintaining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0*(2), 163-173.
- Duck, S. (1999). *Relating to others 2/e*. McGraw-Hill Education (UK).
- Duda, J.L. & Balaguer, I.(2007). Coach-Created Motivational Climate, in: Jowett, S. and Lavallee, D., eds., *Social Psychology in Sport, Human Kinetics, Champaign, IL*, 117-130.
- Fan, F., Chen, J., Chen, Y., Li, B., Guo, L., Shi, Y., Yang, F., Yang, Q., Yang, L., Ding, C., & Shi, H. (2022). How relationship-maintenance strategies influence athlete burnout: Mediating roles of coach - athlete relationship and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Frontiers in Psychology, 13*.
- Felton, L., & Jowett, S. (2013). “What do coaches do” and “how do they relate”: Their effects on athletes' psychological needs and functioning. *Scandinavian journal of medicine & science in sports, 23*(2), e130-e139.

- Fraser-Thomas, J., & Côté, J. (2009). Understanding adolescents' positive and negative developmental experiences in sport. *The sport psychologist, 23*(1), 3-23.
- Frey, M., Czech, D. R., Kent, R. G., & Johnson, M. (2006). An exploration of female athletes'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male and female coaches. *The Sport Journal, 9*(4).
- Gagne, M. (2003). Autonomy support and need satisfaction in the motivation and well-being of gymnasts.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15*(4), 372-390.
- Gervis, M., & Dunn, N. (2004). The emotional abuse of elite child athletes by their coaches. *Child Abuse Review: Journal of the British Association for the Study and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 13*(3), 215-223.
- Gilbert, W. (2016). *Coaching better every season: A year-round system for athlete development and program success*. Human Kinetics.
- González-García, H., & Martinent, G. (2020). Relationships between perceived coach leadership, athletes' use of coping and emotions among competitive table tennis players. *European Journal of Sport Science, 20*(8), 1113-1123.
- Gould, D., Collins, K., Lauer, L., & Chung, Y. (2007). Coaching life skills through football: A study of award winning high school coaches.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19*(1), 16-37.
- Hayes, J. R. (2013). *The complete problem solver*. Routledge.
- Høigaard, R., Jones, G. W., & Peters, D. M. (2008). Preferred coach leadership behaviour in elite soccer in relation to success and failure.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s Science & Coaching, 3*(2), 241-250.
- Horn, T. (2000). Intrinsic motivation: Relationships with collegiate athletes' gender, scholarship status, and perceptions of their coaches' behavior.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22*(1-4), 63-84.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Iso-Ahola, S. E. (1995). Intrapersonal and interpersonal factors in athletic performance.

- Scandinavian journal of medicine & science in sports*, 5(4), 191-199.
- Isoard-Gauthier, S., Trouilloud, D., Gustafsson, H., & Guillet-Descas, E. (2016). Associations between the perceived quality of the coach - athlete relationship and athlete burnout: An examination of the mediating role of achievement goals.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22, 210-217.
- Jowett, S. (2003). When the “honeymoon” is over: A case study of a coach-athlete dyad in crisis. *The sport psychologist*, 17(4), 444-460.
- Jowett, S. (2005). The coach-athlete partnership. *The psychologist*, 1 (7), 412-415.
- Jowett, S. (2007). Interdependence analysis and the 3+1Cs in the coach-athlete relationship.
- Jowett, S. (2009). Factor structure and criterion-related validity of the metaperspective version of the Coach - Athlete Relationship Questionnaire (CART-Q). *Group dynamic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13(3), 163.
- Jowett, S. (2017). Coaching effectiveness: The coach - athlete relationship at its heart.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16, 154-158.
- Jowett, S., & Chaundy, V. (2004). An investigation into the impact of coach leadership and coach-athlete relationship on group cohesion. *Group Dynamic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8(4), 302.
- Jowett, S., & Cramer, D. (2010). The prediction of young athletes’ physical self from perceptions of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coaches.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11(2), 140-147.
- Jowett, S., & Meek, G. A. (2000). The coach-athlete relationship in married couples: An exploratory content analysis. *The sport psychologist*, 14(2), 157-175.
- Jowett, S., & Nezelek, J. (2012). Relationship interdependence and satisfaction with important outcomes in coach - athlete dyad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9(3), 287-301.
- Jowett, S., & Ntoumanis, N. (2004). The coach - athlete relationship questionnaire (CART Q):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Scandinavian journal of medicine & science in sports*, 14(4), 245-257.
- Jowett, S., & Poczwardowski, A. (2007). Understanding the coach-athlete

- relationship. *Social psychology in sport*, 6, 3-14.
- Jowett, S., & Shanmugam, V. (2016). Relational coaching in sport: Its psychological underpinnings and practical effectiveness.
- Jowett, S., & Timson-Katchis, M. (2005). Social networks in sport: Parental influence on the coach-athlete relationship. *Sport psychologist*, 19(3).
- Jowett, S., Adie, J. W., Bartholomew, K. J., Yang, S. X., Gustafsson, H., & Lopez-Jiménez, A. (2017). Motivational processes in the coach-athlete relationship: A multi-cultural self-determination approach.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32, 143-152.
- Jowett, S., Cockerill, I. M. (2003). Olympic medallists' perspective of the athlete - coach relationship.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4(4), 313-331.
- Jowett, S., Paull, G., & Pensfaard, A. M. (2005). Coach-athlete relationship. In J. Taylor & G. S. Wilson, *Applying sport psychology: Four perspective*, 153-170.
- Jowett, S., Yang, X., & Lorimer, R. (2012). The role of personality, empathy, and satisfaction with instruction within the context of the coach-athlete relationship. *International Journal of Coaching Science*, 6(2), 3-20.
- Kenow, L., & Williams, J. M. (1999). Coach-athlete compatibility and athlete's perception of coaching behaviors. *Journal of Sport Behaviour*, 22, 251-259.
- Kline, T. J. (2005). *Psychological testing: A practical approach to design and evaluation*. Sage publications.
- Lafrenière, M. A. K., Jowett, S., Vallerand, R. J., & Carbonneau, N. (2011). Passion for coaching and the quality of the coach - athlete relationship: The mediating role of coaching behaviors.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12(2), 144-152.
- Lafrenière, M. A. K., Jowett, S., Vallerand, R. J., Donahue, E. G., & Lorimer, R. (2008). Passion in sport: On the quality of the coach - athlete relationship.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30(5), 541-560.
- LaVoi, N. M. (2007). Coach-Athlete Relationship. *Social psychology in sport*, 10, 29.
- LaVoi, N. M. (2007).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nd conflict in the coach-athlete relationship. *Social psychology in sport*, 29-40.

- Ledbetter, A. M. (2010). Content-and medium-specific decomposition of friendship relational maintenance: Integrating equity and media multiplexity approach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7*(7), 938-955.
- Ledbetter, A. M., Stassen, H., Muhammad, A., & Kotey, E. N. (2010). Relational maintenance as including the other in the self. *Qualitative Research Reports in Communication, 11*(1), 21-28.
- Ledochowski, L., Unterrainer, C., Ruedl, G., Schnitzer, M., & Kopp, M. (2012). Quality of life, coach behaviour and competitive anxiety in Winter Youth Olympic Games participants. *British Journal of Sports Medicine, 46*(15), 1044-1047.
- Lyle, J. W. B. (1999) The coaching process: an overview. *The coaching process: principles and practice for sport (Oxford, Butterworth-Heinemann)*, 3 - 24.
- Mageau, G. A., & Vallerand, R. J. (2003). The coach - athlete relationship: A motivational model. *Journal of sports science, 21*(11), 883-904.
- Martens, R. (1987). *Coaches guide to sport psychology: A publication for the American Coaching Effectiveness Program: Level 2 sport science curriculum*. Human Kinetics Books.
- Massie, J. F., & Shephard, R. J. (1971).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effects of training--a comparison of individual and gymnasium programs, with a characterization of the exercise" drop-out". *Medicine and science in sports, 3*(3), 110-117.
- Mellano, K. T., Horn, T. S., & Mann, M. (2022). Examining links between coaching behaviors and collegiate athletes' burnout levels using a longitudinal approach.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61*, 102189.
- Miell, D., & Duck, S. (1986). Strategies in developing friendships. *Friendship and social interaction, 129-143*.
- Miller, P. S., & Kerr, G. (2002). The athletic, academic and social experiences of intercollegiate student-athletes. *Journal of sport behavior, 25*(4).
- Muller, D., Judd, C. M., & Yzerbyt, V. Y. (2005). When moderation is mediated and

- mediation is modera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6), 852.
- Nicholls, A. R., Levy, A. R., Jones, L., Meir, R., Radcliffe, J. N., & Perry, J. L. (2016). Committed relationships and enhanced threat levels: perceptions of coach behavior, the coach-athlete relationship, stress appraisals, and coping among athletes.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s science & coaching*, 11(1), 16-26.
- Ogolsky, B. G., & Bowers, J. R. (2013). A meta-analytic review of relationship maintenance and its correlat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30(3), 343-367.
- Passmore, J., & Fillery-Travis, A. (2011). A critical review of executive coaching research: a decade of progress and what's to come. *Coachin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4(2), 70-88.
- Pelletier, L. G., Fortier, M. S., Vallerand, R. J., & Briere, N. M. (2001). Associations among perceived autonomy support, forms of self-regulation, and persistence: A prospective study. *Motivation and emotion*, 25(4), 279-306.
- Philippe, R. A., & Seiler, R. (2006). Closeness, co-orientation and complementarity in coach-athlete relationships: What male swimmers say about their male coaches.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7(2), 159-171.
- Poczwardowski, A., Barott, J. E., & Henschen, K. P. (2002). The athlete and coach: Their relationship and its meaning. Results of an interpretiv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sychology*, 33(1), 116-140.
- Poczwardowski, A., Barott, J. E., & Jowett, S. (2006). Diversifying approaches to research on athlete-coach relationships.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7(2), 125-142.
- Pritchard, M., & Wilson, G. (2005). Comparing sources of stress in college student athletes and non-athletes. *Athletic Insight: The Online Journal of Sports Psychology*, 5(1), 1-8.
- Raedeke, T. D., & Smith, A. L. (2001). Development and preliminary validation of an athlete burnout measure.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23(4),

281-306.

- Reeve, J., & Jang, H. (2006). What teachers say and do to support students' autonomy during a learning activit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8*(1), 209.
- Reeve, J., Deci, E. L., & Ryan, R. M. (2004). Self-determination theory: A dialect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socio-cultural influences on student motivation. *Big theories revisited, 4*, 31-60.
- Reinboth, M., Duda, J. L., & Ntoumanis, N. (2004). Dimensions of coaching behavior, need satisfaction, and the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fare of young athletes. *Motivation and emotion, 28*(3), 297-313.
- Rhind, D. J., & Jowett, S. (2010). Relationship maintenance strategies in the coach-athlete relationship: The development of the COMPASS model.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22*(1), 106-121.
- Rhind, D. J., & Jowett, S. (2011). Linking maintenance strategies to the quality of coach-athlete relationships.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sychology, 42*(1), 55.
- Rhind, D. J., & Jowett, S. (2012). Development of the coach-athlete relationship maintenance questionnaire (CARM-Q).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s Science & Coaching, 7*(1), 121-137.
- Rhind, D. J., Jowett, S., & Yang, S. X. (2012). A comparison of athletes' perceptions of the coach-athlete relationship in team and individual sports. *Journal of Sport Behavior, 35*(4), 433.
- Riley, A., & Smith, A. L. (2011). Perceived coach-athlete and peer relationships of young athletes and self-determined motivation for sport.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sychology.*
- Rottensteiner, C., Konttinen, N., & Laakso, L. (2015). Sustained participation in youth sports related to coach-athlete relationship and coach-created motivational climate. *International Sport Coaching Journal, 2*(1), 29-38.
- Rottensteiner, C., Laakso, L., Pihlaja, T., & Konttinen, N. (2013). Personal reasons for withdrawal from team sports and the influence of significant others among

- youth athletes.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s science & coaching*, 8(1), 19-32.
- Roxas, A. S., & Ridinger, L. L. (2016). Relationships of coaching behaviors to student-athlete well-being. *Higher education politics & economics*, 2(1), 95-109.
- Russell, J. E., & Adams, D. M. (1997). The changing nature of mentoring in organizations: An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on mentoring in organiza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1(1), 1-14.
- Ryan, R. M., & Deci, E. L. (2002). Over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 An organismic dialectical perspective.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2, 3-33.
- Sarrazin, P., Boiché, J., & Pelletier, L. (2007). A self-determination theory approach to dropout in athletes.
- Shanmugam, V., Jowett, S., & Meyer, C. (2013). Eating psychopathology amongst athletes: The importance of relationships with parents, coaches and teamm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1(1), 24-38.
- Shea, B. C., & Pearson, J. C. (1986). The effects of relationship type, partner intent, and gender on the selection of relationship maintenance strategies. *Communications Monographs*, 53(4), 352-364.
- Shepherd, D. J., Lee, B., & Kerr, J. H. (2006). Reversal theory: A suggested way forward for an improved understanding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sport.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7(2), 143-157.
- Shields, B. J., & Smith, G. A. (2006). Cheerleading-related injuries to children 5 to 18 years of age: United States, 1990 - 2002. *Pediatrics*, 117(1), 122-129.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
- Siedentop, D. (1983). Academic learning time: Reflections and prospects.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2(4), 3-7.
- Smith, R. E., & Smoll, F. L. (1990). Self-esteem and children's reactions to youth sport coaching behaviors: A field study of self-enhancement processes.

- Developmental psychology*, 26(6), 987.
- Smoll, F. L., & Smith, R. E. (2006). Enhancing coach-athlete relationships: Cognitive-behavioral principles and procedures. *The sport psychologist's handbook*, 19-37.
- Stafford, L., & Canary, D. J. (1991). Maintenance strategies and romantic relationship type, gender and relation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2), 217-242.
- Stafford, L., Dainton, M., & Haas, S. (2000). Measuring routine and strategic relational maintenance: Scale revision, sex versus gender roles, and the prediction of relational characteristics. *Communications Monographs*, 67(3), 306-323.
- Stober, D. R., & Grant, A. M. (2006). Toward a Contextual Approach to Coaching Models.
- Tabei, Y., Fletcher, D., & Goodger, K.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stressors and athlete burnout in soccer players. *Journal of Clinical Sport Psychology*, 6(2), 146-165.
- Thomas, D. Q., Seegmiller, J. G., Cook, T. L., & Young, B. A. (2004). Physiologic profile of the fitness status of collegiate cheerleaders. *Journal of Strength and Conditioning Research*, 18(2), 252-254.
- Tomlinson, A., & Yorganci, I. (1997). Male coach/female athlete relations: Gender and power relations in competitive sport. *Journal of Sport and Social Issues*, 21(2), 134-155.
- Trzaskoma-Bicsérdy, G., Bognár, J., Révész, L., & Géczi, G. (2007). The coach-athlete relationship in successful Hungarian individual sports.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s Science & Coaching*, 2(4), 485-495.
- Ungerleider, S. (1997). Olympic athletes' transition from sport to workplace. *Perceptual and Motor Skills*, 84(3), 1287-1295.
- Vallerand, R. J., & Losier, G. F. (1999). An integrative analysis of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in sport.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11(1),

142-169.

- Vella, S. A., Oades, L. G., & Crowe, T. P. (2010). The application of coach leadership models to coaching practice: Current state and future direc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s Science & Coaching*, 5(3), 425-434.
- Wankel, L. M. (1985). Personal and situational factors affecting exercise involvement: The importance of enjoyment.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56(3), 275-282.
- Weigel, D. J., & Ballard-Reisch, D. S. (1999). How couples maintain marriages: A closer look at self and spouse influences upon the use of maintenance behaviors in marriages. *Family Relations*, 263-269.
- Weinberg, R. S., & Gould, D. (1995). Foundations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Human Kinetics. *Champaign, IL*.
- Wekesser, M. M., Harris, B. S., Langdon, J., & Wilson Jr, C. H. (2021). Coaches' impact on youth athletes' intentions to continue sport participation: The mediational influence of the coach - athlete relationship.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s Science & Coaching*, 16(3), 490-499.
- Wylleman, P. (2000).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sport: Uncharted territory in sport psychology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sychology*.
- Yang, S. X., Jowett, S., & Chan, D. K. (2015). Effects of big five personality traits on the quality of relationship and satisfaction in Chinese coach - athlete dyads. *Scandinavian Journal of Medicine & Science in Sports*, 25(4), 568-580.
- Yoo, K. E., & Cheon, S. H. (2017). Effect of Coach autonomy supportive intervention program on coaches' and athletes' motivation and personal growth in disabled table tennis team.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6(5), 185-203.
- Zourbanos, N., Hatzigeorgiadis, A., Tsiakaras, N., Chroni, S., & Theodorakis, Y. (2010). A multimethod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aching behavior and athletes' inherent self-talk.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32(6), 764-785.

연구 설명문 및 동의서

존경하는 선수님,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의 목적은 귀하께서 치어리딩 활동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들은 본 연구에 소중하게 활용되오니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솔직한 대답을 해 주시고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기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조사는 무기명으로 진행되며, 연구원은 조사 및 조사 데이터는 국제 데이터 보호 규칙에 따라 엄격하게 수집 및 분석되며,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들은 연구 목적을 위한 통계자료로만 쓰이며,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본 설문은 단항 선택으로 답은 옳고 그름의 구분이 없으므로 잘 읽어보시고 마음속의 진실한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선택지를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생각을 들어줄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읽으시고 동의해 주십시오.

본인은 위 설명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이 설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언제라도 연구참여를 중단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왕예

지도교수 김 덕 진

E-mail : 76280713@qq.com

I.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남학생 ②여학생

2. 귀하의 학년은?

①1학년 ②2학년 ③3학년 ④4학년

3. 귀하는 치어리딩의 훈련이나 경기에서 주로 참여하시는 종목은?

①스탠트 치어리딩 ②댄스 치어리딩

4. 귀하는 이 치어리딩 종목에 참여한 경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1년 미만 ②1년 이상~2년 미만 ③2년 이상~3년 미만 ④3년 이상~4년 미만 ⑤ 4년이상

5. 귀하의 치어리딩 운동선수 등급은?

- ①무등급 ②국가 3급 ③국가 2급 ④국가 1급 및 이상

6. 귀하는 치어리딩 경기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받은 등급은?

- ①무등급 ②시 등급 ③성 등급 ④국가 등급 ⑤국제 등급

Ⅱ. 다음은 치어리딩 선수들이 훈련이나 경기하는 관점에서 느끼는 코칭행동에 대한 문항들입니다. 잘 읽으시고 자신의 견해와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 표를 해 주십시오.

| 번호 | 내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 나의 코치는 나와 팀 동료선수들에게 구체적인 경기 전략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 나의 코치는 나와 팀 동료선수들에게 냉담하고 소원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 나의 코치는 나와 팀 동료선수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 나의 코치는 자신이 말할 때는 나와 팀 동료선수들이 의견을 제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 나의 코치는 중요한 훈련이나 경기 내용에 대해 나와 팀 동료선수들의 의견을 경청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 나의 코치는 나와 팀 동료선수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요구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 나의 코치는 훈련 방법에 대해 나와 팀 동료선수들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격려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 나의 코치는 항상 명령조로 훈련과 경기를 지도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 나의 코치는 중대한 사건을 결정하려고 할 때 나와 팀 동료선수들의 의견을 듣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 | 나의 코치는 훈련이나 경기지도할 때 나와 팀 동료선수들을 자신의 코칭방식을 따르도록 강요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Ⅲ. 다음은 치어리딩 선수가 수행만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장 최근에 참여했던 치어리딩 시합의 경우를 자세하게 회상하시고 질문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잘 읽으시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이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 표를 해 주십시오.

| 번호 | 내용 | 전혀 아니다 | ← | | 보통이다 | → | | 매우 그렇다 |
|----|----------------------------------|--------|---|---|------|---|---|--------|
| 1 | 나는 지난번 시합 성적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2 | 나는 지난번 시합에 사용했던 전략들이 주효했다고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3 | 나는 지난번 시합은 후회 없이 잘했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4 | 나는 지난번 시합을 통해서 기술이 많이 좋아졌다고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 | | | | | | | |
|---|--|---|---|---|---|---|---|---|
| 5 | 지난번 시합에서 우리 팀 동료들은 잘 싸웠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6 | 지난번 시합에서 우리 팀 동료들은 함께 열심히 노력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7 | 지난번 시합에서 우리 팀 동료들은 팀의 전반적인 성적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8 | 지난번 시합에서 우리 팀 동료들은 팀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9 | 지난번 시합에서 우리 팀 동료들은 성취한 결과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IV. 다음은 치어리딩 선수가 느끼는 선수와 코치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는 코치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잘 읽으시고 자신의 견해와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 표를 해 주십시오.

| 번호 | 귀하는 코치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 전혀 아니다 | ← | | 보통 이다 | → | | 매우 그렇다 |
|----|--|-----------|---|---|----------|---|---|-----------|
| 1 | 나는 나의 코치를 좋아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2 | 나는 나의 코치와 가깝다고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3 | 코치가 나를 지도해 줄 때 나는 적극적으로 응대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4 | 코치가 나를 지도해 줄 때 나는 매우 겸허하고 우호적인 행동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5 | 나는 나의 코치를 신뢰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6 | 나는 나의 코치를 존경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7 | 나는 코치와 함께 있을 때 나의 운동생활이 희망으로 가득찬 것을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8 | 나는 나의 코치에게 지도받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9 | 나는 나의 코치를 충실하며 코치와 오래도록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10 | 코치가 나를 지도해 줄 때 나는 최선을 다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11 | 나는 나의 코치가 내 경기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노력에 감사드린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V. 다음은 치어리딩 선수의 지속의도에 대한 문항입니다. 잘 읽으시고 자신의 견해와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 표를 해 주십시오.

| 번호 | 내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 나는 치어리딩 운동을 계속 하길 원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 나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치어리딩 운동을 계속 하겠다고 다짐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 나는 치어리딩 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싶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 나는 치어리딩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 나는 치어리딩 활동, 대회 및 모임에 지속해서 참여하길 원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VI. 다음은 치어리딩 선수의 운동포기의도에 대한 문항입니다. 잘 읽으시고 자신의 견해와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 표를 해 주십시오.

| 번호 | 내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 나는 치어리딩 운동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 나는 치어리딩 운동으로는 장래가 불투명해서 그만두고 싶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 나는 치어리딩 운동으로 성공을 못할 것 같아서 그만두고 싶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 나는 치어리딩 운동에 흥미를 잃어서 그만두고 싶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 나는 치어리딩보다 다른 운동에 더 관심이 많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研究說明書及同意書

尊敬的運動員，您好！

本次調查的目的在於瞭解您在參與啦啦隊活動時感受到的各種心理因素。您回答的內容將寶貴地用於本研究，即使需要一些時間，也請如實回答並全部填寫所有問題。此外，本次調查以無記名方式進行，研究院將嚴格按照國際數據保護規則收集和分析調查數據，您回答的內容僅作為研究目的的統計資料，並承諾保密。

本問卷是單項選擇，答案不分對錯，請仔細閱讀並選擇與內心真實想法最一致的選項。很能傾聽您的想法，我感到非常榮幸，再次感謝您在百忙之中配合問卷調查！

※請閱讀以下內容並同意。

本人已充分理解上述說明文的內容，正在自發參與該問卷調查。本人深知隨時可以停止參與研究，不會因此產生任何不利影響。

2023年2月

濟州大學普通研究生院博士生：王瑞

指導教授：金德鎮

E-mail : 76280713@qq.com

I. 下面是關於大家一般事項的提問。

1. 您的性別是？

- ① 男生 ② 女生

2. 您的年級是？

- ① 大一 ② 大二 ③ 大三 ④ 大四

3. 您主要參與啦啦隊的訓練或比賽的具體項目是？

- ① 技巧啦啦操 ② 舞蹈啦啦操

4. 您參加這項啦啦操運動項目的訓練年限是？

- ①1年以下 ②1年以上~2年以下 ③2年以上~3年以下 ④3年以上~4年以下 ⑤ 4年以上

5. 您在啦啦操項目上取得的運動員等級是？

- ①無等級 ②國家3級 ③國家2級 ④國家1級及以上

6. 您在啦啦操比賽中獲得的最好成績是？

- ①無等級 ②市級賽事獲獎 ③省級賽事獲獎 ④國家級賽事獲獎 ⑤國際級賽事獲獎

II. 下面是關於啦啦操運動員在訓練或比賽的過程中感受到的教練員行爲的問題。請仔細閱讀，並在與自己觀點最一致的號碼上進行標記。

| 號碼 | 內容 | 完全不同意 | 不同意 | 一般 | 同意 | 完全同意 |
|----|------------------------------------|-------|-----|----|----|------|
| 1 | 我的教練會徵求我和其他隊員對具體比賽策略的意見。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 我的教練會對我和其他隊員保持冷淡、疏遠的態度。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 我的教練會讓我和其他隊員參與決策制定的過程。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 我的教練會在自己講話時不喜歡我和其他隊員提出問題。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 我的教練會在決策重要的訓練或比賽事項時徵詢我和其他隊員的意見。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 我的教練會要求我和其他隊員無條件接受她/他的意見。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 我的教練會鼓勵我和其他隊員對指導訓練的方法提出建議。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 我的教練總是會以命令的口氣指導訓練和比賽。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 我的教練會在決策重大事件時徵求我和其他隊員的意見。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 | 我的教練會在訓練或指導比賽時，強迫我和其他隊員遵循他/她的教練方式。 | ① | ② | ③ | ④ | ⑤ |

III. 下面是關於啦啦操運動員對比賽完成滿意度的描述。請仔細回想最近一次參加的啦啦操比賽的情況並回答問題。請仔細閱讀，並在自己想法和感覺最一致的號碼上進行標記。

| 號碼 | 內容 | 完全不同意 | ← | | 一般 | → | | 完全同意 |
|----|------------------------|-------|---|---|----|---|---|------|
| 1 | 我對上次比賽的成績基本滿意。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2 | 我感覺上次比賽中使用的策略奏效了。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3 | 我覺得上次比賽做得很好，沒有遺憾。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4 | 通過上次的比賽，我感覺自己的技術進步了很多。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5 | 在上次比賽中，我覺得我的隊友們做得很好。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 | | | | | | | |
|---|--------------------------------------|---|---|---|---|---|---|---|
| 6 | 在上次比賽中，我覺得我們隊的隊友們一起努力 拼搏了。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7 | 在上次比賽中，我的隊友們對團隊的整體成績很滿意。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8 | 在上次比賽中，我們隊友們認為爲了實現球隊的目標，大家已經盡了最大的努力。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9 | 在上次比賽中，我的隊友們對所取得的結果很滿意。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Ⅲ. 下面是關於啦啦操運動員所感受到的與教練員之間關係的描述。您與教練的關係怎麼樣？請仔細閱讀，並在與自己真實想法最一致的號碼上進行標記。

| 號碼 | 您與教練的關係怎麼樣？ | 完全不同意 | ← | | 一般 | → | | 完全同意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1 | 我喜歡我的教練。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2 | 我感覺我與教練的關係比較親近。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3 | 當教練指導我時，我會做出積極迴應。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4 | 當教練指導我時，我會表現出謙虛友好的態度。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5 | 我信任我的教練。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6 | 我尊重我的教練。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7 | 跟我的教練在一起的時候，我感覺我的運動生涯充滿了希望。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8 | 當教練指導我時，我覺得輕鬆。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9 | 我忠誠於我的教練，我願意和他保持長期的合作關係。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10 | 當教練指導我的時候，我會全力以赴，力爭做到最好。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11 | 我很感激教練爲了提高我的運動成績所做出的努力。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Ⅳ. 下面是關於啦啦操運動員運動持續意圖的問題。請仔細閱讀，並在與自己真實想法最一致的號碼進行標記。

| 號碼 | 內容 | 完全不同意 | 不同意 | 一般 | 同意 | 完全同意 |
|----|--------------------------|-------|-----|----|----|------|
| 1 | 我希望繼續參與啦啦操運動。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 我決心不管遇到什麼困難，都要繼續進行啦啦操運動。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 我想在啦啦操運動中投入很多時間。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 我會爲了繼續進行啦啦操運動而努力。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 我希望繼續參加啦啦操活動、比賽和聚會。 | ① | ② | ③ | ④ | ⑤ |

VI. 下面是關於啦啦操運動員運動放棄意圖的問題。請仔細閱讀，並在與自己真實想法最一致的號碼進行標記。

| 번호 | 내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 我想放棄啦啦操運動，因為太累了。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 我想放棄啦啦操運動，因為前途不明朗。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 我想放棄啦啦操運動，因為我覺得不能憑藉啦啦操而獲得成功。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 我想放棄啦啦操運動，因為我對啦啦操運動失去了興趣。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 比起啦啦操，我更關心其他運動。 | ① | ② | ③ | ④ | ⑤ |

-謝謝您的回答-

연구 설명문 및 동의서

존경하는 선수님,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의 목적은 귀하께서 치어리딩 활동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들은 본 연구에 소중한 활용되오니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솔직한 대답을 해 주시고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기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조사는 무기명으로 진행되며, 연구원은 조사 및 조사 데이터는 국제 데이터 보호 규칙에 따라 엄격하게 수집 및 분석되며,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들은 연구목적만을 위한 통계자료로만 쓰이며,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본 설문은 단항 선택으로 답은 옳고 그름의 구분이 없으므로 잘 읽어보시고 마음속의 진실한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선택지를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생각을 들어줄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읽으시고 동의해 주십시오.

본인은 위 설명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이 설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언제라도 연구참여를 중단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왕예

지도교수 김 덕 진

E-mail : 76280713@qq.com

I.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남학생 ②여학생

2. 귀하의 학년은?

①1학년 ②2학년 ③3학년 ④4학년

3. 귀하는 치어리딩의 훈련이나 경기에서 주로 참여하시는 종목은?

①스탠트 치어리딩 ②댄스 치어리딩

4. 귀하는 이 치어리딩 종목에 참여한 경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1년 미만 ②1년 이상~2년 미만 ③2년 이상~3년 미만 ④3년 이상~4년 미만 ⑤ 4년이상

5. 귀하의 치어리딩 운동선수 등급은?

- ①무등급 ②국가 3급 ③국가 2급 ④국가 1급 및 이상

6. 귀하는 치어리딩 경기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받은 등급은?

- ①무등급 ②시 등급 ③성 등급 ④국가 등급 ⑤국제 등급

Ⅱ. 다음은 치어리딩 선수들이 훈련이나 경기하는 관점에서 느끼는 코칭행동에 대한 문항들입니다. 잘 읽으시고 자신의 견해와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 표를 해 주십시오.

| 번호 | 내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 나의 코치는 나와 팀 동료선수들에게 구체적인 경기 전략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 나의 코치는 나와 팀 동료선수들에게 냉담하고 소원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 나의 코치는 나와 팀 동료선수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 나의 코치는 자신이 말할 때는 나와 팀 동료선수들이 의견을 제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 나의 코치는 중요한 훈련이나 경기 내용에 대해 나와 팀 동료선수들의 의견을 경청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 나의 코치는 나와 팀 동료선수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요구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 나의 코치는 훈련 방법에 대해 나와 팀 동료선수들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격려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 나의 코치는 항상 명령조로 훈련과 경기를 지도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 나의 코치는 중대한 사건을 결정하려고 할 때 나와 팀 동료선수들의 의견을 듣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 | 나의 코치는 훈련이나 경기지도할 때 나와 팀 동료선수들을 자신의 코칭방식을 따르도록 강요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Ⅲ. 다음은 치어리딩 선수가 수행만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장 최근에 참여했던 치어리딩 시합의 경우를 자세하게 회상하시고 질문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잘 읽으시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이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 표를 해 주십시오.

| 번호 | 내용 | 전혀 아니다 | ← | | 보통이다 | → | | 매우 그렇다 |
|----|---------------------------------|--------|---|---|------|---|---|--------|
| 1 | 나는 지난번 시합 성적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2 | 나는 지난번 시합에 사용했던 전략들이 주효했다고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 | | | | | | | |
|---|--|---|---|---|---|---|---|---|
| 3 | 나는 지난번 시합은 후회 없이 잘했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4 | 나는 지난번 시합을 통해서 기술이 많이 좋아졌다고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5 | 지난번 시합에서 우리 팀 동료들은 잘 싸웠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6 | 지난번 시합에서 우리 팀 동료들은 함께 열심히 노력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7 | 지난번 시합에서 우리 팀 동료들은 팀의 전반적인 성적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8 | 지난번 시합에서 우리 팀 동료들은 팀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9 | 지난번 시합에서 우리 팀 동료들은 성취한 결과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IV. 다음은 치어리딩 선수가 느끼는 선수와 코치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는 코치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잘 읽으시고 자신의 견해와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 표를 해 주십시오.

| 번호 | 귀하는 코치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 전혀 아니다 | ← | | 보통 이다 | → | | 매우 그렇다 |
|----|--|-----------|---|---|----------|---|---|-----------|
| 1 | 나는 나의 코치를 좋아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2 | 나는 나의 코치와 가깝다고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3 | 코치가 나를 지도해 줄 때 나는 적극적으로 응대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4 | 코치가 나를 지도해 줄 때 나는 매우 겸허하고 우호적인 행동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5 | 나는 나의 코치를 신뢰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6 | 나는 나의 코치를 존경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7 | 나는 코치와 함께 있을 때 나의 운동생활이 희망으로 가득찬 것을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8 | 나는 나의 코치에게 지도받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9 | 나는 나의 코치를 충실하며 코치와 오래도록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10 | 코치가 나를 지도해 줄 때 나는 최선을 다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11 | 나는 나의 코치가 내 경기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노력에 감사드린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V. 다음은 치어리딩 선수의 지속의도에 대한 문항입니다. 잘 읽으시고 자신의 견해와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 표를 해 주십시오.

| 번호 | 내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 나는 치어리딩 운동을 계속 하길 원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 나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치어리딩 운동을 계속 하겠다고 다짐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
|---|-------------------------------------|---|---|---|---|---|
| 3 | 나는 치어리딩 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싶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 나는 치어리딩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 나는 치어리딩 활동, 대회 및 모임에 지속해서 참여하길 원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VI. 다음은 치어리딩 선수의 운동포기의도에 대한 문항입니다. 잘 읽으시고 자신의 견해와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 표를 해 주십시오.

| 번호 | 내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 나는 치어리딩 운동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 나는 치어리딩 운동으로는 장래가 불투명해서 그만두고 싶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 나는 치어리딩 운동으로 성공을 못할 것 같아서 그만두고 싶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 나는 치어리딩 운동에 흥미를 잃어서 그만두고 싶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 나는 치어리딩보다 다른 운동에 더 관심이 많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VII. 다음은 치어리딩 선수의 코치-선수관계유지전략에 대한 문항입니다. 잘 읽으시고 자신의 견해와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 표를 해 주십시오.

| 번호 | 내용 | 전혀 아니다 | ← | | 보통이다 | → | | 매우 그렇다 |
|----|---|--------|---|---|------|---|---|--------|
| 1 | 나는 코치에게 항상 치어리딩 훈련에 대한 열정을 보여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2 | 나는 쓸모 있는 선수임을 코치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3 | 나는 코치에게 성공에 대한 열망을 보여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4 | 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열심히 훈련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5 | 나는 코치와 소통할 때 열심히 경청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6 | 나는 코치와 소통할 때 존경과 예의를 보여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7 | 나는 코치와 소통할 때 코치의 감정상태를 살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8 | 나는 코치와 소통할 때 코치의 생각과 의도에 이해해 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9 | 나는 코치와 의견이 불일치할 때 냉정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10 | 나는 코치와 의견이 불일치할 때 참는 것을 선택하고 내 의견을 조절하는 쪽으로 협력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11 | 나는 코치와 의견이 다를 때 코치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12 | 나는 코치와 의견이 불일치할 때 코치의 의견을 존중하고 듣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研究說明書及同意書

尊敬的運動員，您好。

本次調查的目的在於瞭解您在參與啦啦隊活動時感受到的各種心理因素。您回答的內容將寶貴地用於本研究，即使需要一些時間，也請如實回答並全部填寫所有問題。此外，本次調查以無記名方式進行，研究院將嚴格按照國際數據保護規則收集和分析調查數據，您回答的內容僅作為研究目的的統計資料，並承諾保密。

本問卷是單項選擇，答案不分對錯，請仔細閱讀並選擇與內心真實想法最一致的選項。很能傾聽您的想法，我感到非常榮幸，再次感謝您在百忙之中配合問卷調查！

※請閱讀以下內容並同意。

本人已充分理解上述說明文的內容，正在自發參與該問卷調查。本人深知隨時可以停止參與研究，不會因此產生任何不利影響。

2023年2月

濟州大學普通研究生院博士生：王瑞

指導教授：金德鎮

E-mail : 76280713@qq.com

I. 下面是關於大家一般事項的提問。

1. 您的性別是？

- ① 男生 ② 女生

2. 您的年級是？

- ① 大一 ② 大二 ③ 大三 ④ 大四

3. 您主要參與啦啦隊的訓練或比賽的具體項目是？

- ① 技巧啦啦操 ② 舞蹈啦啦操

4. 您參加這項啦啦操運動項目的訓練年限是？

- ①1年以下 ②1年以上~2年以下 ③2年以上~3年以下 ④3年以上~4年以下 ⑤ 4年以上

5. 您在啦啦操項目上取得的運動員等級是？

- ①無等級 ②國家3級 ③國家2級 ④國家1級及以上

6. 您在啦啦操比賽中獲得的最好成績是？

- ①無等級 ②市級賽事獲獎 ③省級賽事獲獎 ④國家級賽事獲獎 ⑤國際級賽事獲獎

II. 下面是關於啦啦操運動員在訓練或比賽的過程中感受到的教練員行爲的問題。請仔細閱讀，並在與自己觀點最一致的號碼上進行標記。

| 號碼 | 內容 | 完全不同意 | 不同意 | 一般 | 同意 | 完全同意 |
|----|------------------------------------|-------|-----|----|----|------|
| 1 | 我的教練會徵求我和其他隊員對具體比賽策略的意見。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 我的教練會對我和其他隊員保持冷淡、疏遠的態度。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 我的教練會讓我和其他隊員參與決策制定的過程。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 我的教練會在自己講話時不喜歡我和其他隊員提出問題。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 我的教練會在決策重要的訓練或比賽事項時徵詢我和其他隊員的意見。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 我的教練會要求我和其他隊員無條件接受她/他的意見。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 我的教練會鼓勵我和其他隊員對指導訓練的方法提出建議。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 我的教練總是會以命令的口氣指導訓練和比賽。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 我的教練會在決策重大事件時徵求我和其他隊員的意見。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 | 我的教練會在訓練或指導比賽時，強迫我和其他隊員遵循他/她的教練方式。 | ① | ② | ③ | ④ | ⑤ |

III. 下面是關於啦啦操運動員對比賽完成滿意度的描述。請仔細回想最近一次參加的啦啦操比賽的情況並回答問題。請仔細閱讀，並在自己想法和感覺最一致的號碼上進行標記。

| 號碼 | 內容 | 完全不同意 | ← | | 一般 | → | | 完全同意 |
|----|------------------------|-------|---|---|----|---|---|------|
| 1 | 我對上次比賽的成績基本滿意。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2 | 我感覺上次比賽中使用的策略奏效了。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3 | 我覺得上次比賽做得很好，沒有遺憾。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4 | 通過上次的比賽，我感覺自己的技術進步了很多。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5 | 在上次比賽中，我覺得我的隊友們做得很好。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 | | | | | | | |
|---|--------------------------------------|---|---|---|---|---|---|---|
| 6 | 在上次比賽中，我覺得我們隊的隊友們一起努力 拼搏了。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7 | 在上次比賽中，我的隊友們對團隊的整體成績很滿意。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8 | 在上次比賽中，我們隊友們認為為了實現球隊的目標，大家已經盡了最大的努力。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9 | 在上次比賽中，我的隊友們對所取得的結果很滿意。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Ⅲ. 下面是關於啦啦操運動員所感受到的與教練員之間關係的描述。您與教練的關係怎麼樣？請仔細閱讀，並在與自己真實想法最一致的號碼上進行標記。

| 號碼 | 您與教練的關係怎麼樣？ | 完全不同意 | ← | | 一般 | → | | 完全同意 |
|----|-----------------------------|-------|---|---|----|---|---|------|
| | | | | | | | | |
| 1 | 我喜歡我的教練。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2 | 我感覺我與教練的關係比較親近。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3 | 當教練指導我時，我會做出積極迴應。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4 | 當教練指導我時，我會表現出謙虛友好的態度。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5 | 我信任我的教練。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6 | 我尊重我的教練。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7 | 跟我的教練在一起的時候，我感覺我的運動生涯充滿了希望。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8 | 當教練指導我時，我覺得輕鬆。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9 | 我忠誠於我的教練，我願意和他保持長期的合作關係。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10 | 當教練指導我的時候，我會全力以赴，力爭做到最好。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11 | 我很感激教練為了提高我的運動成績所做出的努力。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Ⅳ. 下面是關於啦啦操運動員運動持續意圖的問題。請仔細閱讀，並在與自己真實想法最一致的號碼進行標記。

| 號碼 | 內容 | 完全不同意 | 不同意 | 一般 | 同意 | 完全同意 |
|----|--------------------------|-------|-----|----|----|------|
| | | | | | | |
| 2 | 我決心不管遇到什麼困難，都要繼續進行啦啦操運動。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 我想在啦啦操運動中投入很多時間。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 我會為了繼續進行啦啦操運動而努力。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 我希望繼續參加啦啦操活動、比賽和聚會。 | ① | ② | ③ | ④ | ⑤ |

VI. 下面是關於啦啦操運動員運動放棄意圖的問題。請仔細閱讀，並在與自己真實想法最一致的號碼進行標記。

| 號碼 | 內容 | 完全不同意 | 不同意 | 一般 | 同意 | 完全同意 |
|----|------------------------------|-------|-----|----|----|------|
| 1 | 我想放棄啦啦操運動，因為太累了。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 我想放棄啦啦操運動，因為前途不明朗。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 我想放棄啦啦操運動，因為我覺得不能憑藉啦啦操而獲得成功。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 我想放棄啦啦操運動，因為我對啦啦操運動失去了興趣。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 比起啦啦操，我更關心其他運動。 | ① | ② | ③ | ④ | ⑤ |

VII. 下面是關於啦啦操運動員與教練關係促進策略的描述。請仔細閱讀，並在與自己真實想法最一致的號碼進行標記。

| 號碼 | 內容 | 完全不同意 | ← | | 一般 | → | | 完全同意 |
|----|------------------------------------|-------|---|---|----|---|---|------|
| | | | ② | ③ | | ⑤ | ⑥ | |
| 1 | 我會在教練面前始終保持對啦啦操訓練的熱情。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2 | 我會向教練證明自己是一個有能力的運動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3 | 我會向教練表現出自己對成功的渴望。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4 | 我會為了實現目標而竭盡全力的訓練。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5 | 我會在與教練溝通時，認真傾聽。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6 | 我會在與教練溝通時，表現出尊重和禮貌。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7 | 我會在與教練溝通時，觀察教練的情緒狀態。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8 | 我會在與教練溝通時，理解教練的目的和意圖。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9 | 在與教練意見不一致時，我會努力保持冷靜。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10 | 在與教練意見不一致時，我會選擇忍耐，調整我的意見儘量配合(他/她)。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11 | 在與教練意見不一致時，我會盡量理解教練的立場。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12 | 在與教練意見不一致時，我會尊重和聽從教練的意見。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謝謝您的回答-

감사의 글

'자신을 놓치지 마세요, 세월을 저버리지 마세요.' 라는 말은 제가 2019년 고국과 가족들을 떠나 한국으로 유학 왔을 때 비행기에서 내 자신에게 쓴 말입니다. 4년 동안 저는 열정과 정성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박사과정이라는 먼 여정을 떠났고, 많은 고생과 노력으로 마침내 박사 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유학은 제 인생에서 중요하고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박사과정 동안 좋은 스승과 친한 친구들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저에게 성심성의껏 도와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의 공부와 일상생활 등 여러 측면에서 아낌없는 배려와 피곤한 줄 모르고 꾸준한 가르침을 주신 지도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덕진 교수님의 지도는 망망한 바다의 등대처럼 어둠 속에서 저에게 희망과 힘을 주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 졸업논문이 순조롭게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 김덕진 교수님의 세심한 지도와 엄격한 요구 그리고 많은 배려 덕분입니다. 교수님의 해박한 지식, 풍부한 경험, 높은 학문적 조예는 저의 학문적 시야를 풍부하게 하여, 제가 과학 연구의 문을 여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깊은 스승의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며,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체육학과의 양명환 교수님, 김영표 교수님, 서태범 교수님, 김미에 교수님이 생각납니다. 저에 대한 교수님들의 인정과 격려는 나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고 제한된 이론적 수업 시간에 많은 진보를 이루게 했습니다. 특히 제 박사학위 과정 전반에 걸쳐 격려와 성원 그리고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양명환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성실하고 부지런한 직업정신과 엄밀하고 진실한 학문을 추구하는 태도는 저의 본보기가 되었고 평생 존경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논문심사를 수락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리며, 몇 년간의 학습 성과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논문 수정 과정에서 많은 조언과 세심한 지도를 해주신 외부 심사위원인 백혜경 교수님과 김세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에게 수년간 많은 도움과 성원을 보내주신 스포츠심리학 연구실의 식구들인 이영주 박사님, 김현주 박사님, 현중환 박사님, 광도규 박사님께 감사합니다. 특히 제가 외롭고 무력했을 때마다 도와주신 양영영 선생님과 강상범 선생님 가족처럼 항상 곁에서 따뜻함과 든든한 힘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외에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자료수집에 많은 도움을 주신 중국대학생스포츠위원회 치어리딩 종목의 모든 핵심 교수님과 코치님 및 심판님들 감사드립니다. 특히 논문 작성 과정에서 여러 차례 교류 기회와 제안을 제공해 주시던 광저우체육대학 갈지빈 교수님, 지린체육대학교 자오루이 교수님, 내몽골 사범대학교 저우야닝 교수님, 내몽골의과대학교 두예 교수님, 내몽골 공과대학교 강리 교수님께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후룬베이얼대학교의 리더님들과 모든 동료님들, 이 외에도 언급하지 못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 남편 텐레이와 시부모님께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7년이 되었지만 4년 동안 외국에서 공부했습니다. 당신들의 지지와 포용과 격려 덕분에 도전적인 학업을 끝까지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에 대한 이해와 헌신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리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 원동력이며, 제 평생의 자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신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왕예 씨, 고생했습니다! 당신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과감한 선택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어떤 어려움에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당신은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진정한 자신을 찾아주고, 자신을 알아주고, 마침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서 감사합니다.

운명의 윤회는 400미터 운동장처럼 항상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놓습니다. 시작점이 종점이고 종점이 시작점입니다. 전 이제 짐을 다시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음이 평온할 뿐만 아니라 힘이 넘칩니다. 38세, 내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번 역은 잠시 해안으로 올라갔습니다. 길이 아직 멀어서 나중에도 계속 자중하고, 자율하고, 자심하고, 자강하겠습니다!

2023년 7월

왕예 올림

感謝語

別放過自己，別辜負歲月。這是2019年我第一次離別祖國和家人來韓國求學時在飛機上寫給自己的話。就這樣，四年裏我帶着滿腔熱情和赤誠之心，走了很遠的路，吃了很多的苦，終於等到了這一天，把這篇博士畢業論文呈現在您面前。

在韓國攻讀博士學位到底是一種怎樣的體驗？相信很多同學同我一樣曾被問到過這樣的問題。作為在異國求學的留學生，在面對語言、文化及生活差異的各種困難環境下，想要順利的取得博士學位，其中難度，不言而喻。“學海無涯苦作舟”，韓國留學經歷令我對這句話有了再認識，以此句來形容內心的感受也再貼切不過。廣泛的知識果眞如同中國唐代詩人韓愈先生描述的那樣，像大海般一眼望不到盡頭，越是隨着學習的深入，愈發的覺察到自己的無知。而那些苦，便是伴隨陽光刺破黑暗早起學習的清晨，是看論文忘記時間睡在研究室桌子上的夜晚，是疫情時期在異國他鄉對家人的思念和孤獨，是獨自經歷颱風，火警，地震及被蜚蟲咬傷後的焦慮和恐慌，是對論文反覆設計、推敲、修改、打磨時的瘋魔和耐心，是四年間日復一日全年無休來研究室學習的每一天... ..

然而，“書山有路勤爲徑”，對於不會游泳卻忽然間跳入海里而置身知識汪洋中的我，深知如果想到達彼岸，就必須要付出比別人多出2倍甚至更多的努力。功夫不負有心人，苦行僧之旅是與恬蜜和收穫並存的。正是這艱辛的博士研究生學習生涯，使我對專業有了更深的瞭解之外，學會了放下驕傲，對自己有了重新的認知。同時，還獲得了一顆對知識保持敬畏、謙遜的心和一份敢於乘風破浪的勇氣。於我而言，是人生中的一次重要且難忘的航行。在這次航行即將結束的時刻，回憶途中的點滴，心懷感激，衷心感謝諸多良師益友這一路的誠摯幫助，陪伴我堅持並順利的走過這人生中重要的階段，謹以此致謝。

首先，感謝我的指導教授在學習和生活等各個方面給予的無微不至的關懷和孜孜不倦的教誨。金德珍教授的指導如同茫茫海上的燈塔一般，在黑暗中帶給我希望和力量，併爲我指明瞭前進的方向。畢業論文能夠順利完成，與金德珍教授的精心指導和嚴格要求分不開，不

管從論文的立題、設計和撰寫都給予了精心的指導。他淵博的知識、豐富的閱歷、高深的學術造詣豐富我的學術視野，助我推開了科研的大門，師恩深重，終生難忘，在此表示最衷心的感謝。

其次，感謝體育學科的梁明煥教授，金泳杓教授，徐泰範教授，金美睿教授，他們的認可和鼓勵給予了我莫大的信心，同時讓我在有限的理論課時間裏得到了很大的提高。特別要感謝的是梁明煥教授在我攻讀博士學位的各個階段中給予我的鼓勵，支持和許多無私幫助，他踏實勤奮的敬業精神和嚴謹求實的治學作風更是我學習的榜樣，令我終身敬仰。

感謝參與我論文評審和答辯的各位教授們，他們給了我一個審視幾年來學習成果的機會，特別感謝論文外部審查委員白惠景教授，金世民教授在我論文修改過程中給予的中肯建議和悉心指導。

感謝體育心理學研究室的同門們，感謝李英珠博士，金玄珠博士，玄宗煥博士，郭嘯奎博士多年來在科研方面給予的幫助和支持。特別感謝同門楊冉冉老師，姜尙範老師，謝謝他們教會我什麼纔是真正的真誠和坦蕩，並在我每個孤獨無助的時候，帶給我真實的溫暖和力量。

感謝我的好朋友王鑫慧碩士和甄翱翔博士陪伴我一起渡過的美好時光，優秀的她們像一面鏡子，讓我看到自己身上不足的同時，也會時刻鞭策着自己進步，求學期間的相互學習和扶持將是我記憶中最美麗的風景。還有很多沒有提到名字的好朋友，再次也一併謝過。

此外，我還要感謝中國大學生體育協會啦啦操項目全體骨幹教師，教練員及裁判員們對本論文調查工作所提供的大力幫助與支持。特別感謝廣州體育大學葛志斌老師，吉林體育學院趙睿教授，內蒙古師範大學周雅寧老師，內蒙古醫科大學杜燁老師，內蒙古工業大學康莉老師等多名教師在論文撰寫過程中提供多次的交流機會和建議，為我撰寫論文給與了很多的靈感。

感謝呼倫貝爾學院的領導李曉峯教授，胡日查教授，靈敏教授，胡旭紅教授，李耀武教授對我學習和生活上的關心，同時也特別感謝我的同事們張秀萍老師，張娜娜老師，呂品老

師，楊雷老師，王輝教授，高丹教授，周慶祝教授，王曉芳教授，佳悅教授等多位好同事在我求學過程中對我工作和學習上的支持和幫助。

感謝我的愛人田雷和公公婆婆，結婚七年，我在外求學了四年，正是您們的支持，包容和鼓勵才使我堅定的完成了這段極具挑戰性的學習生涯。

我還要把這份感激獻給我最最深愛的父母。感謝他們對我的理解支持，無私付出和全力的支持，謝謝他們給了我這世界上最美好最珍貴的一切，他們的愛是我生存在這個世界的底氣，是我堅持努力的動力，是我一生的驕傲和自豪。此時此刻，我特別想對跟海產品打了幾十年交道但卻未曾見過翠綠色大海的父母說，是你們的付出，讓我知道大海並不止於藍色，現在我想憑藉自己的努力帶你們看遍這世界上每一處令人心醉的大海，第一站就是給我留下太多美好記憶的濟州島，能夠用這樣的方式開始實現自己內心對你們的承諾，對我來說意義重大。

最後我想感謝自己。王瑞同學，你辛苦了，謝謝你不甘安於現狀，謝謝你當初果斷的選擇，謝謝你堅持不懈的努力，謝謝你在任何困難中都沒有放棄過自己，謝謝你憑藉努力找到了自己，認識自己，也終於學會了該如何愛自己。

命運的輪迴總是會讓一切回到原點，像極了400米的運動場。起點即終點，終點亦是起點，周而復始，生生不息，並沒有盡頭。此刻，我又將收拾行囊準備再出發了，內心平靜且充滿力量。因為我知道，儘管此次出走似半生，但歸來時心已是少年。38歲，我的人生纔剛剛開始。

這一站，且上岸。路漫長，吾輩當繼續自重，自律，自信，自強！

王瑞

2023. 7. 7

凌晨 寫於研究室